



7

1996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6. 7호

(루계 585)



차 제

시대의 명작창작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받들어모시자.....	4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6
상봉	7
우리 민족의 큰 집	16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17
세월이 전해가는 7 월의 이야기	28
위대한 인간미	30
《군로신일》	32
그이께서는 영생하신다	33
기념사진촬영은 계속된다(외 1 편)	34
감자꽃 필무렵	34
승리의 기상이 강산에 넘친다.....	35
영생의 신념, 민족의 의지.....	36
명언해설	41
붉은기의 추억	42
새날이 밝아오네(외 1 편)	42
원썩들은 기억하라.....	42
수령의 위대성을 폭넓게 형상하도록 이끄시여	43

대덕산에 오신 날에	45
승리여	46
《고난의 행군》 정신에 비낀 장군님의 의지	47
개선문	49
로병이 넘겨줄것은... ..	58
기다리는 계절	59
나의 중대여	65
평양이여, 그대와는 작별이 없다	65
산복숭아꽃	66
그는 어디에 있는가	72
로병의 마음	73
오늘도 불타는 락동강을 넘으며	78
당부	79
나는 진정으로 머리를 숙인다	80

시대의 명작창작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받들어모시자

오늘 우리 작가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문학작품창작에 모든 탐구와 사색,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면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형상의 화폭에 담아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로서의 우리 작가들의 가장 숭고한 시대적사명이며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한평생 오로지 인민을 위해 정력적으로 사색하시고 활동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수천년동안 갖은 천대와 억압속에서 살아온 인민들을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자주화된 새 세계에서 살며 발전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시고 더없이 고마운 은인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현시대의 본질을 밝히고 인민대중에게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안겨주는 새로운 지도리념을 정립할데 대한 요구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자주적지위와 창조적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세계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는것이야말로 인간의 참다운 리상이며 인간이 자기자신을 믿고 자기의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끊임없이 노력해나간다면 이러한 리상을 반드시 실현할수 있다는 신념을 안겨준다. 그리하여 돈과 물질중심의 낡은 가치관으로부터 인류를 해방하고 사람들이 다같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영원히 발전해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하기에 오늘 세계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새 시대, 자주시대

를 열어놓으시고 세계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신 위대한 수령으로 칭송하고있으며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간직하고 그이의 영생을 기원하고있는것이다.

주체의 태양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민과 인류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는 매우 성스럽고 중대한 책임적인 창작사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아직도 먼길을 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우리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 해도 우리는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지켜 이길로만 꿋꿋이 걸어나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의 움직일수 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침에 따라 온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수령님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에 충실하며 시대의 명작을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시대의 명작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을 참된 삶과 투쟁의 생명선으로 여기고 그이의 령도를 충효일심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혁명적문학창작의 길에 한몫 바쳐 끝까지 싸워나가려는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작가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로 되여야 한

다.

작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고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적인생관의 높이에 자신을 부단히 따라세우며 그이의 사상과 리념을 자기의것으로 체질화해나갈 때만이 창작에서 당의 사상을 투철히 구현할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시대의 명작을 창작함에 있어서 우리 문학의 형상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학은 형상을 통하여 그 사상미학적감화력과 사회적가치가 담보된다. 형상이 없으면 문학으로서의 생명력도 잃게 된다.

우리 문학의 형상수준을 높이는데서 가장 큰 힘을 넣어야 할 주제분야가 수령형상작품이다.

작가들은 수령형상작품창작에 모를 박고 그 형상수준을 최상의 높이에 이르게 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창작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오늘 수령형상문학의 형상수준을 높임에 있어서 우리 작가들이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야 할 문제는 위대한 인간의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있게 개방하는것이다.

시대의 기념비적서사시로 창작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의 창작성과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내부적체험세계, 심리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는 여기에 현시기 수령형상문학의 인간학적풍격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있다.

우리는 수령형상창조에서 나타난 지난 기간의 부족점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수령형상문학의 인간학적풍격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할것이다.

특히 작가들은 시와 소설 등 문학의 모든 형태에 다양한 예술적화폭들에 어버이수령님의 한생,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품위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하여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후세들까지도 한평생 인민을 위해 끊임없는 사랑의 길을 걸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길이 길이 전하도록 해야 한다.

문학작품의 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실력전을 벌려야 한다.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킴으로써만이 문학의 형상수준을 높일수 있다.

작가들은 자기들이 인류문화발전에서 가장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는 주체문학을 건설한다는 높은 자각과 긍지를 가지고 실력을 부단히 높여 나가야 한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작가로서 본분

을 다할수 없으며 재능이 없이는 문학으로 혁명을 이바지할수 없다.

작가의 실력, 창작적재능은 부단한 탐구와 사색, 완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작가만이 높게 발양할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분초를 아껴가며 끊임없는 탐구와 사색으로 창작적열정을 불태워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받들 어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모두가 붉은기정신, 《고난의 행군》정신을 지녀야 하며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혁명적인생관을 신념으로 간직하는것이 중요하다.

더우기 우리 작가들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수령옹위의 창작정신, 결사옹위정신을 투철히 간직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작가들이 지녀야 할 수령옹위의 창작정신은 혁명의 1세대 시인 김혁의 창작정신이다. 혁명시인 김혁의 창작정신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며 끝없는 매혹과 순결무구한 순정이며 래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미래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다.

혁명시인 김혁의 창작정신을 이어받아 혁명의 령도자를 견결히 결사옹위하려는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작가들의 삶의 철학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김혁의 창작정신으로 혁명의 계주봉을 튼튼히 틀어잡고 우리 문학을 수령의 혁명위업에 철저히 복무하는 문학으로 가꿔나가야 한다.

력사는 바야흐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있다.

우리는 비오나 눈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서 다진 맹세를 영원히 심장에 간직하고 그 어떤 난관이 앞을 막아나선다 해도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20세기 마지막년대를 치달아올라 세기의 령마루에 주체의 붉은기를 세차게 휘날려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업적이 21세기에도 더욱 세차게 내려치게 하는 문학작품을 더 활발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며 그이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에 충효일심을 다해나가도록 사람들을 힘있게 이끌여주는 시대의 명작,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하는 혁명적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시대와 혁명이 부과하는 자기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것이다.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리 영

그리움에 그리움을 더하며
겨울도 가고 봄도 가고...
이해에도 다시 찾아온 7월
무심한 날이 따로 없는 우리의 세월속에
사무치는 그리움에 밝아온 7월

눈시울 적시며 바라보는 하늘이여
가슴에 안아키운 7월의 꽃이여
네가 말해다오
주실수 있는것 인민에게 다 주신 수령님
위대한 그 한생으로 펼치신 하늘이여
저물녘 두령길우에서
애어린 처녀분조장은 오늘도 기다리노라

다시 오겠다시던 그 약속
귀가에 쟁쟁해
저녁노을 고운 들끝에서
문득 그날의 음성 다시 들릴듯
가슴 울렁이며 기다리노라

수령님과 약속한 정당 10톤
그 약속 지켜 오늘도 사는 마음
수령님 다녀가신
들길을 쓸며 또 쓸며
언제든지 오시리라 믿고믿으며
그리워 그리워 찾고찾는 수령님

그런 낮과 밤이 모여 흘러라
그런 날과 날이 이어져 이 땅의 세월은 흘러라
거리의 창문을 바라보아도
그 은정 노래속에 목메게 흐르고
산이라 들이라 그 어데 둘러보아도
그 자욱 꽃피여 더 간절해지는
아 수령님 생각이여

꽃이래도 제일 고운 꽃 드리고싶었고

좋은 날만 골라골라 모시고싶었던
그 나날의 소원이 어찌 소원으로만 남으랴
수령님 모시고 살아온 그 세월처럼
수령님 뜻으로 살아갈 그 세월 앞에 있어
그리움에 못잇을 나날들은
힘과 용기를 다져온 맹세의 7월로 밝아왔거니

잊을래야 잊고 살수 없어
떨어질래야 떨어져 살수 없어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어버이품이여
시간과 세월로도 가르치 못할
수령과 인민의 사이
여기에 그 어떤 생사의 한계가 있으랴

내 나라, 내 조국 빛내여오신
불멸의 그 업적으로
주체의 넓은 길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령도로
이 땅에 흘러온 그 날과 날들은
언제나 수령님 뵈우며
수령님의 가르치심 받으며 살아온 나날...

오늘도 우리 수령님
래일도 우리 수령님
인민이 우러러 받들어모시는
위대한 그 한생은 끝나지 않았거니
보아라- 해빛같은 그 미소로
이 땅은 찬란하고 삶은 약동하고
예대로 하늘은 푸르고푸르거니

아 7월에 이어이어
인민은 수령님과 더 가까이 살고
세월이 천만년 흘러도
태양은 영원히 솟아 빛나리라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여라!

상 봉

1

한여름의 맑은 날씨였다.

아버이수령님을 모신 승용차행렬은 두만강기슭을 따라 무산쪽으로 달리고있었다.

(리종구라... 지금도 철산봉에서 대형자동차를 몰고있을테지... 이번엔 만나볼수 있게 됐군...)

속으로 줄곧 이렇게 뇌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신채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북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계시었다.

기묘하게 솟은 현무암절벽이며 수려한 자태를 드러내고있는 수림들이며 파아란 하늘이 담겨진 두만강이며 이 모든것이 백두산줄기와 련결된 자연이여서 그이께서는 한순간도 무심히 스쳐보낼수가 없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지금 여러해만에 무산땅을 찾아가시는 걸음이시었다.

온 나라가 새 조국 건설의 첫 걸음마를 떤 해방직후부터 이고장을 여러번 찾아주신 그이이시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이번 길이 처음이시었다.

그간 많은 세월이 흘러간탓인지 아니면 두만강을 넘나드시던 옛시절의 피어린 자취가 찍혀진 고장이여서 그런지 수령님께서서는 자연히 감회가 깊어지시었다.

이고장과 련결된 잊으실수 없는 사연들은 결코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인상깊게 추억되시는것은 48년도 여름날에 있는 일이었다.

...그날 수령님께서서는 광부들이 타고다니는 인차에 자리를 잡고 동행한 수원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철산봉에 오르고계시었다.

이제 철산봉의 산정에 이르게 되면 광복된 조국땅에서 광부들과의 첫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다. 그 력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수령님께서 저으기 흥분하고계시는데 뜻밖에도 곁에 앉아있던 군인민원위원회의 한 일군이 몹시 어쭈어하며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이였다.

《장군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장군님께서 혹시 일제시기에 무산시내를 다녀가신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군의 물음은 자신의 감정과는 어느 정도 동떨어진것이였으나 그이께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너그럽게 대답해주시었다.

《무산주변에는 내 몇번 왔다간 일이 있으나 무산시내에까진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

리희남

리 동무들은 무산시내를 제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선량해보이는 그 일군은 수령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리해가 잘되지 않는다는듯 무엇인가 더 알고싶어하는 눈치였다.

《혹시 어디서 날 본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그런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일군은 말씀을 올리기가 주저되는듯 말꼬리를 얼버무리며 어쩔줄 몰랐다.

《일없습니다. 기란없이 말하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이고장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보자던 참이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웃음을 지으시었다.

그 일군은 그제야 마음을 늦추며 어느 정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장군님, 그러시다면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시기에 이고장 인민들속에서는 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일화들이 많이 떠돌고있었습니다. 한번은 이런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웬 낮선 손님이

무산리발소에 들려 리말하고 갔는데 글쎄 그 손님이 앉아있던 리발의자우에 장군님의 명함장이 놓여있더라는겁니다. 그 소식이 삼시에 시내에 퍼지자 사람들은 신출귀몰하신다는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던지라 정말 장군님께서 오셨다가신줄 알고 몹시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보니 그건 장군님의 명함장이 아니라 장군님께서 쓰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였습니다.》

《허허...참 그럴듯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몸을 젖히시며 통쾌하게 웃으시다가 문득 가슴이 저릿해지는 충격을 받으시었다.

(그 엉뚱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대체 누굴까?... 혹시 조운호가 아닐까?... 그렇지. 틀림없어... 그가 지난날 이 지대를 타고앉아 활동했으니까.)

눈앞에는 어느덧 거방진 체구에 후덕스러워보이던 조운호의 모상이 떠올랐다.

조운호, 그는 전라도지방에서 농조운동을 하다가 일제경찰의 눈을 피해 무산지방으로 옮겨왔은 사람이였다.

언젠가 그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 밀영으로 찾아온 일이 있었다. 이것이 조운호와 의 첫 상봉이였다.

그이께서는 민족의 운명과 조국광복회에 대해서 조운호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더없이 소박하고 겸손해보이는 그 모습이 퍼그

나 마음에 드시었다.

《...우리는 이렇게 국내도시에 조국광복회 지하조직망을 꾸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을 광복하자고 합니다.》

조운호는 수령님을 우러른채 눈물을 머금었다.

암흑속에서 드디어 빛을 본 사람과도 같았다.

《제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상천지를 헤매다가 처음으로 눈이 확 트이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운호는 너무도 기뻐 눈물이 글썽해지면서도 병글병글 웃으며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코날개를 연방 문지르고있었다.

그날 저물녘이 다가왔을 때였다.

수령님께서 사령부의 귀틀집주변을 천천히 거닐고계시었다. 이제 잠시후면 조운호가 밀영을 떠나 무산시내로 들어가게 되는것이였다.

《장군님,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십니까?》

조운호가 조심스럽게 인기척을 내며 앞에 나타났다. .

《내 무산지대가 걱정돼 그림니다. 그곳에선 우리 로동자들을 마소처럼 학대하면서 나라의 쇠돌을 빼앗아가는 일체의 만행이 끊기지 않고 인민의 원성이 하늘땅에 사무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그곳에 조국광복회지하조직망을 빨리 꾸리고 조선인민혁명군소부대들의 활동을 보장할수 있는 믿음직한 발판을 마련해놓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많은 력량을 돌리다니 그곳에 아직 마땅한 공작원을 보내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산지대가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그 중임을 맡겨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일이야 우리 국내에서 사는 백성들이 주인이 돼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집도 땅도 부모처자도 다 잃고 외기러기 신세가 된 사람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의 처지가 어떤건지 눈물이 나도록 맛보았습니다. 제 신세를 고치자면 빨리 나라를 찾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령님께서 큰 충격을 받으시었다. 병글병글 웃기를 잘하는 조운호의 그 후덕스러운 모습에서 각성하는 인민의 모습을 보시였던것이다.

인민은 바야흐로 눈을 뜨고있었다. 아니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었다.

인젠 무산지대에 대해 더는 마음을 쓸 필요가 없었다. 조운호와 같은 믿음직한 사람이 있지 않는가. 조운호야말로 조국의 광복을 갈망하는 민심의 대변자들중의 한사람이였다. 민족의 운명을 건질수 있는 거대한 발판은 바로 이런 사람들속에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이께서는 어쩐지 조운호와 뽕배야뽕수 없는 사이가 된것만 같은 빠른 감정을 금할수가 없

으시었다.

서컨 산봉우리너머로부터 저녁노을이 피어올랐다.

조운호는 하늘과 땅을 선흥색물감처럼 곱게 물들인 저녁노을을 등지고 떠나갔다.

그가 가는 앞길엔 검푸른 밀림이 펼쳐졌는데 온통 노을속에 잠겨 한쪽의 그림처럼 신비할 정도로 아름다운 정서를 자아냈다. 자연은 마치도 노을이라는 이채로운 색깔로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안고 떠나가는 그에게 은근하고 부드러운것도 정열적인 축복을 보내주는것만 같았다.

조운호는 수령님앞에 드린 자기의 맹세를 훌륭히 실현했다.

그는 품팔이군처럼 꼴망태를 지고 무산지방과 연사지방을 번갈아 오고가며 조국광복회지하조직망을 적지 않게 꾸려놓았었다. 그 과정에 술한고충도 겪고 활약도 많이 했으련만 그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것처럼 제 자랑을 할줄 모르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참된 겸손성은 최상의 미덕이라는 말이 있다. 그의 이러한 미덕으로 하여 조운호를 더욱 잊으실수가 없었다.

수령님께서 조운호에 대한 비보를 들으신것은 42년 6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국내반일운동자들과의 비밀회합때문에 무산지방의 어느 한 수림속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이번길에 조운호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전국의 반일운동자들에 속해 널리 일반화할 생각이시였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적들의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장에서 희생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그는 조직이 로출되게 되자 스스로 자기를 적들앞에 드러내어 조직의 안전을 지켜냈다는것이였다.

처음 한순간에는 그 비보를 믿지 않으시었다. 혁명을 자기 운명처럼 받아들인 그 견결한 사람이 어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수 있단말인가.

눈앞에는 붉게 타는 저녁노을을 등지고 우줄거리며 밀영을 떠나가던 조운호의 모습이 되살아났다. 그렇게도 자연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현실은 너무도 가혹한 운명을 들씌우지 않았는가.

그이께서는 비분에 잠기시어 온밤 수림속을 거니시었다.

이렇게 되여 조운호의 비보는 들으시였으나 구체적인 투쟁내용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채 세월의 갈피속에 깊숙이 숨겨지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조운호의 소식을 더 알아보시려고 하시였으나 이미 들으신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다가 몇해가 지난 48년의 그날에야 비로소

조운호에 대한 한토막의 귀중한 일화를 듣게 되신 수령님이시였다.

(참 이런 희한한 일도 있단말인가. 조운호가 숨겨둔 귀중한 생의 흔적이 이렇게 드러나다니...)

그이의 가슴속에서는 그지없는 감개와 함께 걸잡을수 없는 애수의 금선이 울리고있었다.

그때로부터 근 반세기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땅에 이렇다할 흔적은 남기지 않고 간 사람이었던만 붉게 타는 저녁노을을 등지고 우줄거리며 밀영을 떠나가던 그의 모습은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의 가슴속에 더욱 뚜렷이 새겨지며 이름할수 없는 애뜻한 정을 자아내는것이였다. 아마 이때문에 그이께서는 80고령에 이르신 지금까지 노을비끼 저물녘에 대한 그 강렬한 인상을 좀처럼 지우지 못하고계시는지도 모른다.

(참 훌륭한 사람이였는데 너무도 일찌기 가버렸거든.)

그이께서는 어제날의 그 가슴아픈 비애가 되살아나는듯 눈을 감으시였다.

신경을 전혀 자극하지 않는 승용차소리가 한결 부드럽워진것 같고 출렁이는 두만강의 물결소리가 그 무슨 아름다운 노래처럼 은은히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그이의 생각은 지난날에 대한 감회를 안은채 서서히 현실로 되돌아왔다.

그러자 이곳으로 떠나오실 때부터 줄곧 머리속에 박혀있던 철산봉의 로력영웅인 리종구에 대한 생각에 다시 잠기시였다.

리종구 역시 대형자동차관리에서 주인다운 일솜씨를 발휘하여 큰 공로를 세우고도 오랜 세월 묵묵히 일만 해오는 사람이였다.

조운호가 알려지지 않은 혁명가라면 리종구는 숨은 애국자였다.

아마 이러한 사정이 조운호에 대한 추억에 이어 리종구에 대한 추억을 다시 가지게 했는지도 모른다.

2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종구라는 그 평범한 대형자동차운전사를 처음으로 알게 되신것은 1974년 6월에 함경북도를 찾으시여 어느 한 협의회를 지도하실 때였다.

회의에서는 무산광산에서 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잘하지 못하여 25톤급 대형자동차들의 평균수명이 5년정도밖에 되지 않아 나라의 철강재생산에 영향을 미치고있는 엄중한 실태가 중요하게 논의되고있었다.

《어디 의견들을 말해보시오. 설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도는 어디에 있겠는지...》

수령님께서는 큰 시름에 잠기신듯한 음성으로 나직하게 말씀하시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저마다 설비관리를 개선하지 못한 자책의 아픈 감정을 안고 여러가지 의견들을 내놓았다.

《수령님, 저희들은 지금 무산광산의 낡은 차들을 전부 새로 생산된 대형차들로 바꾸어주자고 합니다. 대형차생산이 늘어난 조건에서 이 문제선분 가능할것 같습니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일하고있는 한 일군이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량미간을 약간 찌프리시며 머리를 가볍게 흔들시였다.

《동무들이 오늘의 이 협의회가 왜 마련되였는지 똑똑히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해동안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린 결과 지금 수많은 공장기업소들이 확장되고 나라의 생산토대와 경제적잠재력이 팽창히 늘어났습니다. 이제 공장관리운영방법과 설비관리수준을 한계단 더 높인다면 우리는 이 70년대에 또 한번 장훈을 부를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비관리에 비록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까닭은 바로 이때문입니다. 그런데 설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것인가. 계속 새 설비를 보충해주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그건 밀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면 평양에 앉아서 지시문이나 내려보내주면 되겠는데 내가 무엇때문에 여기에 왔겠습니까. 나는 우리 혁명앞에 또 한번의 경제적양양기가 도래하고있는 이러한 시각에 우리의 로동계급이 어떤 자세와 어떤 립장으로 설비들을 다루고있는지 바로 이걸 알고싶습니다. 우린 이런 각도에서 문제를 고찰해보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비행기부속품도 깎을수 있는 훌륭한 공무기지를 가지고있는 무산광산에서 대형차의 수명을 5년정도밖에 보장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좋은 룡마도 탈줄 모르면 쓸모가 없습니다. 25톤급 대형자동차의 수명이 왜 5년정도밖에 안되는지... 누가 좀 말해보시오.》

그이께서는 사태의 진상을 속속들이 알아보시기전에는 도저히 마음을 놓을수가 없으시였다.

그런데 누구도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있었다. 회의장은 초조하고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도당책임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의 견해를 조심스럽게 내비치였다.

《대형자동차의 수명이 짧아지는것은 운전사들의 일솜씨와 관련된 문제라고 봅니다. 무산광산에서 제기된 자료를 보면 5년이상 쓰는 대형자동차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88호와 같은 자동차는 10년이상이나 쓰고있습니다.》

《아니 그런 차도 있단말입니까? 그것 참 흥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구니까?》

《리종구라구 재일귀국민인데 자동차를 알뜰히

다루고있습니다.》

《귀국민이라… 그 동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까?》

도당책임비서는 더는 말씀드릴수가 없었다. 리종구에 대해서 그 이상의 깊은 료해가 없었던것이다.

그 일군뿐아니라 무산광산에서 온 책임일군들 까지도 리종구에 대한 내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있는 형편이었다.

수령님께서는 갑자기 조용해진 회의장을 둘러 보시며 연필뒤등으로 연락을 다독이시였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채 앉아있었다.

그이께서는 누군가 시원한 대답을 해주리라 믿으시건만 무거운 침묵만이 계속될뿐이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3일후에 다시 보기로 하고 다른 문제나 봅시다. 그동안 책임비서동무는 무산광산에 내려가서 88호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날밤 수령님께서는 오래도록 정원을 거니시였다.

북방의 여름밤이란 더없이 시원하건만 그이의 심중은 오히려 무겁기만 하시였다.

(설비관리… 설비관리… 어떤 방법으로 대중의 자각을 불러일으킬것인가?)

그이께서는 줄곧 이러한 생각에 잠기시였다. 바야흐로 도래하고있는 새로운 경제적앙양기는 그에 상응한 새로운 대중운동을 요구하고있었다. 그런데 어떠한 대중운동이 가장 합리적인것일까?

그 운동의 형태와 내용, 성격은 과연 무엇일까? 이랬든 저랬든 반드시 대중을 감화시킬수 있는 본보기가 있어야 한다. 본보기가 되자면 응당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인민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혁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 시대대를 특징짓는 인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지난 40년대엔 조운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광복을 갈망하는 전인민적인 감정을 대변해나섰다. 50년대와 60년대에 천리마작업반 운동이 벌어질 때에도 그 운동을 대변하는 수많은 선구자들이 나타났었다. 그렇다면 70년대가 요구하는 인민의 모습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것이다. 이것은 결코 막연한 추리가 아니다. 인민의 의의를 높이 내세우시는 그이께서만이 느끼실수 있는 과학적인 예감이었다.

그이께서는 그다음날 밤에도 잠자리에 드시지 못하신채 정원을 거니시였다.

벌써 이틀째나 계속되는 사색의 밤이었다.

잠시 벗었다가는 무겁게 이어지는 그이의 발걸음소리가 포도를 조용히 울리고있었다.

《수령님, 인젠 주무실 때가…》

부관이 다가서며 말씀드렸다.

《무산에 간 책임비서동무한테선 소식이 없소?》

《네… 아직…》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정원속의 포도를 거니시였다.

아직은 얼굴조차 알수 없는 88호운전사에 대한 소식이 어쩐지 몹시도 기다려지시였다.

대형자동차를 십년이상이나 쓰고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기엔 반드시 높이 찬양해주어야 할 귀중한것이 있을것만 같으시였다. 혹시 그가 오늘의 난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대답을 줄지도 모른다. 어쨌든 주의를 돌리지 않을수 없는 사람인것만은 명백하다.

그런데 일군들이 왜 그를 스쳐버리고있는지 리해할수가 없으시였다. 혹시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일하고있는 그 일군처럼 새 차를 보내주자는 생각에만 매달려있었기때문인가? 일군들의 그러한 견해때문에 88호운전사와 같은 사람들이 왕왕 무시당하고있는것이 몹시도 가슴아프시였다.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에서 살고있으면서도 왜 인민에게 눈길을 돌릴줄 모르는가? 인민을 떠난 사고방식이란 애당초 있을수도 없다. 또 그러한 사고방식이 허용되어서도 안된다.

수령님께서는 무겁게 갈았은 정원의 정적속을 거니시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도당책임비서가 정원등의 어슴푸레한 불빛속에 서있었던것이다.

《아, 현동무요? 언제 왔습니까?》

《방금 도착하는 길입니다. 실은 밤도 깊어서 래일아침에 찾아뵙자고 했는데…》

《오길 잘했습니다. 동무를 기다리던중이었는데… 그래 88호운전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봤습니다. 수령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아주 흥미가 있는 동무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두 아들과 함께 십년전에 받은 낡은 차를 말끔히 수리해서 지금껏 새 차와 같이 다루면서 한번도 고장을 내거나 세워본적이 없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대뜸 무겁고 답답하던 가슴이 탁 트이는것만 같으시였다.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시오. 낡은 차를 가지고 새 차처럼 만들었다는데 더욱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가 왜 처음부터 낡은 차를 가지게 됐는지…우리 저기 의자우에 앉아서 얘기합시다.》

그이께서는 의자우에 앉으시여 일군의 말을 들으시였다.

정원의 나무가지들에서 가벼운 바람소리가 일었다.

《알고보니 그는 일본에 있을 때부터 일본사람이 경영하는 어느 한 택시회사에 고용되어 차를 몰았습니다. 고용살이를 하다나니 기분나쁜 일을 여러번 당했습니다.》

한번은 그가 자동차의 차체에 약간의 흠집을 낸일이 있었는데 회사감독이 제 차가 아니니까 망탕 다룬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떼겠다고 울러맸습니다. 종구동무는 그만한 일에 자기네의 명줄

을 건드리는데 너무도 분하여 그만 감독놈에게 주먹질질을 해대고말았습니다. 그바람에 감옥살이를 하고 회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일본에서 제일 천한 직업인 쓰레기차와 인분차를 모는 하바닥인생으로 굴러떨어지고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온갖 멸시와 천대가 뒤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오물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그를 가까이 접근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국의 세상은 이렇게 그의 인생을 참혹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조국에선 이러한 그에게 대형자동차의 주인이라는 존엄을 안겨주고 단 한번도 써보지 않은 새 차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자장의 한쪽 구석에 서있던 낡은 차를 보더니 그것을 타겠다고 고집해나섰습니다. 인젠 주인이 된 이상 새 차는 될수록 아끼고 낡은 차를 수리해 쓰자는것이 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가 낡은 차를 인계받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두 아들들에게 이젠 지난날처럼 회사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해 일하게 되었다면서 이 차에 바로 자기네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온 하루동안 줄곧 자동차결을 떠날줄 몰랐습니다. 밤에는 자동차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두 아들과 함께 둘러앉아 무슨 말인지 끝없이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파묵한 사람이었는데 그날밤에는...》

도당책임비서는 잠시 말을 끊었다.

정원의 나무가지들에서 일어나던 바람소리가 조용히 찾아들었다.

수령님께서 저기 차유령너머 높다높은 철산봉의 한복판에서 소리없이 타고있었을 그 한점의 모닥불을 눈앞에 그려보시었다.

밤새도록 모닥불가에 두 자식과 함께 앉아있던 그 사람, 불빛이 얼른거리는 그 얼굴엔 세상의 쓴맛 단맛을 다 맛본 흔적이 력력하다. 운명의 희롱을 당하는 사이에 깊어진 주름살이며 원한이 서린 눈동자며 그 모든것이 왜 이리도 선명하게 그려지는것일가.

《종구동무는 자기뿐아니라 두 자식들에게도 대형자동차를 알뜰히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간혹 자식들에게서 대형자동차를 되는데로 관리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는 큰 변이나 난것처럼 자식들을 되게 닦아세우곤했습니다. 언젠가 둘째아들이 쇠돌을 나르다가 자동차의 후사경을 마사먹었었는데 종구동무는 덜된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의 뺨을 사정없이 쳤습니다. 나라에서 준 귀중한 자동차를 망탕 관리했다는거지요.

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대신에 오히려 불이 잔뜩 부어 항변을 들이댔습니다. 이만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되게 군다면 아버지와 더는 같이 일할수 없다면서 차라리 대형자동차를 그만두고 대학이나 가고말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뿐아니라 그의 안해까지도 다 큰 자식에게 손을 댔다고 종구동무를 원망해나섰습니다. 그러자 종구동무는 추상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난날 자기는 회사주인의 비위를 거슬린탓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조국의 은혜를 저버린 자식이야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말입니다.》

도당책임비서의 말은 이렇게 끝났다.

수령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또다시 아까처럼 정원속의 포도를 거니시기 시작했다.

그이께서는 지금 매우 감명깊은 하나의 예술작품을 보고난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거듭되는 사색속에서 찾고찾던 그 귀중한 인민적인 모습이 드디어 수령님의 시야에 비껴들었던것이다.

《내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가 왜 자동차를 십년이상이나 쓰고있는지. 종구동무는 대형자동차의 관리를 자기 운명처럼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활체험을 통해 이처럼 귀중한것을 얻어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주인된 자각을 가진 숨은 애국자입니다. 만세나 부르는 사람이 애국자가 아니라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설비 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자기의 운명과 련결시켜보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며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본보기로 내세워 자기 차를 사랑하고 자기 기대, 자기 설비를 사랑하는 운동을 벌린다면 설비관리에서 큰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시기 우리가 벌려야 할 대중운동입니다. 종구동무는 70년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대중운동의 발기자이며 선구자중의 한사람입니다. 그 동무에게 영웅칭호도 주고 그를 당에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아들이 대학을 지망하는것으로 보아 단순히 아버지와 틀려서 그런것이 아니라 무슨 리상이 있는것 같은데 내가 보증서겠으니 둘째를 대학에 보내주도록 합시다.》

수령님께서 저으기 만족하시여 아까보다 더욱 큰 걸음을 내디디시었다.

새 차를 보내줄것만 생각하는 일꾼들의 견해에 비해보면 리종구의 그 주인다운 마음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인민의 마음이란 이처럼 값진것이다.

문득 가릴치 않았던 소왕청방어전투를 앞두고 마촌의 수수한 농가에 리치백로인과 나란히 누워 잠 못 드시던 그 괴로운 밤이 생각나신다.

적들은 수천명이나 되는 력량으로 소왕청유격근거지를 겹겹이 포위하고 죄어들고있건만 두개 중대의 유격대력량밖에 없으니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수 있단말인가.

수령님께서 이처럼 경각에 이른 유격구의 운명을 놓고 끝없이 모대기시는데 결에 누웠던 리치백로인이 부스럭거리며 일어나 곰팡대를 빼금빼금 빨았다. 온 방안에 구수하면서도 매캐한 담배 연기냄새가 풍겼다.

《대장이 지금 병졸이 모자라 고심하는것 같은데 우선 나부터 병졸로 받아주게. 이 지대엔 나처럼 총을 다룰줄 아는 로인들도 있고 포수들도 있고 독립군출신들도 많네. 그리고 청년사업이요 뭐요 하면서 왔다갔다하는 젊은 패들도 수두룩한데 그들모두를 병졸로 써주게. 유격구의 주인은 수천명이나 되는 우리 백성들이라고 대장이 늘 가르쳐주지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 백성들부터 싸움에 떨쳐나서야지. 총이 없으면 수천명백성들이 유격대와 합심해서 너죽고 나죽고 놈들의 먹다시를 누르며 대들이판을 벌리면 안되겠나?》

수령님께서는 별안간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쿵하는 울림소리를 들으시였다.

한생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낱알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있는 저 수수한 농민의 가슴속에 얼마나 놀라운것이 깃들어있는가.

로인의 말은 결국 전민항전을 의미하는것이였다.

적아간의 역량대비에서 오는 이 엄청난 차이때문에 고민을 겪고있던 수령님께서는 큰 힘을 얻으시였다.

이리하여 유명한 소왕청방어전투는 군대와 인민이 떨쳐나선 전민항전으로 번져 항일무장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남겨놓게 되였다.

지나온 력사의 행성을 돌이켜보며 자신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준 조운호나 마촌의 리치백로인이나 철산봉의 리종구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들이 살아온 력사적시대는 서로 다르지만 혁명과 건설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주인다운 자각과 립장은 어제나 오늘이나 수백개의 저울에 달아보아도 다 꼭 같은것이다.

어떤 철학가들은 인민의 슬기에 대해 요란한 해석을 가하고있지만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슬기란 곧 주인다운 자각이라는 소박한 말로써 표현하고싶으시였다.

주인다운 존재! 바로 이것이 수령님의 심장속에서 살고있는 인민의 모습이였다.

3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종구를 자신의 심중에 더욱 깊이 새겨두시게 된것은 그때로부터 몇해후 당보에 실린 리종구에 대한 기사를 읽으셨을 때였다.

지금도 그 기사와 몇대목만은 생생하게 기억되시였다.

그이께서 우선 반갑게 보신것은 그 기사에 한때 자동차의 후사경을 마사먹은것으로 하여 아버지에게서 된 탕을 당했던 둘째가 그간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철산봉으로 찾아와 아버지와 함께 8호를 타고있다는 사실이 씩여진것이였다.

어제날 부자간에 생겼던 불화는 아버지가 숨은 애국자라는 지위에 올라섬으로써 말끔히 가시여지고말았다.

게다가 자기도 인젠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면서 자동차의 관리를 알뜰히 하고있다는 둘째의 일이 수령님을 더욱 기쁘게 했었다. 마음을 고쳐먹은 자식이 너무도 기특하게 생각되시여 수령님께서는 둘째의 이름이 리준수라는것까지 기억해두실수가 있으시였다.

그 기사에서 제일 인상깊게 기억되는 대목은 리종구의 순박하고 겸손한 심정을 묘사한 부분이였다.

그 대목은 이러했다.

《수령님, 제가 조국에 돌아와서 수령님 덕분에 사람답게 살고있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았습나다. 인젠 가족들도 다 저를 리해해주고 집안이 화목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소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숨은 애국자라는 말씀만은 삼가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동차나 모는 이 평백성이 어떻게 남들이 우려보는 애국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신문과 방송들에서도 절더러 숨은 애국자라고 선전하고있는데 송구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전 다만 주인답게 일해보자고 애를 쓰고있는 대형자동차 운전사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인다운 사람들이란 다가 이런 사람들이다.

수령님께서는 그때 리종구의 그 순박하고 겸손한 심정에 크게 탄복하여 그를 꼭 만나보고싶은 생각을 금할수가 없으시였다. 더우기 자신께서 것처럼 걱정하던 문제를 풀어준 고마운 사람이니 인간적인 도리로 보아도 그와의 상봉을 지체시킬수 없다고 생각하시였다.

하지만 나라일때문에 껍 다망하신 나날을 보내시다나니 리종구를 만나보지 못하신채 20년가까운 세월이 흘러간것이였다.

그러다가 이번에 오래간만에 다시 무산땅을 찾으시게 되였다.

사실 수원들은 삼지연을 떠날 때부터 수령님의 로고가 넘려되어 로정을 무산쪽으로가 아니라 연사쪽으로 빠져서 곧장 경성방향으로 잡았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아시고 무산을 거쳐 돌아가자고 말씀하시였다.

《나도 인젠 나이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올 기회가 자주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되여 언제한번 잊으신적 없으셨던 리종구와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는 뜻깊은 순간이 마련되였다.

(인젠 세월도 많이 흘렀으니 그 사람도 껍 늙었겠는데...)

수령님께서는 깊은 감회에 젖으시였다. 어쩐지 리종구라는 사람이 오랜 지기처럼 생각되시는것

이었다.

인간관계란 결코 오래 사간다고 하여 깊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순간을 사귀어도 정이 깊어지는 때가 있고 전혀 만난 일이 없어도 한생의 지기처럼 생각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것이다.

항일혁명의 나날에 알게 되시였던 손원금이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경우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그도 역시 조운호처럼 혁명의 운명이자 자신의 운명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온갖 어려움을 도맡아 안고 수많은 연길폭탄을 만들어낸 사람들중의 하나였다.

수령님께서 손원금이와 사귀여본 일도 없었고 만나서 통성을 한적도 없었다. 다만 박영순이를 통해 그에 대한 말을 듣고 그와 한번 만나서 정을 나누어보리라 마음두시였었다.

그런데 그후 손원금이 작탄을 만들다가 폭발사고로 두눈을 잃고 대오에서 물러나는바람에 수령님께서 아쉽게도 그를 만나볼수가 없으시였다.

그뒤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손원금의 최후가 참으로 눈물겨웠다.

어쩔수 없이 투쟁대오에서 떨어졌으나 그는 여전히 혁명을 자기의 운명처럼 생각하고있었다.

그래서 공산당이 다 망했다고 적들이 악선전을 할 때마다 그는 약장사처럼 바이올린을 둘러메고 연길과 룡정의 거리와 골목들을 찾아다니며 놈들의 허위선전에 속지 말라, **김일성** 장군께서는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세 세상을 세우기 위해 지금 평창히 많은 유격대를 이끌고 남북만 도처에서 적들을 죽치고있다고 열변을 토하곤했었다.

그 대가로 그는 경찰에 체포되어 화형당했다.

25살의 젊은 나이였던 손원금의 최후는 바로 이러했다.

수령님께서 지금도 약장사처럼 바이올린을 둘러메고 지평이로 땅을 더듬으며 간도땅의 가는 곳마다에서 혁명의 승리를 선전했다는 손원금을 생각하면 가슴속이 저릿해짐을 금할수가 없으시였다.

그는 두눈을 잃고도 스스로 적후에서 수많은 공작원들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엄청난 선전공작을 진행하여 대중을 각성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이였다.

그래서 수령님의 기억속에 남아 오랜지기처럼 생각되는 사람으로 되였다.

이런 점에서 리종구와 조금도 다름이 없으나 손원금은 영영 만나볼수 없는 사람으로 되었고 리종구는 이제 당장 만나보게 될 현실속의 사람이다.

수령님께서 분명 순박하고 겸손해보일 리종구의 모습을 또한번 머리속에 그려보시였다.

이곳으로 오는 동안 벌써 여러번 머리속에 비낀 모습이였으나 무산땅이 가까와지자 더욱 그리

워지고있는 그 모습, 잊을수 없는 사연때문인지 혹은 오랜 세월을 걸쳐 깊어진 추억때문인지 이에게는 눈곱이 저릿하게 젖어드시였다.

(나이가 든 탓인지 참 눈물이 해피졌거든...)

그이께서는 철산봉을 찾아가는 이 길우에 귀중한 추억들이 연줄연줄 떠오르는것으로 보아 어떤지 이번 길이 매우 의의가 깊은, 인상적인것으로 되리라는 생각이 드시였다. 더우기 버르고 버르던 첫 상봉이니 어차피 극적인 감정은 피할수 없을것만 같은 예감도 드시였다.

상봉의 시각은 이렇게 가까와오고있었다.

4

무엇인가 즐겁고 만족스러운 일이 생길것만 같은 예감을 안으시고 무산땅에 이르신 수령님께서 먼저 광산지배인을 만나시였다.

얼굴이 약간 갱뽀하게 생길사한 지배인은 수령님께서 철산봉에 오르시려는 의향이심을 알자 년로하신 몸으로는 철산봉에 절대로 못오르신다고 만류해나섰다.

《지배인동무, 내가 이 무산바닥에서 광산의 실태나 알아보자구 찾아온줄 압니까? 나라를 위해 한생 주인답게 일하고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우에 있는데 내가 안찾아가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여 그이께서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80대이지만 백전로장의 기상을 떨치며 북방의 장엄한 봉우리에 서시였다.

팔손에 이른 오늘에도 쉬임없이 인민을 찾으시는 수령님의 그 숭고한 로고앞에서 사람들은 태양과도 같이 빛나는 거룩한 인간상을 우러러보고 있었다.

그이께서는 전망대에 이르시여 철산봉지구의 대자연을 관망하시였다.

저 멀리 서남쪽 하늘가엔 하얀 눈을 뒤집어쓴 듯한 배개봉이 밝은 해빛속에 굴절되고 찬란하게 채색되어 전설의 산악처럼 신기하게 솟아있었다.

동쪽으로는 백두산줄기의 여파인듯싶은 우중충하고 자유분방한 산발들이 겹겹이 늘어섰는데 이 변화무쌍한 산악지대 한복판에 돌레가 무려 백여리에 달한다는 자랑스러운 대 채굴장이 들어앉아있었다. 거대한 다락발 모양으로 된 채굴장의 도처에선 이 땅의 무진장한 보화를 자랑하듯이 들쭉날쭉한 쇠돌바위들이 청동의 성곽처럼 번쩍거리고있었다.

《참 굉장합니다. 나는 이 광산을 볼 때마다 힘이 나고 마음이 거뜨해지고 이 자연처럼 통이 커집니다. 우린 확실히 그동안 큰 걸음을 내디디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어떤지 감개무량해지시며 지나온

력사의 행정을 돌이켜보게 되시었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한생을 묵묵히 바쳤던가.

《참 리종구동무가 지금 잘 있습니까?》

수령님께서는 지배인을 향해 물으시고는 그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 이제 지배인의 입에선 자신께서 무척 바라시던 반가운 소식이 전해질것만 같으시었다.

그런데 지배인은 뜻밖에도 난감한 처지에 빠진 사람처럼 눈길을 떨어뜨리고 가벼운 한숨을 내쉬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불안한 예감을 느끼시었다. 매우 좋지 못한 일이 생겼음을 명백히 간파하시면서도 믿을수가 없어 거듭 물으시었다.

《왜 말을 못합니까? 리종구동무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지배인은 무겁게 머리를 들며 간신히 대답을 올렸다.

《두달전에 병으로 보름동안 앓다가 그만...》

지배인은 목이 짹 잠기는듯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동무는 수령님한테서 분에 넘치는 신임을 받구두 다 갚지 못한채 간다구 눈물이 글썽해지며 말했습니다.》

산정을 쓰다듬던 바람소리가 조용히 찾아들고 하늘 끝까지 뻗어간 산발들엔 어느덧 뿌연 기운이 서리였다.

수령님께서는 전망대의 합각지붕이 던져주는 그늘밑을 조용히 거니시었다.

그토록 바라시던 즐거운 예감은 뜻밖의 비보로 바뀌어지고 마음속에 그리시던 상봉은 절벽에서 튀어나는 비말처럼 헛되이 부서지고말았다. 남은것이란 가슴을 텅 비게 하는 허무감뿐이었다. 조운호나 손원금의 비보를 들었을 때처럼...

그렇게도 주인답고 그렇게도 애국적인 지성을 바쳐온 사람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그렇게도 총총히 가버렸다는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시었다.

《종구동무가 보름동안이나 앓고있었다는데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이께서는 갑자기 목이 막히시어 말쑥을 계속할수가 없으시었다. 가슴에 맺혔던 슬픔이 불시에 동을 터치는것만 같은 강렬한 느낌이 드시였던것이다.

(이럴줄 알았더라면 내 그를 평양에 불러서라도 만나볼걸...)

그이께서는 좀처럼 달랠수 없는 마음을 안으시고 그늘밑을 걷고 또 걸으시었다. 누군가 그이의 몸가까이에 의자를 갖다놓았으나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오직 자신께서 안으신 슬픔속에만 오래오래 잠기

고싶으시었다.

지나온 한생을 돌이켜보면 자신께서 걸음이 늦어지는 이러한 상봉을 드문히 당해보곤하시었다.

조운호와도 그러했고 손원금이와도 그러했다. 이번엔 기어이 만나서 쌓였던 회포도 나누고 못다주신 정도 기울여주시려고 했건만 찾아가면 벌써 저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결코 한둘이 아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상봉이 아니라 지금처럼 가슴아픈 미련을 남기게 되는 《류다른 상봉》을 자주 겪게 되는것이였다. 이것이 과연 나라일을 돌보고있다는 피치 못할 사정때문이란말인가? 몹시도 안타까운 일이였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으시었다.

(참, 안됐어. 말 한마디 따뜻이 해주지 못한채 그 귀중한 사람을 떠나보냈으니... 하다못해 그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더라면...)

수령님께서는 고르롭지 못한 무거운 숨소리를 내시었다. 세월이 흘러도 쉽사리 지워버릴수 없는 아픔을 당한것만 같아 도저히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으시었다. 과연 심중에 남은 이 많은 미련을 어떻게 하면 다 풀수 있을것인가.

인제는 유가족들을 찾아가는 길밖에 없으시었다. 그들을 만나 슬픔을 함께 나누며 가슴에 쌓였던 정을 기울이기전에는 발길이 떨어질것 같지 않으시었다.

수령님께서는 펍 침중해지신 음성으로 종구동무의 아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물으시었다.

지배인이 맏아들은 부문당비서사업을 하고 둘째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냥 대형자동차를 타고있다고 말씀드렸다.

《준수가 아버지의 대를 잇는단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준수동무는 인젠 자기가 아버지 대신 <애차운동>의 선구자가 될 결심을 품고 지금 대형자동차관리에서 뛰어난 모범을 보이고있습니다. 준수동무뿐만아니라 운광대안의 모든 운전사들속에서도 <애차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지금 대형자동차의 수명이 74년도에 비해 2배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

그이께서는 별안간 가슴이 뭉클해지시었다. 숨은 애국자는 비록 갓지만 그가 지퍼올린 《애차운동》의 불길은 더 세차게 타오른다는 사실이 충격적인 뜨거움을 자아냈던것이다.

《둘째가 참 기특한데 좀 만나봐야 하겠습니까.》

《수령님, 인젠 시간도 펍 지나고 저물녘이 가까와오는데 래일로 미루시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지배인이 간절하게 말씀드리었다.

《아닙니다. 그럴수 없습니다. 내 한걸음 늦어져 종구동무를 만나지 못했는데 그 아들과의 상봉

까지 미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이 저물더라도 꼭 만나 봐야 하겠습니까.》

그이의 절절한 말솜에 지배인은 눈을 습벅거렸다.

얼마후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채굴계단을 누비며 어느 한 굴착기현장을 향해 달리고있었다.

채굴장에 저녁노을이 깃들기 시작했다.

(참 일이 묘하게 됐는걸... 이 인상깊은 저물녘에 종구동무의 둘째를 만나다니...)

수령님께서는 쇠돌바위들이 언뜻언뜻 스쳐지나는 차창밖을 내다보시었다.

저녁노을은 샅시에 철산봉일대를 신비롭고 아름다운 색채로 물들였다. 해빛에 번쩍거리던 쇠돌바위들이 하나의 거대한 붉은 광원처럼 정열적으로 타고있었다.

굴착기현장에서는 노을을 받아 유난히도 아름다와보이는 여러대의 대형자동차들이 쇠돌을 싣느라고 붐비고있었다. 첫눈에 보아도 자동차들을 알뜰히 관리했다는것이 느껴졌다.

수령님께서는 일매지게 말쑥해보이는 자동차들에서 리종구의 숨결을 듣는것만 같아 또 한번 가슴이 저릿해지시었다.

(저속에 준수가 있을테지...)

수령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며 차에서 내리시자 쇠돌을 싣고있던 대형자동차의 운전대문이 벌컥 열리며 한 청년이 땅바닥으로 훌쩍 뛰어내리더니 이쪽으로 걸어질듯 달려오고있었다.

첫순간에 벌써 리종구의 둘째라는 짐작이 드시었다.

준수는 불타는 노을속을 헤집으며 점점 가까이 지고있었다. 사람이 아니라 불덩이가 구울러오고있었다.

별로 크지 않은 중키, 약간 빼여질사한 이마, 꼬리가 치째진듯한 눈길, 발을사한 하관... 리종구도 틀림없이 저렇게 생겼을것이다. 아니 저것은 틀림없이 리종구가 살아서 뛰어오는것이다. 그 혼자만이 아니었다. 리종구를 련상시키던 조운호며 리치백로인이며 손원금이며 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노을속에서 우줄우줄 나타나 함께 손저어 부르며 달음질쳐오는것만 같았다.

수령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과 상봉하는듯한 강렬한 감정을 느끼시며 급히 달려온 준수를 가슴에 꼭 안으시었다.

《준수! 내... 한결을 닳았구만.》

그이의 음성은 갈리시었다.

《수령님!》

불처럼 달아오른 준수의 온 몸이 그이의 품속에서 사정없이 떨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준수를 품어안은 두팔에 더욱 힘을

주시었다. 어쩐지 리종구를 비롯한 그 모든 영령들에게 못다준 정을 이제야 기울이게 된것만 같은 극히 행복스럽고 느긋한 감정을 금할수가 없으시었다. 아니 그들모두를 한품에 안고있는것만 같으시었다. 비로소 그들과의 상봉이 이루어진것이다.

하지만 수령님께 있어서 이러한 류다른 상봉은 오늘 처음으로 체험되신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이의 심중에선 자나깨나 때없이 이러한 상봉이 벌어지며 매양 각별한 인상을 자아내곤한다. 그 까닭은 어느 한 순간에도 인민과의 작별을 모르는 수령님이시기때문이다. 비록 오래전에 그이의 결을 떠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령님의 심장속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별처럼 새겨져있는 것이다.

리종구나 조운호나 리치백이나 손원금은 다 그러한 별들중의 하나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자신의 가슴속에 새겨졌던 그 별들이 꺼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시였고 그들과 여전히 한피줄이 피어 소곤소곤 속삭이고있는 자신을 보시었다.

(정말 잊을수 없는 사람들이지.)

노을은 아까보다 더욱 진해졌다.

아득히 흘러간 옛날, 밀영을 떠나가던 조운호를 정열적으로 축복해주던 그 노을, 자연은 지금도 이 땅에 주인이라는 흔적을 남기고 떠나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보내주고있지 않는가.

정말 잊을수 없는 저물녘이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품속에서 여전히 떨고있는 준수의 어깨를 쓸어만지시며 수원들을 향해 말씀하시었다.

《내 비록 한결을 닳았지만 나는 지금 준수를 통해 저 한점의 노을과 같은 리종구들을 보고있습니다. 그들의 닳때문에 오늘 이 땅이 이처럼 아름다와지지 않았습니까.》

인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훌륭합니다. 력사는 응당 인민에게 불멸의 기념탑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인민에 대한 축복! 이것은 내 한생의 의지입니다.》

그이께서는 승엄한 표정을 지으시었다.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목소리는 주변의 쇠돌바위들에 부딪치며 장엄한 메아리를 일으켰다.

이 땅, 이 하늘이 온통 거대한 진폭을 안고 세차게 박동하는듯했다.

수원들은 경건하게 수령님을 우러르고있었다.

력사는 이렇듯 인민적인 수령을 영원히 기억할것이다.

우리 민족의 큰 집

정동찬

웁고싶은 마음
이랑이랑에 묻으며
온 한해 땅을 걸구고
길이 모시고싶은 마음
동트는 하늘에 노을로 없으며
또하루 뜨는 해를 마주
새벽창을 연다

그리움에 겨워
이 한해를 어떻게 넘어왔던가
그 사랑 생생해
이 한해를 어떻게 넘겨왔던가

어디서
때아닌 계절에 진달래 폼다면
달려가고싶었노라
거기 가면
아버이수령님 계시지 않을가

어디서
쌍무지개 비낀 하늘에
백로 한쌍 감돌더라고
거기 가면
또다시 뽕게 되지 않을가

아버이수령님 자주 가시던
백두산정에도
이 마음 세워보고
청산리 들길이며 강선의 구내길
아니 가본곳 없이
이 마음 달리고달리며

꿈속에도 생시처럼
부르고불렀노라
잃은 어머니를 찾는 아이처럼
찾고찾았노라
아 그리운 수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방방곡곡에서 터져나는
이 간절함의 소리소리를
한몸에 안으시고
금수산
금수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아버이의 생전의 모습
그대로 뵈울수 있게
해빛으로 위은 태양의 집을 주셨으니
이제는 마음이 놓여
이 마음 진정하며
낮이나 밤이나 찾아갈 우리의 집
수령님께서 늘 기다리시는 우리의 집

달려가면
농사시험포전에서 허리를 펴실가
너희들 어푸러질라
가볍게 손을 저어주시며
이랑을 타고 나오실듯

문을 열면
주체사상로작관 창가에서
조용히
집필하시던 붓을 멈추실가
한권의 저작을 골라드시고
접어놓은 이 대목 잘 보라 하시며
우리들을 가까이 불러주실듯

기쁜 날 즐거운 날
설이면 설날대로
한해 선물 꾸려안고
온 나라 아들딸들 서둘러 길을 떠나
한집에 다 모일 큰집
아버이를 모시고 따르며
예대로 조선의 가풍 세워갈 큰 집

이 집 창가에
자자손손 그리움을 꽃으로 피워드리고
이 집 돌레에
자자손손 충효의 성을 쌓으며 살리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 세상 끝까지 넓은 문을 열어주시어
우리 인민과 인류를 다 안아들이는 집
주체의 최고성지에 높이 솟아 빛을 내는
김일성민족의 큰 집이며
여기서
도덕과 의리의 넘은 뿌리깊어지고
룡성과 번영의 숲은 무성하리라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위대한 수령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에 삼가 드린다-

김만영

붓을 들며

사람들은 말할수 있으리
수령님 서거 1돐에
서사시를 쓴 이 시인이
이해의 7월에는
무슨 이야기를 또 하겠는가고...

허나 사람들여
내 오늘 다시 붓을 들었노라
말하지 않고서는 못견딜 그 걱정
쓰지 않고서는 못견딜 그 뜨거움이
이 가슴을 울리나니

인민이여, 조국이여
그 어떤 의무와 사명감이 아닌
량심의 붓
시인의 무기를
내 오늘 또다시 높이 들었노라

1

평양이여
내 사는 평양이여
그대 푸른 하늘가에
오늘도 그리움에 젖는
이 마음을 싣노라
설레는 가로수잎새아래로
발걸음을 옮기며
내 뜨거운 생각을 엮노라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만 봐도
못견디게 못견디게
우리 수령님이 그리워지는
평양

하많은 추억을 불러내고
하많은 뜨거움을 불러내는
이 창문
이 거리

언뜻 지나가는 승용차만 보아도
수령님 타신 차는 아닌지
눈여겨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이 마음
문득 광장의 주석단만 바라보아도
수령님의 영상이 어려와
더더욱 사무치는 이 그리움

수령님의 다정한 그 발자욱소리
오늘도 그대로 간직하고있는 평양
수령님의 후더운 그 숨결
오늘도 그대로 안고있는 평양

여기 평양에서 탄생하시여
여기 평양에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사시였고
오늘도 평양에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우리 수령님

아, 한생토록
그리도 평양을 사랑하신분이여서
그리도 평양에 정을 부어오신분이여서
우리 장군님
평양에서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게 하셨는가

흘렀구나
그리움속에 해가 뜨고
그리움속에 달은 바뀌어
어느덧 두해가 흘러갔구나

그래도 못잊는 그 시간
오늘도 우리 가슴속에
번개치고 우뢰울며
피눈물로 맺힌
그 새벽 2시

잊지 못해라
잊을수 없어라
위대한 심장이
너무도 조용히 고동을 멈춘
평양시간
그 슬픔의 2시

그 시간에
우리 안식의 깊은 잠에 들어있던
그 시간에
오직 한분만이
지구보다 더 무겁게 실린
그 슬픔을 한가슴에 다 안고계셨나니
그이는 우리의 령도자 **김정일**동지!

인민이여, 허락하시라
조국이여, 수락하시라
이 서사시의 굵이굵이
높고낮은 고개고개에
장군님을 이 시인이 자욱자욱 따라서는것을
장군님의 심중 그 갈피갈피에
내 감히 들어서는것을

어이하랴, 어이하랴
7월을 이야기하는 이 서사시에
자꾸만 그이의 모습이 비끼고
시행마다 글줄마다
그이의 발걸음소리
그이의 숨결소리가 들려오나니

하늘땅이 무너지는
그 새벽 2시
어쩌면 어쩌면 크나큰 그 심장이
그리도 갑자기 고통을 멈추었던 말인가

방금전까지만 해도
부강조국의 설계도를 짚어가시던
그 지시봉을 옆에 놓으신채
한장한장 번쳐가시던 그 문건을
책상우에 그대로 펼쳐놓으신채
집무실에서 고통을 멈추시었던 말인가

홀로 안으신 그 아픔, 그 절통함을
차마 인민에게 알릴수 없어
알리지 않으면 안될 그 비보를
전하지 못하시던 우리 장군님

눈물에 젖은 붓을 들어
조국과 인민이 당한 그 아픔
혁명과 인류 앞에 쌓으신 그 위업을
부고에 담아 쓰시던 그이
쓰다가는 멈추시고
멈췄다가는 다시 쓰시기를 그 얼마

붓을 드신채
하염없이
하염없이

집무실의 수령님 초상화를
바라보시던 그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어느덧 두해가 지난 오늘에도
자신의 마음을
언제나 그 시간속에 세워두시고
그 시간을 안고사시는 그이

내 따라서노라
삼가 옷깃을 여미고 따라서노라
동부와 서부
이 나라 높고낮은 산발들
천리 먼 전선을 시찰하시고
평양으로 돌아오시던 우리 장군님을

피어나는 안개에 잠겨
끝없는 고요에 실렸던
올해 이른봄날의 그 새벽
조용히 이슬이 맺혀내리는 차창너머
평양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안광은 물기에 젖으셨어라

푸름푸름 밝아오는 저 언덕길
불빛이 비치는 저만치에
아 수령님 타신 차가 달렸으면
얼마나 좋으랴

예전날처럼
수령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온밤 달리고달려도
피로한줄 모르시던 그 나날들처럼...

차는 얼마나 달렸는지
차창에 비끼는 려명
간절한 간절한 그리움속에
문득 안겨오는
평양역 시계탑이여

이 땅에 흘러간 잊지 못할 그 사연들
이 땅에 굶이친 내 조국의 그 나날들을
다 새기고
다 말해주는
력사의 증견자-평양역 시계탑

현지지도의 먼길을 가셨다가도
평양역이 가까와지면
가슴울렁이게 된다고
밤이 깊었지만
거리를 한바퀴 돌아보자고 하시던

수령님의 그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수령님 피로하실 때마다 찾아지던
그 기침소리도 들으시는듯

여기서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조국의 부강을 안아오시며
머나먼 현지도의 그 길
머나먼 외국방문의 그 길
끝없이 가고 또 오신 수령님을
맞고 바래우신 상봉과 작별은
그 얼마나 많았던가

못잊을 작별과 상봉
그 세월속에
가꾸어진 인민의 행복이여
꽃피난 우리 민족의 룡성번영이여

그 나날들을 이제는 홀로
더듬어보셔야 하는
그 아픔을 시계탑에 새기시며
함께 걸어오신 머나먼 혁명의 그 길을
추억하시는 우리 장군님

우리 쉽게 하지 말자
아픔이란 말
우리 가벼이 하지 말자
슬픔이란 말
그이 안으신 상실의 그 아픔
천만분의 하나에도 비길수 있으랴

이 시각
그이의 심중을 따라
그 새벽 2시에
시인의 이 마음을 세우나니

말하라 평양역 시계여
그때 너는
왜 이 나라 인민을 깨우지 못했느냐
종을 울려
종을 때려
산천을 깨우고
이 땅을 흔들어 흔들어 깨우지 못했느냐

우리들이 알면
잠에서 깨여날가봐
인민들이 알면
깊이 든 잠에서 깨여날가봐
밤도 깊은 밤
우리 어버이 그리도 고요히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였는가

한평생 낮에 밤을 이어
현지도의 길 이어가시던 그 나날
단잠에 든 인민들이 깨여날가봐
마을길을 에돌아가시던 그 사랑
아 그 사랑을 고스란히 다 안으신채
심장의 박동을 멈추신 우리 수령님

한생을 그렇게 사시고
생의 마지막순간
가시는 시간조차
인민을 위해 바치시었으니

수령님이시여
아버이이시여
인민을 위해서는 마지막맥박까지
그리도 험하니 바치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왜 그리도 모질으셨습니까

수령님은 정녕
생시에도
우리 어버이
가시면서도
우리 어버이

아, 조국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으로 불태우신
그 시간
평양시간

말해보자 사람들이여
그 시간의 뜨거움과 귀중함을
다는 몰랐던 우리
그리움에 젖는 7월의 이 언덕에서
한가슴에 다 안아보나니

나는 보노라
벼짚으로 지붕을 엮고
가난으로 매질한 벽에
리보익 할머니 것처럼 부러워하던
종치는 시계 하나
걸려있지 않는 만경대초가집

이 집에서 탄생하신
우리 수령님
기어이 나라를 찾을
성스런 명세를 심장의 태엽으로 감아안고
사립문을 나서실 때
평양시간이여, 조국의 시간이여

너는 더 높이 고동치기 시작하지 않았던가

인민의 운명
조국의 운명을 안은 그 가슴에
력사의 그 시간을 새기며
폭풍을 맞받아
결연히 혁명의 길에 나서시었나니

기적소리마저 목메여울던 평양
설움에 울던 평양을 안고가시였다가
기쁨에 웃는 평양을 안고오신분
그이는 33살의 젊은 장군
평양이 낳은 위대한 아들
만경대의 장손 **김일성** 동지!

정녕 시계없는
가난한 집에서 탄생하시여
이 땅에 영원무궁한
조국의 시간을 주신
우리 수령님

인민들의 가슴에 새 삶을 꽃피워주며
번영하는 내 나라의 년륜을 새겨온
평양시간, 조국의 시간은
인민을 위한 수령님의 심장의 맥박
조국을 위한 수령님의 심장의 고동소리

수령님의 심장에서
높이 고동치며 시작되고
력사를 이끌며 굽이쳐온 그 시간은
해빛을 뿌려
별빛을 뿌려
이 땅에 광명을 준 시간
인민에게 열을 준 시간
조국에 활력을 준 시간

그런 시간이기예
우리 수령님 인민을 위해
마지막숨결까지 바치여 더웁힌
그런 시간이기예
위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춘 그 새벽을
영생의 새벽으로 이어가시는
아, 우리 장군님

그래서
수령님 걸으셨던 전선길
그 길에 사랑을 새기시며
병사들을 찾아
천리 먼길도 한달음에 달려가시였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장군님
자신의 로고는 다 잊으시고
이 땅우에 불멸의 자욱을
쉬임없이 찍어가시나니

평양, 그 이름을 부르면
오늘도 수령님의 환하신 모습이
하늘가득 떠올라라
평양, 이 거리를 걸으면
지금도 수령님의 심장의 고동소리
이 가슴에 이 강산에 울리여라

아, 력사를 이끌고
혁명을 이끌고
순간도 멈춤없이
순간도 거침없이
도도히 굽이쳐흐르는 수도의 시간이어!
영원불멸할 내 조국의 시간이어!

2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수령님 생각
자욱자욱
이 마음에 새겨보며
문득 발걸음 멈추고 바라보니
눈앞에 다가서는
오, 개선문

이 땅우에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신
수령님의 위업을
만대에 길이 전하러는
우리 인민의 그 념원을 담아
우리 장군님 세우신
력사의 개선문

력사가 처음 보는 그 위업이어서
인류가 처음 보는 그 업적이어서
친애하는 그이
세상에 다시없는 개선문을 세워
이 처마아래로
위대한 력사가 흐르게 하셨나니

사람들이여
내 또다시 따라서노라
평양역을 떠나
휘넓은 **김일성**광장을 거쳐
여기 개선문으로 들어서는
그이의 승용차를

지구의 방방곡곡을 려권없이 편답하는
시인의 자유분방한 사색과 환상
시인의 특권으로가 아니라
참으로 고결한 그이께
스스로 이 심장이 매혹되어
승용차에서 내리시는
그이를 우러러 섰나니

푸르른 술향기
만발한 살구꽃향기 한데 어울려
모란봉을 감돌아흐르는 개선문거리
이 거리를 지나실 때면
평양은 꽃의 평양이라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수령님의 그 미소
경건한 마음으로 안아보시는 장군님

그 마음으로 기둥을 쓰다듬으며
그 마음으로 눈길을 들어
구절구절
읽어보시는가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

때마침 울리는 방송개시음악소리
뜻깊은 평양의 새벽
맑고 청신한 대기를 흔들며
창공에 차흐르던 고요를 흔들며
무변광대한 우주에
조선의 새날을 알리는 송가여

생각깊이 들으시며
생각깊이 걸음을 옮기시며
우리 장군님
나직이 하시는 그 말씀
-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우리가 개시음악으로 올리도록 한것은
수령님의 위엄으로 보아
천만번 당연한 일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로 흘러갔구나
평양시간은
이 개선문 처마아래로
세월을 이끌고 흘러갔구나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

끝없이 끝없이 울려퍼지는

이 장엄한 선물을 신고
이 개선문으로
조국의 시간은 흘러갔구나

대륙과 대륙의 봄바람이
이 개선문아래로 지나갔어라
대양과 대양의 물결이
이 개선문으로 흘러갔어라

끝없이 늘어선 연도환영의 물결
나도 평양시민의 한사람으로
그 연도에 서서
얼마나 궁지에 넘쳐 우러렸던가

꽃물결을 헤쳐가는 무개차우에서
평양에 찾아오는 친선의 사절
다른 나라 수반들을 곁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답례를 보내시던
수령님의 환하신 그 안광 그 미소

아, 그 미소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우리 수령님
제일이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우리 가슴 높뛰게 했던가

그 궁지
그 자랑이
우리들을 세상앞에
떴떴이 머리들고 살게 했노라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존엄을 지니고
력사의 한복판에
가슴 활짝 펴고 나서게 했노라

개선문으로 흐르는
그 장엄한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사람들은 말했더라
수령님을 찾아서 세계가 줄을 섰다고
수령님과 개선문은 그리도 잘 어울린다고
수령님 계시여
평양은 세계에 높이 솟아 빛난다고

한껏 궁지에 넘치는 가슴으로
내 말하노니 평양이여
사랑하는 내 조국의 수도여
여기 평양에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시기 위해
우리 장군님
지새운 낮과 밤은 그 얼마였더냐

수령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는
가슴저린 새해의 그 아침
뜻밖에 울려 퍼진 귀에 익은 그 음성
신년사를 하시는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마음은
친애하는 그이께로 향했어라

아, 슬픔을 안고 새해를 맞는
인민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여
친히 수록해 두었던
수령님의 그 영상, 그 음성을
방송과 텔레비존으로
다시 내보내게 하신
우리의 **김정일**동지

수척해지신 모습을 넘려하는 일군들에게
내가 잠을 덜 자고
내가 휴식을 덜해야
우리 수령님 영생하신다고
모든 심혈을 다 바쳐가시던 그 나날

그 나날속에
금수산기념궁전이
세상을 경탄시키며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러지고
영원히 변색을 모르는
수령님의 태양상이 밝게 빛났어라

그 나날속에
수령님 생전에 구상하신
또하나의 금릉동굴과 청류다리
향산도로와 룡문대굴
금강산발전소의 100리물길들이 새로 열리고
당창건기념탑이 웅장하게 솟아났어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그 불멸의 선언이
력사의 메아리로 울려 퍼졌고
공산주의혁명가의 숭고한 도덕의리에
세계가 경탄했어라

온 나라의 축복속에
행복동일로 태어나는 세쌍둥이들
백뚝상을 받아안은 로인들
안겨주는 사랑에 목메여 흘리는
뜨거운 그 눈물에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비껴있었거니

허나 우리 장군님께서
어떤분이신가를

세상은 다 모르리
그이의 그 깊은 심중을
다는 알지 못하리

정원의 전나무잎새들도
창가에서 고요를 지켜드리고
전등의 불빛도 내리기 저어하는
집무실의 깊은 밤

겹쌍인 일감을 놓고
자신도 모르게 문득
수령님의 집무실을 찾아
전화기를 드신적은
열번이었던가 스무번이었던가

수령님을 찾으시는 장군님께
아무 말씀도 못드리느
교환수처너
목메여 흐느끼는 소리...

그제서야 장군님
무너져내리는 역장 다시금 누르시며
오히려 교환수처너를 위로하시나니
-안됐소. 교환수동무
정말 안됐소!-

아, 조국이며 인민이며
기쁘면 기쁨을 놓고
어려우면 어려움을 놓고
수령님을 그리워하시는
장군님의 심중이야
우리 더 말해서 무엇하리

우리 알기나 했던가
한평생 인민을 찾으시고도
80고령의 년세에
지평이를 짊고서라도
인민을 찾아가야 한대시며
수령님 불편하신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줄

내가 지평이를 짊는것을
인민들이 보면 가슴아파한다고
인민들가까이에 와서는
그 지평이마저 승용차에 두고오신줄
우리 알고 수령님을 뵈웠던가
지평이를 짊어가며 가꾸어주시는 행복인줄
우리 알기나 하고 받아안았던가

허나
오직 한분 장군님만이

그 지평이사연을 알고계셨으니
장군님 가슴속에 지금도 내려가지 않는
그 지평이
손잡이에 수령님의 더운 땀이 젖어있는
그 지평이...

더 말해서 무엇하리
향산도로가 완공된 그날
수령님 생각이 더욱더 북받쳐
선뜻 도로우에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던 그이

한평생 언제나 험한 길 걸어오신
수령님께 편한 길을 드리자고
자신이 직접 발기하시고 건설했는데
수령님을 모시지 못하니
가슴이 저리다고
아, 절절히 말씀하실 때
그 심중의 한끝에서 솟구치는 눈물은
천리만리로 흘러갔어라

흘러갔어라
수령님을 잊지 못하는
인민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여
수령님 탄생하신 4월 15일을
민족최대의 영원한 명절
인류의 태양절로 빛내시려는 그 높은 뜻
천리로 만리로 퍼져갔어라

그 뜻을 새기며
참된 의리의 인간
승고한 도덕의 인간
그 누구도 오를수 없는
아름다운 인간미의 아득한 메부리에
거연히 서계시는 그이를 우러러
이 시인도 두 무릎을 꿇었나니

이런분이시기에
우리 장군님은 바로 이런분이시기에
아버이수령님 생전에
또 한분의 장군을 잘 만났다고
내가 후계자복이 있다고
늘 만족해하지 않으셨던가

잊을수 없어라
현지지도의 먼길에서 돌아오신 그 밤
김정일 동지가 나없는 그사이
평양에 몇쟁이건물을 또 일떠세웠다고
김정일 동지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마음에 든다고
좀더 가까이 가보자 하시며

차머리를 돌려 광복거리로 향하시던
우리 수령님

정녕 세월이 새겨두고
오늘도 전하고있어라
김일성 경기장은
김정일 동지가
생일날도 쉬지 않고 건설한것이라고
경기장만 보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오고가실 때면 조용히 차창을 내리우고
오래도록 바라보시던
아, 우리 수령님의 모습이여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시던 그날
김정일 동지가 평양에 있으니
이제는 이렇게
마음놓고 외국방문도 하게 되었다고
평양이 이제야 자기 주인을 만났다고
그리도 기뻐하셨거니

오, 그때문에
머나먼 길에서
조국에 돌아오신 수령님
맨처음 친애하는 그이 손을 잡으시고
환히 웃으실 때
위대한 두분의 태양의 웃음으로
평양은 얼마나 밝게 빛났더냐
조국은 얼마나 환희에 넘쳤더냐

온 나라 강산이 기쁨으로 넘치고
감격으로 벅차던 그 시각들이 모이고모여
우리 인민이 행운으로 받아안은
복된 생활이 흘렀어라
조국의 시간이 흘렀어라

우리의 이 시간은
그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도
그 어떤 세기의 길이로도
재여볼수도 헤아려볼수도 없는
승고한 도덕관으로 흐르는 시간
승고한 의리관으로 흐르는 시간

아, 이 시간이
김정일 동지 높이 세워주신
여기 개선문으로 흘러흘러
김일성 시대를 이루었다
김일성 세기를 이루었다
김일성 력사를 이루었다

이 마음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내 눈앞엔 펼쳐지누나
하늘땅 공간을 붉게 물들이며 타오르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의 새벽노을이

언제나 반기시며
해빛을 뿌리시던
수령님의 환하신 그 미소인가
만민을 품안으시던
뜨거운 그 숨결인가

문덕거리에서 바라보니
더 높고
더 웅장하고
더 위엄있고 숭엄한
금수산기념궁전

사람들이여
무심히 걷지 마시라
저 광장에 깔린 흰 화강석 한장한장
유개도로의 그 한치한치를
무심히 오르지 마시라
조용히 미끄러지는 궤도전차와 흐름선우에

사시장철 수령님이 그리워
찾아오는 인민들이
비 한방울 눈 한송이라도 맞으면
우리 수령님 가슴아파하신다고
그리도 세심히 헤아려주시었나니

아, 장군님의 뜨거운 그 사랑, 그 정이
성지의 하늘을 떠받들었다
성지의 밝은 빛발
성지의 푸른 숲과 맑은 공기로 차넘쳤다

말해다오 말해다오
금수산기념궁전의 새벽노을이여
그날에 꺼졌던 새벽노을이
어떻게 다시 피어올랐던가
그날 그 새벽에 벗었던 시간이
어떻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던가

그날 그 새벽
위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추었을 때
평양시간이여
그 박동으로 뛰던 너도
함께 고동을 멈추었다

더는 순간도 흐르지 않고
시계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더는 낮도 밤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다

더는
오, 더는
모란봉술술의 우짖는 새소리도
대동강물결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구의 자전도 공전도
정지되었던 그 시각
평양시간이여, 조국의 시간이여
너 정녕 흐름을 멈추었던가
이 세상 모든것을 눈물로 부둥켜안고
너 정녕 그자리에 굳어져버렸던가

아니
아니다
아니여라
오, 절대로 절대로-

그날
그 시각
그 결에는
하늘땅이 무너지는 그 슬픔을
억척같이 떠받들고 일어서
억세고 튼튼한
위대한 심장이 있었나니

위대한 심장의 위대한 박동을 이은
강철의 심장
김정일 동지의 심장이
높이높이 고동치고있었다!

그 심장
그 박동으로
한해가 흘러간 그날
평양이여, 조국이여, 그대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받아안았던가

쌍이고쌍이는 그리움이
궁전광장에 차흐르던
1995년 7월 8일
아침 9시
우리 장군님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 개관식에 나오시였다

한해전 그날과 다름없이
검은옷 그 차림으로

늘어진 붉은 천앞에서
가위를 천천히 드시며
수령님 계시는 궁전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시던 그이

이날 이때까지
이 땅의 거창한 창조물들을
자신께서 다 맡아 건설하시고
가위만은
준공의 가위만은
수령님께 드리시던 그이
아, 그 가위를
여기서 이렇게 드실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어찌 상상이나 하실 수 있었으랴

한평생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시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크나큰 사업을 안고계셨으니
그것이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으시여
그것이 마음에 걸리시여
기념궁전에서 눈길을 못떼시는가

허나 그 무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가위를
천근만근의 무게로 드시고
승엄히 드리운 붉은 천을
한금한금 끊으실 때
아, 사람들이여
우리는 진정 무엇을 보았던가

거룩한 그 손길로
그이는 붉은 천을 끊으시여
멈춰섰던 역사의 흐름을 다시 이으시었다
영생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시었다

우리는 보았어라
그날 그 시각
자신의 심장에
백년천년 영원히 고동칠
의리의 태엽
도덕의 태엽
충효의 태엽을 감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우리는 보았어라
인민이 바라고
세계가 기다리는
그 추대를 미루시고
3년간 상복을 벗을 수 없다고 하시며
조상전래의 관습우에
이 세상 처음

공산주의자의 숭고한 도덕의리관을 창조하신
위대한 인간의 그 모습을

마음으로서야
심중으로서야
30년이 가고
3백년 3천년이 가고간들
마음의 그 상복을 벗으시라

인류앞에
력사앞에
수령님의 영생을 장엄히 선언하시고
금수산기념궁전
그 대리석계단을 오르시는
그이의 그 발자욱소리에서
우리는 들었어라

수령님의 심장파 함께 밟았던
평양시간의 태엽이 풀리는 소리
조국의 시간이 흐르는 소리
오, 위대한 수령의 력사가
줄기차게 굽이치는 소리

수령님을 잃어 비어있던
조선로동당 당원중 그 1번자리에
그이 세워주신
일심단결의 거창한 대오가
도도히 노도치는 소리

하기에 우리 장군님
그 시간을 이어가시며
일년을 하루같이
년년을 하루같이
마음 떠나실 줄 모르시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거니

천리전선길에서 돌아오시는 이 새벽에도
그이는
평양역을 지나
개선문을 지나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먼저 향하시여라

차창너머로
새벽노을을 바라보시는 장군님
그 노을에서
수령님의 인자하신 그 모습을 보시는듯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신 그이
힘드시면 힘드시여
수령님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어온
그 인민을 찾으시여 나라일을 의논하시고

피로우시면 피로우시여
수령님 한평생 선생으로 내세워준
그 인민을 찾으시여 마음을 나누시고

그 마음 그 진정으로
수령님 밟으셨던
이 나라 밭이랑들과 구내길을 다 밟으시고
수령님 오르셨던
이 나라 고지들을 다 오르시고
수령님 만나셨던
이 나라 인민들을 다 만나시려
춘하추동 밤과 낮을 이어가시거니

그 길에서
수령님이 더 그립고
그 길에서
수령님을 더 뵈옵고싶어하시던 그이
이번 전선천리길에는
오래동안 계시었으니
그 그리움 오죽하시랴

사람들이여
이제는 이 시인도
여기서 걸음을 멈추노라
아침노을이 승엄히 감싸안은
금수산기념궁전을 바라보며
내 멈춰서노라

인민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두분의 위대한 수령
조국과 혁명과 세계를 놓고
이 아침에도
얼마나 많은 사업을 또 의논하시랴

위대하고 승엄한 그 상봉에
내 발걸음소리
내 숨소리가
조금이나마 방해를 끼칠가보아
경건히 경건히
그이를 바래워드리노라

이제 잠시후면
장군님은 수령님을 뵈오리
깊은밤 꿈속에서도 뵈오던
수령님을 만나뵈오리

만나시여 만나시여
수령님과 말씀하시리
수령님 다녀가신 전선천리를
다녀오신 그 이야기
수령님을 그리워하는 전사들을 만나

그들과 기념사진도 찍고
야전식사도 함께 하신 그 이야기

장군님의 음성과 함께
수령님의 다정한 음성도 들리리
추운 겨울날 위험이 드리운
최전연길에 수고가 많았다고
왜 이번엔 그리도 오래 걸렸는가
그간 앓지는 앓았는가

다심한 그 사랑 그 념려
수령님의 그 말씀이 들리리
김정일 동지가 진두에 서있기에
우리 혁명은 끄떡없다고
우리 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한다고

가슴에 젖어오는 그 말씀
금수산기념궁전을 울려
주체의 최고성지를 울려
온 나라 온 강산에 울려퍼지리니

세계는 알고있어라
장군님 이어가시는
위대한 이 시간속에서
우리 수령님
천년만년 영생하심을

그 영생은
사상의 영생
령도의 영생
품모의 영생

인민을 위하고
조국을 위하고
인류를 위하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사업
위대한 활동
위대한 력사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나니

평양이여 그대는
세기의 영광을 지녔구나
주체의 최고성지
태양의 집이 솟아있는곳
민족의 대통운을 열어놓은
백두산 3대장군의 명성이 빛나는곳

원썩들의 아성을 무너뜨릴
최후의 전략전술이 세워지고
승리의 작전도에

멸적의 화살표가 그어지는 최고사령부
혁명의 수뇌부가 있는곳

오, 여기 평양에서
우리 수령님 생전의 모습으로
태양의 집에 계신다
여기 평양에서
우리 수령님 영생하신다!
여기 평양에서
우리 수령님의 심장은 영원히 고동친다!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인민의 자주위업을 위한
정의의 목소리
력사를 이끌고 지구를 움직이는
수령님의 음성이 울려 퍼진다

이어지노라, 평양시간은
평양수호를 위하여
영원한 조국의 시간을 위하여
우리 장군님
최전연고지와 고지들

먼 북방의 초소들을 시찰하신
불멸의 그 자욱으로 이어지노라
인민의 운명을 안고 꺼질줄 모르는
당중앙의 불빛으로 이어지노라

그렇다, 평양시간은
시대를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력사
거룩한 그 자욱으로 이어가시는
영원한 **김정일**동지의 력사
영원한 영원한 태양의 력사

감사를 드리노라
인민의 우리 아버지
수령님의 심장이
영원히 높이 고동치게 하여준
우리 당에 인민은 감사를 드리노라
김정일동지께 조국은 영광을 드리노라

천년세월이 흐르고
백천번 세대가 바뀌어도
태어나고 태어나는 우리의 후대들
끝없는 행복을 노래하며
무궁한 평양시간속에 살리니

아, **김정일**동지
위대한 심장의 그 박동으로

인민을 이끌어
조국을 이끌어
사회주의승리를 이끌어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평양시간은 영원히 흐르리라!

이 붓을 놓으며

사람들이여
이 시의 마지막장을 덮으며
내 잠시 붓을 놓노라
허나 어찌하랴
가슴속에 그냥 뜨거운
의리의 그 세계...
도덕의 그 세계...

서사시의 굵이 굵이
높고낮은 고개고개에서
그이를 따라서던 이 마음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들어가는
그이를 우러르며 서있는 이 마음

하여 내 이제 또 뵈옵게 되리
수령님을 뵈고 나오시는 그이를
언제나 마음속으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며
하루일을 시작하시는 그이를

그러면 내 그이를
또다시 따라서리라
어머니 손잡고 따르는 아이
순간도 떨어져 못사는
아이의 그 마음이 되여
크고작은 모든 사연 다 아뢰며
그이의 걸음걸음을 따라서리라

그이의 발자욱소리에서
수령님의 발자욱소리를 듣고
그이의 음성에서
수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수령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부강조국의 창창한 래일을 인민은 보나니

아, 이 세상 모든것에 끝이 있어도
우리 수령님에 대한 노래
우리 장군님에 대한 노래는 끝이 없어
내 정녕 이 붓을 놓을수 없노라
내 마음의 하얀 원고지우에서
진리의 이 붓을 놓을수 없노라

(1996. 6. 28)

세월이 전해가는 7월의 이야기

또다시 7월이 왔다.

년년이 오고갔건만 이제는 우리 인민 누구나가
신념의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는 달이다.

7월에 들면 인민들의 마음과 마음은 더더욱 어
버이수령님결로 달려간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
없는 로고를 바치시며 7월의 하루하루를 력사에
불멸할 나날로 새겨가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영
상이 인민의 심장마다에 짝 차있고 끓어오르는
경도의 마음이 이 나라에 넘쳐난다.

7월은 범상한 세월의 흐름에 묻히던 그런 달이
아니다. 온 세상 인민이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더욱 가슴불태우는 7월.

마음속에 7월이 깊이 자리잡고있어 이 첫 아침
도 사람들은 어버이수령님께로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
수산기념궁전으로 사람들의 물결은 이어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나는 지금까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인민들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나
의 한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쳐온 한생
이었으며 인민들과 함께 투쟁해온 한생이었습
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함
께 있을것입니다.》**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것을 자신의 가장 큰 행
복으로 여기신 우리 수령님이시기에 지금도 금수
산기념궁전에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며 인민을
안아주고계신다.

수령님의 품을 찾아가는 사람들, 나이와 직업
도 다르고 남녀로소의 구분은 있어도 한집안식술
이 되어 달려간다.

이 행렬속에 우리도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깃든 전동차는 우리
를 싣고 경쾌한 동음을 가볍게 남기며 금수산기
념궁전으로 미끄러져가고있다.

금수산지구의 아침이 유달리 깊은 뜻을 안고
우리를 마중온다.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다투어 피여있고 활엽
수, 침엽수가 무성한 숲을 펼쳐 청신한 아침공기
가 서려도는데 금방 퍼져오르는 해살을 받으며
떠도는 숲속의 운무가 백두밀림의 안개를 편상케
한다.

녹진한 장마철의 날씨는 어디에 갔는가.

왜 그렇지 않으랴.

하늘이 내신 우리 수령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이 행성을 더욱 빛내이신 그런 달이 아닌가.

바로 이 달에 자연은 천변만화의 신비한 현상
으로 우리 수령님의 위인상을 전해주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무수한 날과 달의 흐름으로 년륜을 감던 세월
도 이 달에 들어서면 삼가 해를 보내기 저어한
다.

력사의 그날들이 또다시 우리 가슴속에 미쳐온
다.

되새겨볼수록 가슴뜨거워지는 1994년 7월 6일
의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날도 인민들의 생활향상
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바쳐가시였다.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며 절절히 말씀하시던 수령님의 그 음성
이 지금도 귀전에 울려와 눈물이 앞을 가린다.

우리 인민에게 안겨줄 최대의 선물은 조국통일
이라고 늘 말씀하시며 분열된 조국을 두고 마음
을 놓지 못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다음날인
7월 7일에는 조국통일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
을 주시였고 통일된 조국의 영원한 기념비가 될
친필존함까지 남겨주시였다.

정녕 우리 수령님 위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추
시는 그 시각까지 인민행렬차에서 내리지 않으셨
으니 회세에 처음 맞이한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
를 어찌 세월이 모시지 않고 하늘땅이 칭송하지
않을수 있으랴.

세월은 강산이 몸부림치고 산천초목이 비분에
떨던 그 나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쌍으신 불멸의 업적도 만대에 전해가고있다.

눈물과 곡성으로 날이 이어지던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타고계신 인민행렬차.

어느날 자정이 깊은 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눈물의 바다를
이룬 만수대언덕을 찾으시였다.

절통함에 잠겨 쓰러져있는 인민들의 정상이 무
엇보다 심중에 미쳐오시였던것이다.

용기를 잃은 인민들이 걱정되시여 자신께서 당
하시느 비통한 심정을 애써 누르시며 비내리는
그밤 그이께서는 인민들과 함께 계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부르며

찾는 인민들의 모습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눈물을 흘리며 숙연히 계단을 오르는 인민들, 동상앞에 이르러서는 그대로 대돌을 그어안고 오열을 터뜨리며 목놓아 우는 인민들을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연방 눈굽을 짚어내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의 동상앞에 드릴 화환이 비에 젖을세라 옷을 벗어 비를 막고있는 청년대학생들의 모습이 띄어지실 때는 뜨거운것을 삼키기도 하시였다.

인민들과 한마음, 하나의 숨결이 되시여 수령님을 우러르며 한밤을 지새우신 그이께서는 그 밤에 목격하신 일을 두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기회에 말씀하시였다.

-그밤에 격해지는 마음은 금할수 없었다고, 정녕 우리 인민은 자기 수령을 흠모하고 받드는 사상감정과 정신도덕적품도가 세계 그 어느 나라인민들과도 대비할수 없이 고상한 인민이라고, 인민들은 수령복을 타고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인민복을 타고났다고-

아버이품에 안겨 사람만을 받아온 인민이기에 그 품을 떠날수 없어 목메여 수령님을 찾았던 거기에서 인민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자신께서 누리는 인민복으로 불러주시는것이였다.

모든것을 인민과 이어놓으시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인민들속에서 느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을 못잊어하는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려주시였다.

자애로운 수령님의 영상을 태양의 모습으로 안겨주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불은기로 더 높이 휘날려주시였으며 인민들의 심장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는 신념의 구호가 고동치게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저기, 아버지수령님께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에도 인민의 간절한 소원이 고이 담긴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효의 마음이 그대로 뜨겁게 깃들어있다.

기념궁전이 세워지던 때 감동없이 들을수 없는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울려준다.

처음에 기념궁전을 세우는 위치문제를 놓고 각이한 논의가 있었다.

단군릉가까이에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인민대학습당이나 만경대지구에 건설하자는 안도 제기되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금수산의 사당으로 그 위치를 정해주시였다.

우리 인민뿐만아니라 인류가 아버지수령님의 존귀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그이의 존함을 부를 때마다 그려보던 유서깊은곳.

우리 수령님과 인민들사이에 있었던 사랑과 의리의 이야기가 끝없이 태어나던곳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처럼 인민들의 뜨거운 념원을 깊이 헤아리고 계시였기에 태양의 영원한 성지로 빛나게 된것이다.

기념궁전정원의 사시절 푸른 소나무들과 가을이 오면 알알이 무르익는 감나무들, 우거진 포도넝쿨에서는 우리 수령님의 인자하고 따뜻한 체취를 그대로 느낄수 있거니,

인민들이 수령님의 넓은 품에 한시라도 빨리 안기게 하시려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전동차까지 마련해주시였다.

인민을 한품에 안고 인민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가시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계시기에 인민은 오늘도 수령님 한품속에 안겨있고 수령님의 사랑은 영원한 이 나라의 봄빛이 되어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아버지수령님께서 지니셨던 **《이민위천》**의 사상은 더욱더 빛나고 인민행렬차는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을 누벼가고있어라.

아버이수령님께서 농민들과 하셨던 약속이 연백벌의 풍년들길에 꽃피났고 다박술 전호가에도 바다바람 세찬 녀성해안포종대의 병실에도 아버이의 자취는 그대로 새겨져갔으니...

하여 오늘에 누리는 행복이 너무도 커 인민은 더더욱 수령님을 못잊는것이 아닌가.

우리 가는 길에서 노래가 울려온다.

한평생 인민 위해 바친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
꿈결에도 안고 사는 마음
오늘도 그 품을 찾네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본사기자 로창일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반만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이시였으며 위인이 지닐수 있는 모든 품모와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위인중의 위인이 시였습니다.》

김정일

수기

위대한 인간미

김 정

어느 선배작가가 말했던가. 인생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것처럼 절정도 있다고. 그 작가는 인생을 하나의 다부작 장편소설같은것이라고 하면서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를 알려면 절정을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가 그런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나의 생활에는 절정이라고 할만한것이 없었다.

그때로부터 10여년의 세월이 흐른후 나는 동료작가들과 함께 백두산기슭의 한 명승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접견을 받는 크나큰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그날 초대소현관밖에까지 나오셔서 친히 우리를 맞아주시었다.

좌우랑쪽 다 0.5도 채 되지 못하는 최악의 근시였지만 내 눈은 수령님의 환하신 얼굴과 기록영화화면들에 자주 나오는 낮익은 희청색여름옷을 인차 알아보았다. 나는 발이 어디에 닿는지도 모르고 수령님앞으로 총총히 다가갔다. 온몸이 그대로 구름에 실려 하늘중천으로 둥둥 떠가는것 같은 무아경이었다고 할가.

《아버이수령님, 저는 지금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나의 첫 인사말이었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인사인가. 난생 처음 뵈옵는 수령님께 만수축원의 인사를 올리지는 못할망정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것 같다는것은 도대체 무슨 가을 뼈꾸기같은 소리인가. 그날의 그 광경을 지켜본 수원들은 다들 이런 생각을 하며 혀를 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오히려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하늘로는 왜 날아가겠소. 땅도 있는데. 하고 너그럽게 그 인사를 받아주시었다. 지구의 중력이 통채로 몸에 실리는것 같은 감을 주는 수령님의 묵직한 손길, 그 손길이 어깨에 와닿는 순간은 내 한생의 절정이라고 한수 있는 순간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그날 우리를 위해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오찬도 차려주시였으며 우리의 생활과 창작활동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었다. 그것은 수령님께서 나와 나의 동료들의 인생에 해주신 영광과 행복의 메부리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어서들 들라고 거듭 음식을 권하시였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수령님의 따뜻한 인간미에 매혹되어 오찬석상의 초보적인 례의도 잇고 그이의 인자한 모습만 점도록 우러러보았다. 언제 다시 이처럼 몸가까이에서 수령님의 모습을 다시 뵈울가 하는 위구심, 그이의 거룩한 영상을 망막 속에 영원히 새겨두고싶은 강렬한 욕망과 모대김, 수령님의 일거일동과 일언일구, 그이의 얼굴에 찍혀진 미세한 반점까지도 죄다 낱알이 기억하고 새겨두어야 한다는 작가적충동과 사명감은 나로 하여금 좀처럼 수저를 들수 없게 하였다.

단편소설 《사냥의 아침》에 반영된 아래와 같은 수령님의 초상묘사는 그때 내 눈에 반사되었던 그이의 영상을 기초로 하여 형상한것이다.

《수십년세월의 만고풍상으로 거칠어진 백전로장의 얼굴이다. 철색으로 번들거리는 저 얼굴에는 무슨 반점이 저리도 많을가. 그리고 살결은 왜 저다지도 터슬터슬할가. 그 무수한 반점들은 그이께서 한평생 짊어지고 오신 고난과 역경의 표식이나 아닌지, 터슬터슬한 저 살결은 그이께서 풍찬로숙으로 타고넘으신 수천수만갈래의 산야와 강하의 그림자는 아닌지, 살빛을 철색으로 만든것은 폭양과 폭연, 만주대륙의 황토먼지일지도 모른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비범한 인간미로써 우리 모두를 자석처럼 끌어당기시였다. 하나의 동작, 한마디의 말씀, 한번의 눈짓에도 인간사랑, 인민중시의 해빛으로 풍요하고 아름다운 인덕의 락원을 가꾸시는 그이의 후더운 정이 흘러넘쳤다.

우리 수령님은 참으로 소탈하시고 인자하시고 대범하신 분이시였다.

수령님의 그 거룩한 위인상앞에서 자신을 한알갱이의 모래나 한개의 조약돌과 같이 미미한 존재로 여기며 손전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던 나는 오찬시간이 얼마쯤 흐르게 되자 가슴속에 쌓이고

쌓인 만단사연을 모조리 터쳐놓지 않고서는 좀처럼 견딜수 없는 이상야릇한 격정에 휩싸였다.

동료작가들도 똑같은 심정이였을것이다. 우리는 제가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수령님께 감사

도 드리고 결의도 다지었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떠듬거리는 소리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문학예술부문을 령도하신 때로부터 작가예술인대오가 얼마나 훌륭하게 혁명화되었는가를 실례를 들어가며 말씀드리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아무런 억양도, 고조장단도 없이 장황하게 이어지는 우리들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김정일** 동지의 건강을 위해, 작가들의 건강을 위해 잔을 들자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 것처럼 격동적인 말씀으로 호응해주실 때 고맙고 황감하던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알수 없다.

이듬해에도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았다.

그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오찬에 앞서 **《사향가》**를 부르시었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작가들과의 담화로 해서 심기가 대단히 좋으시었다.

80고령의 수령님께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작가들에 대한 최대의 신임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었다. 그리고 끝없는 걱정과 감동, 흥분과 환희속에서 연회장에 울리는 **《사향가》**의 노래소리를 경청하였다. 광막한 백두밀림이 의사당건물에 고스란히 날아와 내려앉고 밀영의 이빨나무, 분비나무들의 상수리에 걸려있던 달빛이 수령님의 머리우에 옮겨와 향일대전의 그날처럼 부드럽게 흐르는것 같은 순간이었다.

천하대적을 공포에 떨게 하던 우뢰같은 그 목소리, 그러나 두근은 고향과 조국을 그리실 때면 울분과 향수로 떨리던 다감한 그 목소리, 한번 울리면 천하도 움직이고 두번 울리면 백년속적의 심장까지도 흔들여놓는 수령님의 그 목소리가 노래로 되어 장내에 흐르는 순간 나는 전류에라도 감전된 사람처럼 갑자기 몸과 마음을 웅송그리며 송구스럽게 그이를 바라보았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모두다 수령님의 아들들이다. 아들들이 노래를 불러드리기도전에 수령님께서 먼저 노래를 불러주시다니... 이 무슨 불효막급한 일인가. 약속도 신호도 없었지만 우리는 다같이 아버지수령님을 따라 **《사향가》**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절을 다 부르고는 일제히 입을 다물어버리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준귀한 음성속에 잡음을 섞으면 안된다는 작가적인 감각과 공민적인 레절이 발동되었다고 할가. 접견이 끝난후 소감을 나누었더니 다들 그런 심정이였다고 고백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무슨 책임자만 되어도 오락회장에서 점잔을 빼며 노래를 잘 부르려 하지 않고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그날 직급도 년세도

다 무시하고 노래를 부르시었다. 그 광경이 바로 오늘날 기록영화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와 **《계승》**에 고착된 역사적인 화폭들이다.

나는 수령님의 숭고한 그 모습에서 이 세상 그 어떤 위인이나 성인군자들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최상의 인간미를 보았다.

이상의 세부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인간미를 보여주는 몇개의 소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수령님의 인간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끝이 없을것이다.

사상의 천재, 령도의 거장, 창조와 건설의 영재 이기전에 태양같이 열렬한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미의 화신, 이것이 바로 내가 본 우리 수령님의 모습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생전에 이 세상 그 어떤 위인도 지닐수 없었던 전설적인 인간미로써 이 땅에서 참다운 인덕의 본보기를 창조하시였고 우리 나라를 위대한 인덕의 조국으로 건설해놓으시었다. 야성이 리성을 폭탄으로 짓부시고 비인간적인것이 인간적인것을 돈으로 사정없이 깔아뭉개고있는 수난많은 이 행성에서 인덕으로 빛나온 우리 나라는 만민이 의지하고 동경하는 유일한 등불이며 오아시스이다. 수령님의 인덕은 이 세계에서 사멸되여가는 인간성을 구원할수 있는 무한대의 원동력이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발현되고있는 무수한 공산주의적미거는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원동력을 밀천으로 하는 공산주의적인간미의 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계속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지 두툐이 되는 7월을 맞고보니 우리의 자애로운 스승이시며 인민의 아버지로서의 그이의 인간미를 더 격찬할수 없는 자신이 한스름게 생각된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비록 서거하셨으나 그이의 위대한 생애는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아버지수령님의 생애를 영원애로 이어가고계시는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이시다.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가 **김정일** 장군님에 의해 훌륭하게 계승발전되고있는것처럼 수령님의 인간미 역시 그이에 의해 이 땅우에 아름답게 만발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인간미는 인간미의 극치로서 만민의 경탄과 숭배심을 자아내고있다.

인덕이 약동하고 인간미가 살아있는 나라는 붕괴되지도 사멸되지도 않는다.

우리 나라를 공산주의적미덕의 화원으로 가꾸어주신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위대한 인간미와 인간성, 인덕에 삼가 감사를 드린다.

《군로신일》

최봉무

수필의 제목을 사전의 한자로 된 성구를 그대로 단다는것은 주체성이 부족한 일종의 현상이라고 이룰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군로신일》(君勞臣逸)이라는 성구를 제목으로 옮겨놓고 이 글을 쓰지 않을수 없다. 한것은 이 성구가 우리 수령님과 맺어진 남다른 사연이 있을뿐아니라 수령님의 한생이 이 성구와 신통히도 일치하기때문이다.

원래 어원적으로 보면 조상들은 《군로신일》이라는 말보다 《신로군일》이라는 말을 먼저 써왔다. 《신로군일》이란 신하들은 일하고 왕은 편안히 논다는 뜻인데 그것을 거꾸로 표기하여 《군로신일》이라고 하면 왕은 일하고 신하들은 편안히 논다는 뜻으로 될것이다.

동서고금 어느 력사의 갈피에도 진심으로 《군로신일》을 한 임금은 없다. 있다면 어진 정사를 폄하하거나 옳은것을 찬양하고 그른것을 타매했다는 임금, 인민이 마련한 국재로 가난한 몇몇 백성에게 선심을 썼다는 임금의 소행이 기록되어있을뿐이다.

나는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만고풍상을 다 겪으시다가 언제 한번 편히 쉬시지 못하고 가신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을 돌이켜볼 때마다 중국의 리극농이 한 말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생각한다. 리극농은 참말로 예민한 사람이다. 포착력이 빠르고 정확한 그의 천성적인 기질에는 실수가 없었다. 그는 유명한 《서안사변》시기에도 활동한 오랜 일군이였다.

리극농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한 3년간 우리 나라에 나와있었다. 그때 그는 우리 간부들에 대하여 많이 료해하고있었던것 같다.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이 다 그러했지만 특히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밤잠 한번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일하시였다. 정전담판의 기간만 보아도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죄다 결론을 주어야 하시는 수령님께서서는 매일 새벽 3시, 4시까지 밤을 꼬박 밝히시였다.

리극농은 정전담판중국측주석대표였으므로 이것을 직접 목격할수 있었다. 그는 거기에서 실로 커다란 감동과 충격을 받은 모양이였다. 평시에 말이 적고 자기 감정을 좀처럼 로출시키지 않는 그였지만 수령님을 모시고 사업하면서 체험한 자기 소감에 대해서는 물어두지 못하였다.

리극농이 조국으로 귀국하는 날 그 소감을 감성록에 남기였다. 그때 그는 중국소설에 《신로군

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선에서는 그와 반대로 《군로신일》이라고 하였다. 그는 《군로신일》이라는 이 한마디의 성구에 조선에 나와있으면서 보고 느낀바를 다 담았다. 리극농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새벽까지 일하시였지만 당시 그의 밑에서 일하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놀고있는것을 보고 《군로신일》이라고 하였던것이다.

이 얼마나 적중하고 신통한 표현인가.

나는 리극농이 참으로 훌륭한 말을 남기였다고 생각한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운 소감을 한마디의 성구로 금강석과 같이 정화시켜 표현하였다. 그가 남긴 한마디의 말, 《군로신일》은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의 전부가 담긴 금언중의 금언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한생에 바치신 로고에 대해서는 아이, 어른 할것없이 누구나 다 잘 알고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짧은 수필에서 구태여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그의 생신날과 휴식날만 한두가지 더듬어 보려 한다.

실로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조국과 민족,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곡절많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생신날도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였고 휴식일도 마음편히 쉬신적이 없으시였다.

리극농이 말한것처럼 조국해방전쟁기간에 단 하루도 쉬시지 못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이 끝난후 첫 생신날인 1954년 4월 15일에도 협동벌에서 보내시였다.

많은 일군들이 이제는 전쟁도 승리했고 앞으로 전후복구건설의 무거운 위업을 걸머지고 나가셔야 하겠는데 부디 오늘날은 휴식해주시것을 절절하게 간청하였다.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자신은 벌에 나가 시원한 봄바람을 맞으며 지내는것이 더 큰 휴식이라고 하시며 중화군의 한 농촌을 찾으시였다.

이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들바람에 물결치는 푸르른 보리밭 한가운데 서시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휘황한 미래를 그려보시며 농민들과 같이 협동조합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 농촌의 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오래도록 이야기하시였다.

1993년 신년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의 병문안을 하시고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신 날도 탄생 여든한돛이 되는 4월 15일이였다.

아버지수령님에게는 생신날뿐아니라 한생의 일

요일도 모두 불면불휴의 로동일이였다. 20여성상 장백의 눈보라를 헤치며 조국광복을 이룩하시고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길을 밝히시여 새 조국 건설에로 우리 인민을 불러일으킨 력사적인 개선 연설을 하신 1945년 10월의 그날도 일요일이였고 이른아침 솟을길을 밟으시며 평원군 원화협동 조합을 찾으셨던 1957년 1월의 그날도 일요일이였으며 며칠간만이라도 휴식을 드리자는 당중앙 위원회 정치국회의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아직 산간 지대농민들의 생활이 편이지 못한것을 보고 내가 어찌 편안히 쉴수 있겠는가, 백날을천들 무슨 휴식이 되겠는가 하시며 대소한의 추위마저 마다하지 않으시고 서흥군 당현마을을 찾아주신 1968년 1월의 그날도 일요일이였다.

우리들은 두해전 1994년 6월 19일을 잊을수 없다. 사람들은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날이 휴식일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폭양이 쏟아지는 그날도 어버이수령님께서 80고령의 몸으로 휴식도 미루시고 온천군 금당벌을 찾으시여 무더운 하루를 보내시였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일요일인 7월 3일까지 집무실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쉬시지 못하시였다.

생각할수록, 세월이 갈수록 가슴이 터져온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렇듯 평생에 어느 하루도 휴식없이 혁명과 건설에 바치신 군로의 덕에 우리 일군들과 인민들은 얼마나 근심걱정없이 살아왔던가. 정녕 우리 수령님의 한생은 《군로신일》의 한생이다.

《군로신일》!

40여년전에 리극농이 한 이 말을 수령님 계시지 않는 오늘에 돌이켜보니 더더욱 후회는 비길

데 없고 나자신을 물론 모두가 죄인처럼 생각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아픈 교훈과 결심이 뼈저리게 갈마든다.

나는 얼마전에 어느 한 일군에게서 리극농이 귀국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으로 사업하면서 우리 수령님의 로고를 너무 잘 알기에 수령님께서 중국을 방문하실 때마다 조금이라도 휴식을 보장해드리자고 무진 애를 썼다는 말을 듣고 조선사람으로서, 수령님의 제자, 전사로서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이제 천백번 후회하고 자책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오늘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따라 붉은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의 길을 역세게 걸어가고있다.

우리에게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무분별한 제재와 앞길에 막아선 난국을 기어이 타개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임무가 놓여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력사적임무를 다 하려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헤아릴수 없는 로고와 깃들어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일을 더 많이 해서 장군님의 로고를 덜어드려야 한다. 이것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모시는 길이며 우리의 사업이 《신로군일》(臣勞君逸)이 되게 하는 길이다.

나는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싶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는데서 《신로군일》이라는 성구를 순간도 잊지 말자고...

그이께서는 영생하신다

뿌르나 찬드라 샤르마

김일성 그이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조선의 번영을 위하여 한평생 바쳐오신
조선의 아버지
조선의 충실한 아들

김일성 그이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자주적인 나라로, 락원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수령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김일성 그이는
사회주의의 불멸의 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강철의 의지를 지니신
세계사회주의의 수령

김일성 그이는
사랑과 은덕을 베푸시는
세계에 높이 솟은 태양
모든 사람들 기쁨에 넘쳐
그이만을 믿고 사는
조선의 운명

그이께서는 영생하시리라

김일성 동지께서
천년만년 영생하시리라

(필자는 네 팔시인임)

기념사진촬영은 계속된다 외 1 편

최창근

당창건 경축행사에
대표로 참가한 갯장아바이
돌아오기 바쁘게 소문논 이야기
광산마을에 전설로 새겨졌네

-어버이수령님 만나뵈웠소
수령님께서 대표들을 불러주셨소
한사람 한사람 다 만나주시고
한사람 한사람 인사를 다 받아주셨소

언제면 다시 만나뵈올가
금수산기념궁전 계단을 내리니
오를 때보다 더 눈물이 솟는데
그 심중 다 아시는 장군님
수령님 모시고
기념사진 찍도록 배려해주셨소

아무렴 어린하실라구
우리 당의 창건자 우리 당의 령도자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신
기념사진촬영이 없다면야
그 무슨 당창건절이겠소

영광의 촬영대에 나서는
장군님의 안광에도
대표들의 얼굴에도
눈물 어린 송엄함이 력력한데
오직 한분 수령님만 웃으시었소

우리모두 품안으신 태양상이
머리우에서 밝게 웃으시었소

동지가 많으시여 벗들이 많으시여
기념사진이 많으신 우리 수령님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한평생 인민들을 찾으시여
기쁜 날중의 하루라고
추억의 기념사진 많이도 남기시더니

못다 찍으신 사진 있으시여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시는듯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에서
예나 다름없이
수령님 우릴 기다려주시었소

잊지 마시오 여러분네들
10월의 그날
영생하시는 수령님 높이 모시고
기념사진촬영이 계속되고있음을...

갯장아바이의 그 말이
광산마을에 전설로 퍼졌네
어버이수령님 그리는 광부들의 심장속에
우리 장군님
10월의 기념사진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을 안겨주셨네

감자꽃 필무렵

7월이라 감자꽃 필무렵이면
꽃이 보고싶어 감자꽃이 보고싶어
우리 수령님 해마다 이맘때
량강땅에 오시나니

몸소 삼을 드시고
부식토층을 헤쳐보시며
이 땅이 욕심난다고
감자농사에 제격이라고
백무고원을 해종일 걸으시던 그날로부터

꽃만 보아도
풍요한 가을이 보인다고
감자포기 헤쳐보시며
황수원등판을 못떠나시던 그날로부터

수십년세월
7월의 그 복더위를
7월의 그 장마비를
오히려 락으로 삼으시고
감자꽃 피는 천만이랑을
다 밝아보시던 뜨거운 자욱

감자꽃을 보면
김정숙동무 생각이 난다고
감자꽃을 보면
화전막의 감자맛이 생각난다고

우리 수령님
허리에 손길 없으시고
이윽도록 바라보시는
회고많은 꽃이어
각별한 사랑주는 꽃이어

백두등관 푸르른 산자락
무슨 꽃인들 아니 피랴만
감자꽃이 만발해야 백무고원이라시며
보라빛 꽃바다를
수령님 그토록 잊지 못하시나니

고산지대 인민들 생각에
평생 인연 맺으시고
피는 철 아니 잊으시는 꽃
필무렵에 약속하신듯 찾아주시는 꽃
-량강땅에서는 감자가 곡식의 왕입니다
녹말을 옥백미와 바꾸어 먹읍시다

아 하늘가에서 내려오는 그 음성
7월의 메아리는 오늘도 뜨거운데
개운성덕우에 황수원 등판에
만풍의 꽃바다 펼쳐놓고

가사

승리의 기상이 강산에 넘친다

에헤이 내 나라 강산에 온 나라 강산에
승리의 기상이 넘친다
장군님 찾으신 천리방선에
감격의 파도가 인다
만세소리는 동서천리 하늘땅을 울린다
에헤이야하 천하명장이신 장군님 계시여
승리의 기상이 강산에 넘친다
온 나라에 넘친다

에헤이 어제는 동쪽에 오늘은 서쪽에
하늘땅 주름잡으며
김정일 장군님 신묘한 전략
천리에 펼치시니

기다려도 애타게 기다려도
수령님 아니 오시니

깨끗한 진정을
억만 포기밭에 고이 간직하고
한빛으로 피어웃는 감자꽃처럼
인민의 마음 더더욱 불타는 계절이건만
알알이 여문 감자산이
하늘끝에 닿는 풍년가을에 오시자고
이 여름날엔 아니 오시는지

뵈고싶어 뵈고싶어
간절히도 뵈고싶어
7월의 감자꽃 바다는
이랑이랑 키숫구며 설레이며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물결쳐 찾아갑시다

그래서
7월이라 감자꽃 필무렵이면
예나 다름없이 우리 수령님
허리에 손길 없으시고
백두의 해돋이같이 환히 웃으시며
물결치는 감자꽃바다
그 첫 기슭에 서계십니다

7월은
감자꽃을 보시려
수령님 평북땅에 오시는 계절입니다

안근배

천만대적도 났을 잃고 갈팡질팡하누나
에헤이야하 천하명장이신 장군님 계시여
승리의 기상이 강산에 넘친다
온 나라에 넘친다

에헤이 장군님 가시는 자욱을 따라서
승리의 기상이 넘친다
위대한 장군님 백승을 펼칠
작전도 펼치시니
우리 군대를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네
에헤이야하 천하명장이신 장군님 계시여
승리의 기상이 강산에 넘친다
온 세상에 넘친다

영생의 신념, 민족의 의지

-문학작품집 《영원한 태양》을 읽고-

장형준

세월이 흐를수록 모든것에 대한 추억은 점차 희미해지거나 잊어지거나마련이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그리움만은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날로 더해만 간다.

그래서 문학작품집 《영원한 태양》이 더욱 독자들의 가슴을 울리며 그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있는것이라라.

문학작품집 《영원한 태양》은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땅을 치며 통곡했던 우리 인민의 비통한 모습과 비애의 심정을 그대로 재현한 생동한 화폭이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수령님의 위대성과 뜨거운 사랑에 대한 열렬한 칭송의 감정을 솔직하게 터친 진실한 서정으로이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고한 신념의 웨침이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높이 받들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것을 다짐하는 전민족적명세의 함성이다.

문학작품집 《영원한 태양》의 작품들은 어느것을 막론하고 다 잉크로써가 아니라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눈물로 씌여진 글이다. 그러기에 이 작품집은 눈물없이 읽을수 없다. 보통 장편소설 한권을 읽자면 하루나 2, 3일이면 충분할것이다. 하지만 장편소설만한 부피를 가진 이 책을 나는 그렇게 읽을수 없었다. 그것은 작품의 한장한장을 번지며 억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져서 빨리 읽어나갈수 없었기때문이다. 나뿐만아니라 이 작품집을 읽은 독자들은 누구나 매 작품마다에 그려진 그 비애의 바다, 눈물의 바다를 되새기며 울고 또 울었을것이며 필자들의 주정토로에 공감되어 그 슬픔, 그 눈물의 의미가 어떤것이며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어버이를 잃었는가를 깊이깊이 생각하였을것이다.

이 작품집에 수록된 73편의 작품들은 다 짧은 단편들이지만 그 한편한편에는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 뜨거운 서정과 심오한 사색이 담겨져있는 것인가! 이 단편들은 결코 필자들의 그 어떤 기발한 착상이나 문학적기교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작가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울음을 터치던 그 애도기간에 체험한 느낌과 생각을 자기의 좁은 가슴에 물어둘래야 물어둘수 없어 종이에 그대로 옮겨놓은 심장의 웨침, 충성의 메아리이다.

이런 작품에 대해서는 그 사상에술적우열을 론

하는것보다 그 작품들에 흐르고있는 고상한 사상 감정을 음미해보는것이 더 중요할것이다. 그래서 나는 평자의 립장이라기보다 소박한 독자의 시점에서 이 작품집에 차넘치고있는 사상감정을 되새겨보려고 한다. 그런데 이 짧은 지면에서 그 모든 작품에 대하여 다 이야기할수 없는것만큼 몇몇 작품, 주로 인상적인 대목들에 류의하면서 이 작품집의 기본사상을 밝히려고 한다.

눈물의 의미

문학작품집 《영원한 태양》에는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우리 인민의 비통한 심정이 진실하게 그려져있으며 우리 인민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새롭게 밝혀져있다.

우리 인민의 슬픔, 그것은 민족의 어버이, 자기 친아버지를 잃은, 가장 큰 슬픔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부터 《이민위천》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으며 인민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한생을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살아왔다. 그러기에 위대한 수령님은 진정 우리 인민모두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다.

사람이 당하는 슬픔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 부모를 잃은 슬픔일것이다. 사람들은 부모를 잃은 비통한 순간에 그 따뜻한 품과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며 더욱 슬피 운다. 뜻밖의 비보에 접한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속에 살아온 지난날을 추억하며 눈물의 바다를 펼쳤던것이다.

일찌기 아버지를 잃고 어린 시절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온 필자-교원은 수기 《아버지의 모습》(김련화)에서 수령님의 육친적사랑과 수령님을 아버지로 모셔온 자신의 혈연적감정을 자기의 체험에 기초하여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펼쳐면서 생존해계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영상을 다시 뵈울수 없는 서러움을 통절

하게 터치고있다. 그의 이 주정토로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친아버지로 여겨온 딸의 절절한 소망과 아버지를 잃은 자식의 통분한 감정이 뜨겁게 표현되어있다.

이렇듯 우리 인민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왔기에 그들은 뜻밖의 비보가 전해지자 저마다 《아버지!》를 애통하게 부르며 자기의 친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보다도 더 슬퍼하며 대성통곡하였던것이다.

우리 인민의 슬픔은 아버지를 잃은 크나큰 슬픔인 동시에 5천년의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인류의 태양을 잃은 가장 큰 슬픔이었다.

인류는 아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와 같이 어르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80고령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민족사와 인류력사에 영원히 빛날 그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인을 알지 못하고있다.

그러기에 이 문학작품집의 필자들은 모두 아버지수령님을 잃은 절통한 심정을 안고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되새기고있다.

그들은 작품들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조국을 광복하시교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시였으며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시교 내 조국을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세상에 빛내여주신 수령님의 령도의 위대성에 대하여 그리고 《이민위천》의 리념으로 인민을 끝없이 사랑해주시는 그이의 고결한 인품과 덕성의 위대성에 대하여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우리 작가들과 인민들은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생활의 매 순간 받아안으면서도 그이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 그 세계사적의의를 생존시에 다 알고있었던것이 아니였다. 수령님의 서거이후에야 수령님의 위대성, 그 업적의 폭과 깊이를 비로소 더욱 심오하게 깨닫게 되었다.

수필 《온 우주가 통곡한다》(림종상)에서 작가는 우리의 아버지수령님께서 얼마나 위대한분이시였고 우리모두가 어떤 수령복을 타고난 인민이었던지를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다는것을 솔직히 자인하면서 우리 인민은 물론 온 우주가 비애에 잠겨 통곡하고있는 엄연한 현실에 부닥쳐서야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의 폭과 깊이가 지구를 뒤덮고도 남음이 있다는것을 참말로 절감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결코 이 작가 한사람만의 느낌이 아니였다. 수필은 세계적인 시야에서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의 폭과 깊이를 절감하게 하는 생동한 사실들과 자료들을 폐증하고 이렇듯 사상과 리념, 언어와 피부, 신앙과 제도는 서로 달라도 온 우주가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에 머리숙여 찬탄하며 그이의 서거에 땅을 치며 통곡하

고있다고 쓰고 수령님이시야말로 세계만민이 우러르고 20세기가 공인하는 위대한 인간,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소리높이 찬양하고있다.

이 작품집의 많은 작품들은 아버지수령님을 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슬픔과 함께 그들이 흘린 눈물의 뜻을 깊이있게 분석하고있다. 그러면 그 눈물에 어떤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것인가? 수필 《눈물의 철학》(김수경)에서는 그 의미를 우선 조선민족을 존엄있는 민족으로 되게 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우리 인민모두를 어떤 역경속에서도 민족적존엄을 지킬줄 알고 조국의 존토를 고수할 줄 아는 거인으로 성장시켜주시고 우리에게 귀중한 유산을 넘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그 상실의 아픔에서 찾고있다.

《우리의 가슴속에서 고동치는 사상적거인의 심장, 머리속의 사상, 전신의 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것이다.

우리들은 비록 미세한 존재이기는 해도 그이의 분신이었다.

그러니 그이의 서거와 함께 우리들이 자신들도 존재를 끝낸듯한 상실감을 느낀것은 응당한 일이었다.

아무리 많은 재부를 후대에게 넘겨준 가장이라고 해도 이보다 더 귀중하고 큰 재부를 후대에게 넘겨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있을것인가.》

사실 그렇다! 우리의 사상도, 우리의 심장도, 우리의 피도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수령님께서 또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우리에게 많이 남기시고 가시였는가! 세상에 이런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와 혁명적유산을 인민에게 넘겨주신분은 우리 수령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그러도 슬퍼하며 그러도 많이 눈물을 흘리었던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이 흘린 눈물은 이런 뜻만이 아닌 자기 정화의 눈물이기도 하였다.

수필에서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고계신 그 무거운 짐에서 조약돌만한 무게라도, 아니 티끌만한 무게라도 덜어드렸다면 그이께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셨을것만 같아 가슴치며 호곡하였다고 하면서, 또 만일 우리가 그이의 뜻을 받들어 더 많은 일을 했더라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것처럼 바라시던 통일의 날을 보셨을것만 같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애도기간에 수십년을 두고도 달성하기 어려운 비약적인 사상정화와 정을 거쳤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그 뼈아픈 자책의 눈물속에 새로운 사상정신적발전을 이룩한 우리 인민에 대한 매우 정확하고 심오한 분석이 주어져있다. 이것은 이 수필에 작가의 깊은 사색이 깃들어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눈물의 깊은 뜻은 단상 《회한의 눈물, 맹세의

함성》(백보흠)에서 또한 매우 절절하고 깊이있게 형상되고있다.

단상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 인민은 애도 기간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와 위대성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그이의 만수무강을 지켜드리지 못한 죄스러움을 안고 회한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았다.

그러나 우리 인민이 흘린 눈물은 회한의 뜻만을 가지고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회한의 눈물은 철없는 어린이들을 어른으로 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들고있으며 이 땅에 울리는 인민의 대성통곡은 조선의 맹세의 함성이었다. 우리 인민은 슬픔의 눈물, 자책의 눈물,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충효일심으로 받들어나갈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여기에 또한 그 눈물의 깊은 뜻이 있다.

작가는 어버이수령님의 서거를 계기로 오늘의 조선을 알게 된 세계는 이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이 어떻게 주체의 위업을 빛내어나가며 그 어떤 기적을 창조하게 되는가를 보게 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긍지높이 웨치고있다.

작가의 이 웨침은 눈물의 깊은 의미를 보여줌과 함께 그 눈물이 앞으로 어떤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엄숙한 선언이기도 하였다.

영생의 모습, 밝은 미소

문학작품집 《영원한 태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이 힘있게 굽어치고있다.

수필 《태양의 미소》(강학태), 《영원한 태양의 미소》(손권), 《영생의 모습》(림재성), 《영생》(박정원), 《밝은 미소》(주유훈), 《민족의 영원한 아버지》(배연록), 《그것은 조포소리가 아니었다》(백은팔), 수기 《영생하리라!》(리종렬)와 같은 작품들은 그 제명자체가 말해주는바와 같이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작품의 종자로 하고있다. 이 작품들뿐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기본주제로 하고있다.

그 한 레로 수필 《나는 가고 또 간다》(조필수)를 들수 있다. 수필에는 만수대를 찾는 작가의 심정이 진실하고 깊이있게 표현되어있다.

《만수대! 여기서 나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긴다. 그이께서 주신 내 평생의 영광과 행복을 다시금 받아안는다. 여기서 나는 영생하시는 수령님을 뵈옵는다. 그래서 나는 만수대언덕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나는 만수대언덕으로 오른다. 우리 수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심장으로 심혼으로 확인할수 있기에 이곳으로 오르고 또

오른다. 그래서 우리 겨레의 모두가 이곳으로 오고 또 올것이다.》

이 진실한 내면세계의 개방에는 만수대를 찾아가는 작가의 의향과 신념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작가들과 인민들이 그 비통한 날에 만수대를 찾아간것은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고 영원히 그이의 자애로운 품에 안기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수대로 물밀듯이 찾아갔고 오늘도 끊임없이 찾아가고있는것이다.

이 수필의 사상적심오성은 주체의 관점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확신하고 확증하고있는데 있다.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인것만큼 영생할 영광을 인민들이 드린다는것은 옳다.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과 인민을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시켰다. 그이는 인민을 살아있게 하는 인민의 심장이었고 넋이었다. 그러기에 인민은 이 세계가 존재하는 한, 인민이 죽지 않는 한 그이께서 영생하신다는 믿음을 가진다. 이처럼 작가는 주체의 사회력사관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오늘 여기 만수대언덕에서 인민은 장엄한 곡성으로 우리 수령님께 영생의 권리, 영생의 영광을 드리었다고 썼다. 보는바와 같이 수필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확증하고있을뿐아니라 미학적서적으로 공감이가게 형상하고있다.

작품들은 영생의 신념과 함께 영생의 모습을 잘 그리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생각할 때 언제나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자애로운 영상을 눈앞에 그려보게 된다. 이것은 그 밝은 미소에 한 평생 밝게 웃으시며 우리 인민을 승리와 행복으로 이끌어주신 수령님의 인민적품모가 생동하게 비껴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과 영결하는 그 비통한 날에 수도의 백여리 연도와 텔레비죤수상기 화면에서 환히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뵈옵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자애로운 영상을 뵈옵는 순간 사람들은 일시에 오열을 터뜨리며 그 밝은 미소를 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으로 심장에 영원히 간직하였다.

그러기에 이 작품집에서 많은 작가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환하신 영상, 그 밝은 미소에 형상의 초점을 두고 수령님의 영생을 칭송하며 주정을 강렬하게 터치고있는것은 결코 까닭없는 일이 아닌것이다.

그러면 필자들은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 그 밝은 미소에서 어떤 뜻을 느끼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수필 《태양의 미소》(강학태)는 환히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에 깃든 가슴뜨거운 사연을 이야기하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어

수령님께서 영생하신다는것을 감명깊게 밝히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온 나라 인민의 슬픔을 가슴에 안고계시면서도 아버지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직후에 벌써 영결식날 환히 웃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실것을 구상하시고 수령님의 사진을 친히 고르시여 미술가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형상방도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완성된 대형초상화를 보시며 그이께서 수원들에게 수령님의 웃으시는 모습이 어떤가고 물으시었을 때 그들이 모두 좋다고 대답을 올리며 위대한 발견이라고 말씀드리자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발견이란말이지...헌데 내가 왜 수령님생전에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후회하시며 래일 경구대렬의 맨앞쪽에 이 대형초상화를 모시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아버지수령님을 높이 모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렇듯 숭고한 충성심과 공산주의 적도덕의리심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영결의 날에 환

히 웃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러뵈게 된것이다.

수필에서는 이러한 사연에 대한 생동한 묘사와 함께 그 환한 영상에 대한 작가의 사색이 펼쳐져있다. 작가는 태양의 미소, 그것은 수령님의 영생을 의미하였으며 그로 하여 인민들은 수령님과 영결을 한순간에 부정해버렸다고 그리고 그날 그 미소를 본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수령님은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실것이라고, 아버지수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그 밝은 미소는 또한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무겁게 드리운 슬픔을 가지고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사랑과 믿음의 미소이기도 했다고 썼다.

이 수필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비록 수령님은 심장의 고동을 멈추었으나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밝게 웃으시며 영생하신다는것이다. 작품의 사상이 실제한 사실에 대한 진실한 묘사와 작가의 뜻깊은 주정토대로 표현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수필은 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깊은 여운을 안겨준다.

수필 《영생의 모습》 (김성관)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 그 환한 미소의 의미가 심오하게 형상되어있다.

눈물의 바다를 헤치시며 영결의 길을 가신 수령님의 그 환하신 영상은 우리 인민들이 논란이나 기대열, 로동자합숙의 소박한 식탁앞이나 농가의 로방우에서 문득 뵈옵군하던 그 해빛같은 웃음과 인자하신 영상이었다. 그러나 수필에서 작가가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수령님식 한생을 돌

이켜보면 그이에게 어찌 것처럼 밝게 웃으실 일만이 있었겠는가? 험준한 조선혁명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해보면 웃음보다는 눈물, 기쁨보다는 고충이, 웃을 일보다는 분노할 일이 몇꼭절 더 많으시였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그러하신 수령님께서 온갖 고초와 시름과 만난을 모두 한몸에 견어안으신채 인민들에게는 오직 기쁨과 행복만을 주시려고 영결의 길마저 그렇게 환히 웃으시며 가시였다. 작가의 깊은 사색이 깃든 이러한 묘사에서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아버지수령님의 험난한 생애와 로고, 가시면서도 인민의 행복만을 바라신 그이의 숭고한 사랑을 가슴뜨겁게 헤아리게 된다. 정녕 그 환한 미소에는 우리 인민모두의 마음에 한점 그늘도 비끼게 하지 않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이 담겨져있는것이다.

작가는 그 밝은 미소의 의미를 이렇게 밝히고 그 웃음에 어찌 그런 뜻만이 있다고 하겠는가고 하며 거기에는 후계자에 대한 믿음, 조선혁명의 장래와 민족의 전도를 띠관하시는 수령님의 모습도 비껴있다고 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과 세계의 진보적인류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지니셨던 그 모든 위대성과 비범한 천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보며 조선혁명의 승리와 세계혁명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고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속에 영생하실것이라는 작가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게 된다.

많은 작품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영생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결부시켜 형상하고있는것은 두분의 공통적인 위대한 사상정신적품모로 보나 혁명위업계승의 전제로 보나 아주 정당하고 적절하다.

혁명의 길을 개척한 로동계급의 수령들은 서거하였어도 그들은 자기가 이룩한 빛나는 공적으로 하여 마땅히 영생의 영광을 누려야 한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수령이라고 하여 다 영생의 영광을 누리고있는것은 아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은 로동계급의 수령들의 서거후에 얼마나 심각한 도전과 시련을 겪고있는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수령의 위업에 충실한 후계자를 내세우지 못한 사정과 관련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에 무한히 충실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 수령의 후계자로 높이 모시고있기에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인민과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영생하고계시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작품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송찬하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과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칭송하고있는것은 오늘의 우리 현실을 가장 본질적측면에서 반영하고 시대의 진실을 가장 옳바로 보여주고있다는것을 말하

여준다. 시대와 현실에 대한 작가들의 진지한 탐구,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심오한 사색은 이러한 형상적성과를 이룩하게 하였다.

인민의 맹세, 작가의 결의

문학작품집 《영원한 태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하신다는 확고한 신념과 함께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할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결의로 충만되어있다.

우리 인민은 아버지수령님을 잃은 그 비통한 애도기간에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았다.

작품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드리지 못한 뼈아픈 자책속에 회오의 눈물을 흘리며 수령님께 다하지 못한 충성과 효성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바칠것을 굳게 맹세하였다.

수필 《사랑의 철리》(전세창)에서 주목되는것은 사랑의 룰리에 대한 작가의 새로운 주장과 그에 기초한 령도자에 대한 충성의 결의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리사랑은 없다며 부모들의 사랑에 백분의 일만큼이라도 보답하면 효자라 하였다. 이것은 사랑의 룰리에 대한 하나의 굳어진 기성관념이었다. 작가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사랑의 룰리에 대하여 새롭게 깨닫고 이 낡은 관념을 단호히 부정하면서 내리사랑이 있으면 올리사랑도 있어야 하고 부모들이 백을 주면 자식들도 백을 드려야 한다는것이 새로운 사랑의 철리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충효심을 다해 자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굳게 결의하였다.

수필 《투지를 가다듬으며》(리명균)에서는 우리가 굳센 의지로 비분의 눈물을 씻고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웨치고있다.

또한 이 작품집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모시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완수할것을 다짐하는 우리 인민의 불같은 결의가 힘차게 울려나오고있다.

그중에서도 강원도 평강무가공공장 노동자가 쓴 수필 《한쪽의 뜻깊은 유화앞에서》(최명남)가 특히 인상깊다.

각계층 인민들과 함께 우리 작가들도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되새기며 수령님께 다하지 못한 충성과 효성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다할것을 비분의 눈물속에 굳게 결의하였다.

우리 작가들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은 수기 《영생하라라!》(리종렬)에서 뜨겁게 추억되고있다. 여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참으로 우리 작가들의 아버지이시고 스승이

시였으며 우리 문학과 작가들은 모두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났다. 수기는 리기영, 조기천, 리찬, 김사랑, 천세봉, 박원태, 조령출, 석운기를 비롯하여 수령님의 보살핌과 고무적력속에서 행복한 창작생활을 누린 작가들의 이름을 꼽자면 끝이 없다고 하였는데 참으로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령이 되시어서도 비상한 독서력으로 로작가들뿐아니라 젊은 작가들의 미숙한 작품들까지 보아주시고 너그러운 어버이심정으로 자그마한 장점도 크게 치하하시고 부족점이 있으면 못내 아쉬워하며 고치도록 세심하게 일깨워주시였다. 수기의 필자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자기와 같은 무명작가가 쓴 작품까지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두편이나 읽어주신데 대하여 감명같이 회상하며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에 휩싸여 터져오르는 오열을 막지 못하며 동서고금의 어느 나라 령수가 우리 수령님처럼 문학을 사랑하시고 작가들을 아끼였겠는가,

수령과 작가들과의 관계가 우리처럼 혈연적뉴대로 이어진 실례는 인류문화사의 어느 갈피에도 없다. 갈 맑스의 사랑을 받은 하이네도, 레닌의 사랑을 받은 고리끼도 우리들처럼 수령으로부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고 시대앞에 진실을 토로하고있다. 맑스나 레닌의 사랑은 특정한 한두 작가에 대한 사랑이었다면 우리 수령님의 사랑은 우리 전체 작가에 대한 사랑이였고 그것도 작가들의 운명과 창작생활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세심히 돌봐주신 가장 숭고하고 가장 뜨거운 육친적인 사랑이었다.

정녕 이 세상에 우리 조선의 작가들처럼 수령복을 지닌 행복한 작가는 없다.

우리 작가들은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창작으로 보답하지 못한 자책감에 몸부림치며 수령님께 다하지 못한 충성과 효성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바칠것을 심장으로 맹세하였다.

소설가 정창운은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싸우던 병사시절에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성을 직접 체험하고 만일 자기가 후날 작가가 된다면 그이의 천재성에 대하여 꼭 쓰리라고 결심하였건만 그때로부터 아득한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그날의 그 맹세를 실현하지 못한 자신을 죄스럽게 느끼며 오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는 길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침으로써 죄 많은 작가의 가슴에 맺힌 슬픔을 지워보려 한다고 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수필 《위대한 수령님 령정에 얹드려》에는 수십년간의 창작생활에 대한 작가의 심박한 자기 반성과 아울러 눈물로 다지는 그의 성실한 충성의 결의가 담겨있다.

소설가 리호인도 만수대동상앞에 얹드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작품을 쓰지 못하고 사랑만을 받아온 자신을 깊이 자책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기쁨

과 만족을 드리는 작품을 꼭 쓰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하였다.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이 다진 맹세는 어버이수령님 령전앞에 다진 눈물의 맹세였기에 더없이 고결하고 아름답으며 반드시 일대 창작적양양을 가져올 드팀없는 맹세였다. 오늘 우리 인민과 작가들은 이 심장의 맹세를 지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온갖 난관을 박차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김일성** 민족의 영예를 온 세상에 과시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확고히 고수하고 로동당시대를 더욱 찬연히 빛내어나가고있다.

×

문학작품집 《영원한 태양》의 커다란 감화력과 견인력은 그 작품들의 생활적진실성과 풍부한 서정성, 심오한 철학성에 안받침되어있다.

이 문학작품집에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것은 수필이다. 수필은 필자의 체험과 느낌, 사색을 펼쳐보이는 서정적인 산문인것만큼 그 생명력도 서정시에서와 같이 풍부한 서정성에 있는 것이다. 필자의 개성적얼굴이 떠오르고 풍만한 정서와 깊은 철학이 담겨있는 수필은 우에서 언급한 작품들의외에도 적지 않다. 《무거운 불빛》(김청남), 《백로와 주고받은 말》(김원종), 《꽃바구니》(리계심), 《크나큰 상실에 대한 자각》(리화), 《꽃의 의미》(리일복), 《밝은 미소》(주유훈), 《금강산과 더불어》(차승철), 《산천도 눈물에 젖어》(현승남), 《혼연일체》(안동춘), 《다시 본

꽃모습》(안홍운)... 이런 수필다운 수필은 이밖에 또 더 꼽을수 있다.

일기 《너의사의 일기》(방정강)는 가장 진실하고 매력있는 작품들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은 서정이 풍만하고 사색이 깊은것으로 하여 일기체형식으로 씌어진 수필이라고 할수 있다.

이 작품집의 일기나 편지, 단상은 물론 수기나 방문기, 실화작품물까지도 사실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필자의 강한 주정으로 정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서정이 짙은 수필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것은 수기 《7월의 맹세》(강복례), 방문기 《만경대에서》(최성진), 실화 《비에의 밤에》(박혜란)들 비롯한 작품들이 잘 말해준다.

문학작품집 《영원한 태양》의 모든 작품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일관된 풍부한 서정과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깊은 철학이 담겨져있는것으로 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의 강력한 수단으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사상,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게 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과 인류는 이 문학작품집을 읽으며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의 길, 온 세계 자주화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문학작품집 《영원한 태양》은 수필문학의 발전에도 새롭게 이바지한 기념비적작품집이다. 어느때 그 어디에도 이런 문학작품집은 없었다. 인류문학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한 여기에 이 문학작품집의 빛나는 문학사적의의가 있다.

명언해설

《효성을 떠나 명인이 없고 충성을 떠나 위인이 없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이 명언에는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참다운 혁명가, 훌륭한 인간이 될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명인, 위인이란 인류를 위해 특출한 공헌을 하여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커다란 업적을 이룩한 위대한 혁명가야말로 인류가 영원히 기억하는 명인이고 위인인것이다.

혁명가의 업적과 위훈은 수령에게 효성과 충성을 다하는 길에서 이루어진다. 수령에 대한 효성과 충성을 떠나서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와 혁명에 대한 충실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그것은 혁명위업은 곧 수령의 위업이며 수령의 위업이자 인민대중의 위업이기때문이다.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지닌 혁명가는 수령의 사상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과정에 인류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는다.

그러므로 수령의 가장 지극한 효자, 참다운 충신만이 위대한 혁명가, 명인, 위인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효성과 충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회세의 명인이며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보여주시는 효성과 충성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참다운 혁명가의 고상한 풍모를 끊임없이 완성해나가야 한다.

붉은기의 추억

김재원

조용히
더듬어보자 붉은기여
네가 간직한 추억
무엇인가를

풀뿌리 나무껍질 짓씹으며
불타는 근거지 피로 지켜낸
그 전인불발의 정신
그것이 붉은기여 너의 추억 아니냐

한흠의 미시가루 뜨거이 나누며
고난의 행군길 웃으며 헤친
그 필승불패의 신념
그것이 붉은기여, 너의 추억 아니냐

오, 붉어, 기폭이 붉어
추억도 그리 붉은것인가
백두광야에, 화선천리에
선렬들 뿌린 피방울 그 얼마랴

가사

피방울 아끼지 않았기에
광복만세의 메아리 조선을 진감했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기에
전승의 축포 그리도 환희로울수 있었거니

추억은 붉은기의 추억은
혁명의 준엄함에 대한 추억
붉은기의 추억은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억

오오, 우리의 붉은기 추억은
적진에서 승리만을 떨쳐온 추억
전설에서 위훈만을 떨쳐온 추억
수령과 인민이 생사고락 함께 나눈 추억

오늘도 우리의 붉은기는
마치와 낮, 총과 붓에 대한 추억
찬란히 청사에 아로새기며
펼 펼 나뭇기고있어라
장군님 이끄시는 사회주의 한길에

새날이 밝아오네 외 1 편

정서촌

백두의 사연깊은 등불을 켜시고
이밤도 새우시는 우리 장군님
사색의 창문가에 별들을 채우시며
남모르게 가시는 길 몇천리이라
아 그이께서 당중앙 창문을 여실 때
푸름푸름 조국의 새날이 밝아오네

밀림의 파도소리 귀전에 들으시며
태일을 펼치시는 우리 장군님
인민을 꽃방석에 앉히시려고

넘으시는 험한 령은 몇만굽이라
아 그이께서 당중앙 창문을 여실 때
푸름푸름 조국의 새날이 밝아오네

한평생 백두산의 등불을 밝히시고
로고를 바치시는 우리 장군님
통일의 그 아침도 동터오건만
언제이면 잠시라도 휴식하시라
아 그이께서 당중앙 창문을 여실 때
푸름푸름 조국의 새날이 밝아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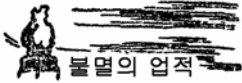
원수들은 기억하라

원수들은 침략의 검은 칼을 휘둘러도
우리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백두의 기상으로 산악같이 일떠서
붉은 칼 버려들고 사회주의 지킨다
아 조선은 무적의 **김정일**장군 나라다

원수들은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와도
우리는 일심단결 성세우에 서있다
신성한 내 조국의 모래 한알 다쳐도

천백배 복수하여 불벼락을 안기리
아 조선은 무적의 **김정일**장군 나라다

원수들은 함부로 먹겠다고 날뛰어도
우리는 결사옹위 총폭탄을 안았다
정일봉 우뢰소리 하늘땅에 터치며
나가는 앞길에는 승리만이 있어라
아 조선은 무적의 **김정일**장군 나라다



수령의 위대성을 폭넓게 형상하도록 이끄시어

오늘 우리 작가들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수령을 형상한 혁명소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당과 혁명앞에, 시대와 력사앞에 책임지는 중대하고도 성스러운 사업이며 만대에 길이 빛날 기념비적작품을 창작하는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사업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을 폭넓게 형상하도록 우리 작가들을 정력적으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1967년 2월의 어느날, 작가들에게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신 때로부터 올바른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고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은 조직전개하심으로써 조선민민의 민족해방투쟁과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폭넓게 형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이후에도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작가들에게 문학이 인간학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자면 사상과 감정, 심리와 행동에서 언제나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존재인 인간을 진실하게, 인간답게 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지 않으면 그 어떤 문학도 참된 인간을 형상할수 없으며 인간문제를 옳게 밝혀낼수 없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수령님대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폭넓게 형상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워오신 과정이었다. 참으로 수령님의 혁명활동은 인민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워나가는 과정으로 일관되어있다.

1978년 9월의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 대하여 분석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소설을 사실에 기초하여 창작하였기때문에 명백하여서 좋다고 매우 만족해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이 성과작으로 될수 있는것은 수령님의 령도선에 따라 사상적대를 튼튼히 세웠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사실 작가는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창작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창작에 모든 힘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남호두로부터 동강에 이르는 혁명투쟁로정을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주제적인 방침이 빛나게 실현되어가는 과정으로 그리면서 수령님의 형상을 화폭의 중심에 확고히 내세우고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보여줄수 있도록 인물들과 사건들을 깊이있게 묘사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이 성과작으로 될수 있는것은 실지 있는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형상작업을 착실히 한것과도 관련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 나오는 《대통령감》은 실재한 력사적인물이며 소설에 나오는 금강사진관을 경영하는 인물도 수령님과 연고관계가 있는 장울화를 원형으로 하여 전형화하였다.

사령부작식대원도 장철구를 원형으로 하고 있으며 그밖의 인물대부분도 실재한 원형에 기초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혼진의 열병환자들과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을 육친의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민생단》문서보따리를 불태우시고 백여명의 《민생단》협의자들

을 골간으로 하여 새 사단을 편성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백두산기슭으로 진출하는 간고한 행군길에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작성하시고 동강에서 역사적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는 이야기도 다 실재한 역사적사실이다.

참으로 작품에서는 백두산지구예로의 행군도중 불무지보초를 서던 한 신입대원이 조는바람에 불티가 튀어 장군님의 바지를 태우게 된 자그마한 생활세부까지도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생동하게 재현하였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이처럼 조선혁명의 일대 양양을 위한 역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와 업적을 실지 있는 역사적인물과 사건에 기초하여 생동한 생활화폭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가 늘 강조하는 문제이지만 문학예술작품의 생명력은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담보하는 생활의 진실성에 있다고 하시면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과 같이 역사문헌적의의를 가지는 작품인 경우에는 실재한 역사적 인물과 사실에 얼마나 철저히 의거하였는가에 따라 그 진실성이 담보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인물과 사건의 실재성은 생명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관련된 모든 역사자료를 전면적으로 폭넓게 연구하고 작품에서 그 본질과 의의를 깊이있게 밝혀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소설에서 인물의 혁명적성장과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탁월한 령도에 대한 예술적형상과 뿔수 없는 련관속에서 그러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명망 높은 장수에게는 용렬한 병사가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령수에게는 부실한 백성이 있을수 없다고 하시였다. 수령이 위대하면 인민도 위대한 인민으로 자라나게 된다. 혁명소설에서는 바로 이런 생활의 진리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정에 발휘한 무비의 영웅성과 불굴의 혁명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잇닿아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소설에서는 인물의 혁명적세계관형성을 추동하고 이끌어간 기본요인이 다름아닌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과 보살피심에 있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있다는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되여야 인물들의 성장과정에 대한 형상이 수령을 형상한 작품의 생리에 맞을수 있으며 수령의 위대성을 생활적으로 힘있게 보여줄수 있다고 하시였다.

실로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형상하는 총서 《불멸의 령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창작사업을 수령님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리는데 모를 박고 계속 힘있게 추진시키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은 조선혁명에 충실한 절세의 애국자이신 동시에 세계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세계혁명의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가장 위대한 국제주의자의 귀감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생활무대를 국내적인 판도에만 국한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끌어오신 조선혁명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 밀접한 련관속에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을 언제나 국제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시고 조선혁명을 빛나게 수행하는것으로써 세계혁명에 커다란 공헌을 해오시였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총서 《불멸의 령사》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모와 혁명활동을 전면적으로 취급하는 대작창작에서 수령님의 위대성을 국제적인 판도에서 폭넓게 형상하였다.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와 《근거지의 봄》은 서로 다른 역사적사실을 취급하고있지만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미 수령님의 혁명활동이 국제공산주의자들과 세계인민들속에서 공인되여있었다는것을 사실 그대로 밝힘으로써 수령님의 위대성을 폭넓게 보여주었다.

오늘 총서 《불멸의 령사》에 속하는 모든 장편소설들을 읽는 우리 인민은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고있었는가를 더욱 절감하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을 폭넓게 형상하도록 이끌어주신 문학예술의 위대한 영재이시다.

본사기자

대덕산에 오신 날에

한원희

1

오매불망 그리워 꿈결에도 그리워 달려가
안기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대덕산 최전연고지에 찾아오십니다
오시리라 믿었던만 이렇듯 정작 오시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마음이 오히려 죄스러워
그리워 뵈고싶은 그 하나만을
생각하고 어이하여 잊었던가 그이께 위협끼칠
그 하나 그 하나는-
아, 죄스러워, 백번천번 죄스러워
달려옵니다 그이의 승용차, 대덕산어구에 다닫는
승용차! 거기엔 적들의 감시속에 놓여있는
도로구간입니다
순간! 바로 그 순간!
이 어인 일입니까, 어데선가 짙은 구름이
몰려와 떼지어 달려와 대덕산을 휘감으며
승용차를 숨겨줍니다
구름속을 달리는 승용차! 적들의 감시구간을
번개처럼 지나니 구름은 일시에 사라집니다
꿈과 같이 흩어집니다
아, 구름이여 신비로운 천지조화여 너 어디에
있다가 장군님의 안녕을 비라는 병사들의 소원을
풀어주는가, 구름이여 말해다오
이야기해다오 이 무슨 기적이나
혹시나 꿈이 아닌가 다시 바라보니 아닙니다
구름속을 벗어난 장군님의 승용차
우리를 향해 초소를 향해 달려옵니다

2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덕산마루에 오르십니다
가파로운 오솔길을 따라 고지로 오르십니다
적들과 마주선 전연감시소로 오르시는
장군님을 뵈오니 이 가슴엔 또 죄송함이
파고듭니다
조국의 고지는 넘려마시라고 평양의 하늘가를

우리러 마음속으로 보고드렸건만 정작
이렇게밖에 모시지 못하니 아, 죄스러워
백번천번 죄스러워-
드디어 그이 감시소에 오르셨습니다 병사의 이
마음 그이결으로 달려가 한몫이
그대로 천만결의 방패로 나서려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이 어인 일입니까 또 짙은 구름이 감시소를
감싸안습니다 너울치는 운무는 놈들의
눈을 가리우며 산정에 자오록히 흐르고
적들의 머리우엔 평- 하늘이 뚫리웁니다
그러자 적진이 날날이 드러납니다
숨을 곳을 찾는 놈들의 물결이 보이는듯합니다
장군님의 엄한 시선이 적진을 금시에 불태울듯
종횡무진 변화무쌍히 내달립니다!
아, 구름이여, 신비로운 천지조화여 너 저 아래
산어구에서도 우리 장군님을 위해주더니
이 산정에서도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온
나라의 소원을 다 헤아려주는구나!
구름이여 말해다오 이야기해다오
이 무슨 기적이나
혹시나 꿈이 아닌가 다시 또다시 바라보니
아닙니다 장군님은 여전히 산정의
구름속에 계십니다!

3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대덕산을 떠나십니다
장군님이시여, 여기 대덕산에 머무르신 동안은
신비로운 천지조화가 자꾸만 일어나
신기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거룩하신 장군님의
안녕을!
무슨 일입니까 방금 또 우리와 함께 사진을
찍어주시려 나오실 때 평평 내리던
눈이 멎고 사진이 잘 되도록 해빛이 쏟아졌으니
자연현상이라 하기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기상천외하고 너무나 믿기 어려워

놀라기만 합니다
부디 안녕히 가시라 떠나시는 장군님을
우러릅니다 장군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 높이
드시여 저어주십니다
순간! 바로 그 순간!
번쩍-빛발치는 섬광이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수수한 동복을 입으셨으나 감출수 없는
태양의 빛발입니다 그이의 모습에서
발산하는 눈부신 광채입니다
위인성인의 해빛입니다!
그것입니다 장군님이시여 명인명장의 후광입니다
천지조화를 일으키신것은 바로
장군님이십니다!
하늘이 내신분이시길래 탄생하실적부터

백두산상에 봄우뢰를 터치고 광명성으로
쫓아오르시였거니 당신만이 능히 천기를
다스리시고 하늘땅을 쥐락펴락하시는 만능의
천품을 지니셨습니다
당신께서 구름을 몰고 다니시였습니다
당신께서 천변만화를 일으키시였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걸으시는 곳곳마다
혁명전설을 남으십니다
아,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당신께선 보여주셨습니다 인민을 위한
최고최대의 사랑을 지니신분만이 인민을 위해
천지조화를 일으키신다는것을!
대덕산에 오신 그날에, 잊지 못할 그날에-

승리여

김석주

너는 어느때나 기쁜것이더라 승리여
누구에게나 기쁜것이더라 승리여
너는 인간이 가닿기 힘든 높고 먼곳에
거룩하게 존엄높게 빛나거니
피와 생명을 바쳐야만 너에게로 갈수 있고
시련의 고비들을 넘어야만 얻을수 있더라
너 동정과 흥정을 모르는 무자비한것이여
너 수천년 위인 명인들을 다스려온것이여
그 예리한 시선으로 세상관도를 달리며
소란한 인간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정의와 진리와 힘을 갈라보며
미소를 던지기도 하고
그늘을 던지기도 하거니
그리하여 기쁨과 영예를 주기도 하고
패배의 쓰디쓴 눈물을 주기도 했더라
하지만 깃들곳 없는 새마냥
오랜 세월 세계를 방황했더라
영원한 정의, 영원한 진리, 영원한 힘을 찾아
그러나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던 그것
어느 시대 어느 인간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그것
이 시대 이 땅에서 그것을 보았나니

그이는 **김정일!**
시대의 진리이고 정의이고 구원의 힘인
그이를 찾아
더 환희롭게 날아오지 않았더라
그 담력에 끌린것이다
그 지략에 감탄한것이다
그 의지에 머리숙이고
그 사랑에 반하고
그 인간미에 매혹된것이다
하기에 언제 어디서나 그이를 따른다
싸움에서 건설에서 또 생활에서
전연초소를 걸으시는 그이를 따른다
건설장의 험한 길을 걸으시는 그이를 따른다
농장의 들길우에 계시면 너 거기에 있고
작전대앞에 서계시면 너 거기에 있어라
너는 사회주의를 이끄시는 그이를 따르며
그 거룩한 자욱자욱을 빛나게 아로새긴다
그이로 하여 위대해진 승리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승리여
너는 영원히 영원히 그이를 따른다
그이는 그 승리를 거느리신다



《고난의 행군》 정신에 비낀 장군님의 의지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총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오늘의 힘찬 진군길우에 뜨거운 숨결이 높뛰고있다.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일하며 싸워나가자.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신심과 락관에 넘쳐 비판과 동요를 모르고 난관을 뚫고나가는 백절불굴의 《고난의 행군》 정신.

《고난의 행군》 정신이 창조된 1930년대의 준엄하였던 력사의 그 나날로부터 수십년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항일전의 나날 백두밀림에 차넘쳐 조국광복위업을 이룩한 그 불굴의 혁명정신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1990년대의 진군길우에 이어져 더욱 줄기차게 나래치고있는것이다.

세월은 멀리 흘러 세대는 바뀌였어도 백두의 설한풍을 헤쳐간 투사들의 고귀한 혁명정신이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그대로 이어져 하나의 숨결로 뜨겁게 맥박치고있는 여기에는 얼마나 위대한 령도와 숭고한 의지가 깃들어있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우리는 잠시도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있을수 없으며 우리에게는 사소한 안일성, 해이성, 권태증도 절대로 허용될수 없습니다.》

여기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고난의 행군》 정신이 어떻게 오늘의 장엄한 진군길우에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는가를 보여주는 뜻깊은 이야기가 있다.

여러해전의 여름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은 항일의 한 로투사는 그이께서 계시는 집무실에서 몇가지 문제들에 대한 결론을 받고있었다. 그러던 그는 잠시 쉬는동안에 벽에 걸린 풍경화에 시선을 돌렸다. 흔히 볼수 있는 산간지대의 산골풍경이었지만 산비탈을 끼고 골안으로 들어가는 작은 오솔길과 그것을 감돌아흐르는 시내물로 하여 숭엄한 정서가 안겨와 로투사는 그것을 무심히 스쳐볼수가 없었다.

(요영구!)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었던 력사의 땅 요영구가 틀림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요영구풍경을 알아본것이 못내 기쁘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요영구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듣고 화가에게 과업을 주었는데 제대로 그렸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서 요영구에 대하여 자주 회고하시기에 그런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요영구!

얼마나 준엄한 력사가 저 평범한 산천에 비껴있는것인가.

투사의 생각은 어느덧 1930년대중엽의 잊지 못할 그 나날에도 달려갔다.

동만의 유격근거지들에 대한 일제의 봉쇄책동은 1935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악랄해졌다.

일제는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유격구를 겹겹이 포위하고 근거지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기 위한 《토벌》 공세를 감행하는 한편 한알의 쌀, 한치의 천도 유격구에 새여들어가지 못하도록 악착스럽게 책동하였다. 그리고 군화로 썩이 돌아나는 곡식들을 짓밟아 버렸으며 성장기의 작물은 불질러태워버렸다. 혁명대오를 안팎으로부터 분렬와해하기 위한 놈들의 음모도 더욱 악랄하였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요영구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교 고정된 유격근거지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대부대활동을 벌릴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전략적방어로부터 적극적공격으로 이행하여 광활한 지대에서 일제의 봉쇄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렸다...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풍경화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나는 복잡다단하였던 그 시기 요영구를 떠나실 때 수령님께서 지나시였던 그 높으신 뜻을 항상 가슴에 새겨두고 빛내어나가기 위하여 요영구풍경을 그리도록 하였다고 근엄하게 말씀하시였다.

항일전의 피어린 언덕에서 억세게 내려친 불굴의 혁명정신, 일제의 악랄한 봉쇄를 혁명적공세로 짓부셔버린 그 고귀한 투쟁정신으로 제국주의의 그 어떤 침략과 봉쇄도 단호히 격파하시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굴의 신념과 강철의 의지, 이런 생각으로 마냥 후더위오르는 가슴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는 투사의 머리속에는 몇해전 어느 겨울날, 그이께서 백두산에서 하신 뜻깊은 말씀이 되새겨져 흥분된 마음을 진정치 못하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백두산으로 오르게 된 일군들은 사나운 눈보라속을 앞장에서 헤쳐가시는 그이의 신변이 걱정되어 후날 날씨가 좋은 때에 백두산에 올라가실것을 그이께 거듭 간청하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동무들은 내 마음을 왜 그러도 몰라주는가고, 내가 왜 이런 날에 백두산에 오르려고 하는지 아ნ가고 하시며 이렇게 백두산의 사나운 눈보라와 맞서도 보고 험한 눈길을 헤쳐보면서 《고난의 행군》길을 돌이켜보아야 조선혁명이 어떤 혈로를 헤쳐왔는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 혁명의 앞길에 중중첩첩 산악이 막아나서도 얼마든지 넘을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혁명의 먼길을 변함없이 걸자면 지난날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일군들을 깨우쳐주시였다,

《고난의 행군》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며 사나운 눈보라를 앞장에서 헤치시며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고난의 행군》시기에 있었던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사에 길이 빛나는 력사적인 《고난의 행군》.

적들의 끈질긴 추격과 포위공격,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엄혹한 추위와 대장설, 참기 어려운 모진 굶주림, 이 모든 고난을 헤치며 자욱자욱을 피어린 싸움으로 이어간 《고난의 행군》은 참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력사상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다. 그 길에서 투사들은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썬을 치자》라는 혁명의 노래높이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소한 주저

와 동요도 없이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맞받아 뚫고나갔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조국을 통일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면 많은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나설것이라고, 그러나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싸워나간다면 남먼저 혁명의 종착점에 가닿을것이라고 하시며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자고 일군들에게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하신 그날의 뜻깊은 말씀을 새겨가는 투사의 가슴속에는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던 항일의 준엄한 결전장이 되새겨졌다.

진정 《고난의 행군》에는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있는 한 놈들의 침략과 봉쇄를 항상 각오해야 하며 언제나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적들의 반혁명적공세를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굴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이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영원한 활력이 되어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정신이 오늘의 장엄한 진군길에 줄기차게 이어져 영원한 혁명의 숨결로 맥박치고있는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혁명의 길우에 힘차게 약동하는 《고난의 행군》정신.

이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슴벅차게 느낄 때마다 우리 인민은 **김정일**동지는 고난을 웃음으로 이기는 백두의 령장이라고 하시며 장군의 위엄은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 돋보이게 된다고, 고난을 이기는 장군이라야 진짜 장군이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말씀을 더욱 심장깊이 되새기게 된다.

항일의 고귀한 혁명정신을 영원한 재부로 이어가시는 백두와 령장이신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우리는 언제나 붉은기 높이 제국주의와 세계반동의 악랄한 봉쇄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사회주의승리 만세의 함성을 더욱 높이 울려갈것이다.

본사기자

개신문

-한 미술가의 이야기-

강 철

1

함께 겪는 슬픔은 사람들을 서로 가깝게 하여 주는가싶다.

곳은비 내리던 7월의 그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비애와 절통함이 구천에 사무쳐 산천이 몸부림치던 그 나날에 나는 한 처녀와 사귀게 되었다.

처녀라기보다 차라리 소녀라고 하는것이 더 정확할지, 그때 그는 열에닐곱살나는 중학생이었다. 어느날 저녁이었다.

며칠째 내리던 비도 멎고 서천하늘의 설피설피 갈라진 구름틈사리로 비머금은 해살이 쏙 비쳐나올 무렵 나는 화관을 걸머메고 터벅터벅 개신문계로 나갔다.

왜 나섰는지, 어찌하여 그리로 갔는지 나도 딱히 몰랐다.

개신문은 묵묵히 서있었다. 흡사 만수대를 우러러 무거운 머리를 경건히 숙이고 추모의 인사를 드리는듯싶었다.

어찌보면 한바탕 몸부림치며 쏟아져내린 소나기뒤의 청초하고 단아한 개신문은 만수대를 우러러 실컷 울고난 너인의 모습처럼 초연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개신문앞에 섰다. 문우에 새겨진 글발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옥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아, 한생토록 그리도 멀고먼 길, 험난한 길만을 헤쳐걸으신 우리 수령님!...

등그런 아치문으로는 서천에 지는 해가 마지막으로 뿔어대는 황금빛 액체와도 같은 진한 해살이 한가득차 느릿느릿 흐르고있었다. 그 광선의 흐느낌, 금선의 울림과도 같은 락조의 그 처절한 음향은 서서히 내 가슴을 공명시키고 뜨겁게 달쿠었다. 심장은 툭툭 흥벽을 두드려대기 시작했다. 저 비애의 화폭, 개신문마저 오열에 흐느끼는듯싶은 7월의 이 저녁...

나는 눈을 가느스름히 쪼프리고 그 광경을 뇌리에 깊이 새겨넣으면서 손더듬으로 화가를 세우고 화관을 펼쳤다.

어떻게 그럴것인가.

내가 잠시 생각을 다잡으며 화판우에 손을 몇번 헧그어보고있을 때였다.

어느새 내뒤에 모여섰던 뒤서너명의 사람들속에서 《할아버진 화가였군요.》 하는 처녀애의 속살거리는듯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한 처녀애가 서있었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가름한 얼굴, 희고 맑은 살갗과 대조되는 물기자르르한 까만 눈망울이 나를 마주보고있었다.

(어디서 왔던가?)

나의 눈길에서 물음을 감촉했던지 처녀는 얼굴을 연하게 붉히며 《저, 전번에 기차에서 만났던...》 하고 말끝을 얼버무린다. 그제야 생각났다.

《오, 너 차칸에서 평양자랑하던 애로구나.》

《네.》

처녀는 쑥스러운듯 새뭇이 웃는다.

그것은 몇달전에 있던 일이었다.

그때 나는 작품창작지로 북쪽지방에 출장을 갔다오고있었다.

...렬차가 평양역을 가까이하자 차칸이 샅시에 슬렁슬렁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저, 주체사상탑을 보겠으면 어느쪽을 내다봐야 할때?》

갑자기 나이지숙한 한 녀인이 좌중을 둘러보며 청높이 물었다.

모두 와르르 웃음을 터쳤다.

이때 《어머니, 이쪽에 오시라요.》하는 쟁쟁한 목소리가 울렸다. 보자기에 썬 커다란 바구니같은것을 무릎에 놓고 여적 얌전히 앉아오던 소녀였다. 소녀는 불안간 활기를 띠며 그 북관사투리의 녀인은 물론 곁에 모여든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창밖을 가리키며 이건 무엇이요 저건 무엇이요 라고 열심히 설명해주는것이였다. 그의 어조와 거동에는 수도 평양의 시민된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진하게 풍기고있었다.

그런데 이때였다.

《저 이보오다. 개신문은 어디에 있소다? 안보임때?》

그 녀인이 불쑥 나에게 묻는것이였다.

《예? 개신문이요?》 상념에 잠겨있던 나는 열결

에 엉치를 들며 창밖을 내다보았으나 갑자기 탁
친 일이라 그 무연한 건축의 대군속에서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선뜻 알수 없었다. 소녀가 생긋
웃음지며 《할아버지도 평양에 처음 오시나요?》
하고 물었다.

《나말이나?》

나는 그저 허허 웃고말았다. 모란봉기슭에 태
를 묻고 한뼘 평양과 숨결을 같이해온 나였던것
이다.

그러거나말거나 나의 침묵을 제나름으로 해석
한 소녀는 더더욱 신이 나서 나에게까지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다.

《개선문은 저기 저쪽인데 여기선 잘 보이지 않
아요. 지금 개선문주변엔 갖가지 꽃들이 막 겨름
내기로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살던 촌에 가서 꽃나무모를 가져오는 길이에요.》

《네가 살던 촌이라니?》

소녀는 그만 자기의 실언을 깨달았는지 얼굴을
발갣게 물들이며 새쫓 웃었다. 그러며 《저, 난
사실 지방에서 살다가 작년에 평양으로 이사왔어
요. 아버지따라...》 하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래?》 나는 또한번 웃음을 띄웠다.

지난해 왔으면 그럴만도 한 일이다. 사람들에게
평양소식을 기꺼이 설명해주는 소녀의 그 심
정이 내겐 충분히 이해되었다.

《그런데 그 꽃나무는 어디 심으려고 가져오
지?》

《이거요? 개선문주변에 심으려고 그래요. 우리
집은 개선문옆에 있어요.》

나는 보자기를 해집고 바구니안을 들여다보았
다. 애기손같은 작은 잎들이 다문다문 피어난 작
은 꽃나무모가 땡그라니 놓여있었다.

《가만, 이게 목란꽃나무가 아니냐?》

《네, 그래요.》

《아니 목란꽃이야 모란봉에도 많은건데 그 먼
데까지 가서 날라온단말이나?》

소녀는 대답대신 웃음어린 눈길로 나를 살짝
흘기더니 그 무슨 보물이나 되는듯 바구니를 소
중히 꼭 껴안는것이였다.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그럴만한 일이 있어요.》 하고 제법 어른스레 한
마디했다.

나는 그 《그럴만한 일》이라는 어쩐지 심각해
보이는 사연에 대해서 묻고싶었으나 때마침 열차
는 서서히 평양역에 들어서고있었다. 우리는 제
마끔 손집을 찾아들고 일어섰다...

그렇게 첫 낮을 익힌 처녀였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의 뇌리에는 처
녀가 별로 깊이 새겨지지 않았다. 허나 이날은
어찌된 일인지 처녀가 마치 사진에라도 찍히듯
첫눈에 나의 머리속에 확 날아들어와 박혔다. 아
마 그때 내가 잠재있던 감정상태에 처녀의 몸에서
풍기는 그 호젓한 느낌이 면바로 공진되었던

모양이였다.

나는 그림을 그리며 처녀에게 이것저것 말을
걸었다. 그때마다 처녀는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말씨로 조용조용 대답하곤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씩 듣기 좋은 중음이었다.

날이 어슬팻해질무렵, 화구를 거두어 둘러멘
나는 그와 나란히 걸었다. 마침 그의 집은 우리
집과 같은 방향에 있었다.

《난 평양에서 지방에 나가 살다가 꼭 10년만에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어요.》

마치 인생곡절을 다 겪은 나이 지숙한 녀인처럼
처녀의 목소리는 생각에 잠겨있었다.

거리에는 가로등과 장식등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붉고푸른 불빛은 비젖은 포도우에 미
끄러지며 현란한 무늬를 수놓았다. 무례도전차가
분주히 달려 지나간다.

《난 이렇게 수도의 불빛에 몸을 잠그고 걸을
때마다 마음이 막 별레지군하지요 뭐.》

농작물의 새 품종을 연구하느라 현지로 떠나는
아버지를 따라 우리가 이시간곳은 깊은 산골이
였어요. 옛날엔 너무 궁벽해서 곡식대신 역삼을
심어 삼바를 만들어 팔던곳이라고 이름도 삼골이
라 부른다나요. 거기서도 우리 집은 골짜기 맨
끝집이었어요.

글쎄 양지바른곳에 번듯한 문화주택도 많은데
아버진 부디부디 시험포전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시며 골짜기 막바지에 있는 외딴집을 골라잡으신
게 아니겠어요.

우리 집에서 좀더 올라가면 골짜기 복판을 담
장처럼 빙 둘러막아선 벼랑이 있었는데 오불고불
흘러오던 길은 거기서 끝났답니다. 길이 끝난곳,
난 이따금 거기에 서서 언젠가 유치원때 아버지
를 따라 가보았던 평양의 나라길시작점을 그려보
면서 여기서 거기까진 몇리나 될가 하구 생각해
보곤했어요.

해별이 쟁글쟁글 내려쬐이는 고요한 한낮에 벼
랑에 오도카니 기대서서 숲속에 묻혀버린 오솔길
을 이윽도록 바라보느라 하면 나엔 느닷없이 어찌
하여 어떤 사람들은 길이 시작되는곳에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과 동떨어진것만 같은
길이 끝나는곳에서 살가? 하는 철없는 의문이
떠오르곤했습니다.

저녁에 분교에서 공부가 끝나면 우리 1학년 담
임선생님이 날 집에까지 데려다주곤했어요. 도시에
살던 내가 산골길을 무서워한다구요. 참, 그때
불빛밝은 평양의 이 길이 얼마나 그림던지...

한번은 내가 그 길을 눈물속에 걸은적이 있었
답니다. 일은 이렇게 됐어요.》

...국어공부가 끝난후였다.

뒤책상에 앉았던 되박이마 흥길이가 의기양양
해서 물었다.

《애들아, 너희들 우리 나라길이 어디서 시작되

는지 아니?》

유치원을 갓 졸업한 1학년 아이들은 눈들이 울
통해서 서로 마주보기만 했다.

길도 시작이 있나워?

창가에 앉았던 연희가 조용히 말했다.

《나라 길은 평양 승리거리에서부터 시작된단
다.》

홍길이는 코방귀를 세차게 내뿜었다.

《뭘, 승리거리라고?

애, 넌 모르면 가만이나 있어.

길이 시작되는건 만경대에서부터야.》

《아니야. 내가 아버지따라 가보았어.》

그러자 홍길이는 금시 큰눈에 불을 켜달더니
깃세운 수탉처럼 달려들었다.

《야, 내가 우리 형님 보는 시집을 봤는데 거기에
이 나라의 모든 길은 만경대초가집 사립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똑똑히 써여있었어. 이젠 알
지도 못하면서 쫓딱 나서서, 너 정말 평양에서
살긴 살았덴?》

금시 때릴 기세로 다가들며 다물아대는 홍길이
앞에서 연희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의자
등받이를 꼭 쥐고 앉은 연희는 구원을 청하듯 아
이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여느때 그리도 살갑
던 아이들이 이번엔 웬일인지 서둘러 눈길들을
돌렸다.

《홍길이 말이 맞는것 같애. 만경대를 내놓고
또 어디서 길이 시작되겠니.》

홍길이는 더 우쭐해졌다.

《너 그것두 모르니까 아버지원수님께서 계시는
평양에서 못살구 여기루 왔지.》

연희는 그만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말았다. 때
마침 나타난 담임선생님만 아니었다면 연희는 제
설움에 겨워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있었을는지 모
른다.

아버지원수님께서 계시는 평양에서 못살고 이
산골로 왔다는 그 말이 연희의 어린 가슴에 웅이
처럼 박혀들었다.

그날저녁 딸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은 연구사
립준기는 큰소리로 껄껄 웃었다.

《연희야, 이제 연구사업이 성공하면 배개통만
큼 큰 강냉이를 안고 평양에 가서 아버지원수님
께로 찾아가자. 응?》

그 말에 딸은 비로소 눈물을 닦으며 눈을 반짝
빚냈다.

《정말이나요?》

《그럼 정말아니구.》

《야, 좋아라.》

연희는 언제 울었던가싶게 손뼉까지 짹짹 치며
좋아했다...

《다음날 아침 난 홍길이부터 찾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연구사업이 끝나면 나를
다시 평양으로 간다애. 평양에 가서 배개통만한

강냉이를 안고 아버지원수님을 찾아간다고 했어.
>

집으로 오는 고개길도 더는 무섭지 않았답니다.
난 오불고불한 그 고개길에다 저 소나무는 가로
등, 그앞에 너럭바위는 무쾌도전차정류소 하고
제나름대로 이름을 다 붙여놔답니다.

손님들은 내가 집에서 가지고 놀던 공기돌들이
였습니다. 아침에 학교갈 때 너럭바위앞에다 놔
두고가면 저녁에도 그대로 땡그라니 있지요워.
난 학교에서 올 때면 너럭바위정류소앞에 와서 <
자, 손님들, 이젠 집으로 가시자요.> 하면서 그 돌
들을 주어서 가방에 넣고가곤했어요.》

연희는 제판에도 우스운지 까르르 웃었다.

《호호, 할아버지, 참 우습지요?》

《아니, 우습지 않다. 참 재미있구나. 어서 계속
하렴. 그래 그담엔 어떻게 됐지?》

《아이, 어찌나. 집에까지 다 왔는데.》 하고 연
희는 앞에 있는 고층살림집을 가리켰다.

둘러보니 월향동 올리막길을 거의 다 올라왔다.
이야기에 심취되었던 나는 그의 길이 끝나는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럼 잘 가거라. 후에 또 만나자꾸나.》

《네, 난 매일 꽃가꾸러 개선문에 나가요. 할아
버지, 안녕히 가세요.》

연희는 깃듯이 인사를 하고 사뿐사뿐 뛰어서
고층살림집사이로 사라졌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혼자 빙그레 웃었다.

2

머칠이 지났다.

거리의 인파는 여전히 무겁게 흐르고있었다.
노래소리가 사라져버린 거리, 녀인들의 머리마다
설움의 고드름인양 맺힌 흰 땀방울들이 눈이 아프
게 자극한다.

그즈음 나는 창작적고층에 모대기였다.

왜서인지 그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때때로 붓대를 놓고 저도 모르게 지나간 나의
미술향생을 돌이키며 상념에 사로잡히곤했다.

전화의 날에 그렸던 《진격의 길》, 그후의 《옥
류교네거리》, 《간석지로 가는 길》...

돌이켜보면 나의 창작생활에서 주되는 주제는
길이였다! 그 그림들을 이어놓으면 그대로 어버
이수령님께서 우리 조국을 안고 헤쳐오신 력사의
발자취가 되고 당을 따라 걸어온 나의 인생행로
가 되는것이다. 그런데 우연이랄지 필연이랄지
내가 마지막으로 골라잡은 작품도 바로 개선문이
다. 개선문도 결국은 길로부터 시작된 건축물인
것이다. 그러니 이 작품이야말로 명실공히 내 미
술향생의 총화로 되어야 했고 수령님의 업적을
칭송하여 후세에 웨치는 충효의 결정체로 되어야

할것이었다.

그런데 필생의 력작으로 그려내려고 마음을 단단히 도사려먹은 이 개선문이 좀처럼 제대로 되지 않는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아직 푹푹한 상을 꼴라잡지 못한것이 야단이었다. 여적 초안때문에 이처럼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애를 먹어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무엇때문일까?

알릴듯알릴듯하면서도 딱히 집혀지지 않는 그 무엇이 나를 괴롭혔다.

만고지변을 당한 심장에서 피가 짱그리 말라버렸는가?

그러던 어느날에 연희를 다시 만났다.

저녁무렵, 꽃밭을 가꾸다 호미를 든채 상큼상큼 달려온 연희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하고 갑신 인사를 하더니 내옆에 딸싸 쪼그리고 앉는다. 싱싱한 젊음의 생기와 활력이 주위에 확 풍겼다.

《할아버지, 그림이 잘 되나요?》

《음, 그저 그렇다.》

나는 심드렁하니 대답했다.

《야, 멋있네. 아이, 그런데 내가 심은 꽃나무는 나오지 못했구나.》

《네가 심은 꽃나무라니.》

그러고보니 생각났다.

《참, 그런데 전번의 그 꽃나무는 어찌된거냐. 그 애기나 듣자꾸나.》

어차피 그림그리기는 틀린수라 나는 붓대를 놓으며 언제부터 궁금하던 그 《그럴만한 사연》에 대해 물었다.

《그거요?》

연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맑고 그윽한 그 고운 눈가에 일순간 한줄기 물기가 사르르 흐르는것을 나는 보았다...

《아버지와 의 그 잊지 못할 약속이 있는 날 저녁부터 내겐 아버지의 연구사업이 더는 무관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철모르던 나는 사흘이 멀다하게 아버지에게 연구사업이 언제 성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사업이 성공하는 날이면 내가 평양에 가는 날이고 평양에만 가면 틀림없이 아버지원수님을 몸가짜이에서 뵈울수 있을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원수님을 만나뵈우면 인사는 어떻게 올리고 무슨 말씀을 드릴까.)

나는 종종 공상속에 그날을 그려보았습니다.

어느새 내겐 공부가 끝난후이면 아버지의 시험포전으로 달려가 하루가 다르게 파릇파릇 돌아나 푸르싱싱하게 변모되어가는 강녕이의 모습을 점도록 들여다보곤하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해쫂는 아침에 별뜨는 저녁에 초막에서 산짐승들을 쫂느라 밤을 지새는 아버지에게 밥보자기를

들고 달랑달랑 뛰여가는것도 하나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오, 우리 연희가 왔다.> 아버지는 나를 반기며 법석 안아올려서는 꺼칠한 턱수염으로 내 볼을 슬슬 문다져줍니다.

<아이, 아파 아버지.> 나는 깨득깨득 웃으며 아버지의 품안에 머리를 꼭 들이박곤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내려놓으면 땅바닥에 보자기를 펴놓고 조약돌로 네귀를 지질러놓은 다음 엄마가 가르쳐준대로 밥은 왼쪽에, 국은 오른쪽에 하나하나 차려놓습니다. 아버지는 후룩후룩 맛있게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면 나는 발에 가서 아버지가 뽑아낸 물을 열성스레 발머리로 날라내왔습니다.

아버지가 식사를 마치시면 나는 물이 식을세라 한손으로 품속에 꼭 껴안고있던 물병에서 물을 따라 두손으로 아버지께 정히 권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카-> 하고 눈을 찡긋 하시며 <우리 연희 부어주는 약주 맛있구나.> 하고 내 볼을 톡톡 다독여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은 흘렀습니다.

인민학교 1학년생이던 나는 어느덧 중학교 3학년생으로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으나 림준기의 연구사업은 좀처럼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언제부터였던지 그의 관자노리에는 희끗희끗 흰서리들이 불리기 시작했다.

얼굴에서 점점 웃음이 사라져갔다.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어느날 저녁무렵이었다.

림준기는 하루일이 끝났으나 집으로 돌아갈념을 하지 않고 이윽도록 초막에 앉아 담배만 붙여물었다.

연희는 초막문가에 쪼그리고 앉아 푹푹 떨어지는 락수물을 손으로 받고있었다. 한웅큼 받아선 쪼르륵 쫂아버리고 또 손을 오무려 내대고... 그러기를 몇번이나 했는지, 아버지와 딸은 서로 말이 없었다. 졸락졸락... 연희의 손바닥에 떨어지는 물방울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리며 이 지루한 정적을 깨뜨려보려고 헛되이 무진 애를 쓰고있었다.

림준기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다 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크느라 그러는지 혈끔하고 강충해보이던 딸이었다. 그런데 이젠 어깨가 동실해지고 얼굴도 봄날에 물기머금은 꽃망울처럼 보얗게 살이 오르며 피어나기 시작했다.

칠칠한 검은 머리가 윤기를 뽐는다.

(세월은 참 빠르기도 하구나.)

불시에 가슴이 찌르르해지며 서글픈 애수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서려든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단말인가.

연구사업은 점점 그 끝이 묘연해져만 간다. 자기가 이제 늙었고 무력하다는 생각이 탄식처럼 갈마들었다.

《연희야.》

림준기는 느닷없이 딸자식을 불렀다.

갈린 목소리였다.

《네?》

연희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네?》 그 어떤 재난의 예감과도 같은 불안이 마음을 오싹하게 했다.

《넌 내가 한평생 이 산골에서 헛고생하다가 혹시 속절없이 생을 마친다 해도 날 원망하지는 않겠지?》

연희는 그만 목이 짹 메여와 대답을 못하고 얼른 얼굴을 외로 돌렸다. 저도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견잡을수 없는 오열이 솟구쳐올랐다.

그러나 연희는 애써 울음을 참았다.

그는 벌써 처녀였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동정해주고 어루스다듬어줄 줄 아는 녀성의 성정이 그의 작은 가슴에서도 눈뜨기 시작했던 것이다.

연희는 치받쳐오르는 울음을 강잉히 누르며 돌아앉은채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난 다 알아요.

그게 왜 헛고생이겠나요. 아버지가 못다하시면 제가 있잖아요. 그러구 난 이제 평양에 다시 못가도 좋아요. 여기서 아버지를 도울래요.》

《고맙다. 연희야.》

림준기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정겹게 쓰다듬었다.

후- 가슴에 섰도는 갈래많은 번민이 긴 숨을 타고 흘러나와 초막안에 퍼졌다...

《그날밤 나는 잠자리에서 남몰래 혼자 울었습니다.

연구사업을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아버지를 도와드리지 못하는 자신이 막 안타까웠습니다. 보다 무서운것은 신심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쟁그리 빠져버린것 같은 그 허탈하던 몸매, 피로움으로 헝클어진 맥없는 목소리, 숲속의 오솔길처럼 여기서 맥없이 끝나버릴것만 같은 아버지의 인생에 대한 우려, 그것은 온밤 무서운 상념이 되어 꿈속에서도 나를 괴롭혔습니다. 아버지도 그밤엔 잠들지 못하시는 지 밤길도록 불이 켜진 옷방문틈으로는 담배연기만 물물 새어나오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로운 마음의 고통이 이날로 마지막이 될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환히 웃고계셨다. 이 이름없는 산골, 이 초라한 농막과 변변치 않은 이 한때기 시험포전이 그리도 기쁘실가.

태양의 웃음이었다. 어둡고 고즈넉하던 골안은 금시 밝은 빛발에 휩싸여 우줄우줄 춤추며 일어

서는듯싶었다.

주변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다가 여기에 강냉이 새 품종을 연구하는 연구사가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다른 일을 다 뒤로 미루시고 찾아오신 수령님이시였다.

《좋은 일ियो. 난 이런 동무들을 만날 때가 제일 기쁘거든.》

시험포전밭머리를 거니시면서 수령님께서서는 허리치게 지란 강냉이잎새들을 정겨이 쓰다듬어보시였다.

그 손길앞에... 림준기는 울고있었다.

수령님을 모신 첫순간에 터져오른 눈물이었다.

아, 이 꿈같은 시각 아버지수령님께 성공의 기쁜 보고를 드릴수 있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인간이랴.

헛되이 흘러보낸 지나간 나날들이 파편조각처럼 아프게 가슴을 저미며 파고들었다.

침체했던 자신의 넋을 갈기갈기 찢어 내팽개치고싶은 안타까운 속죄감이 가슴속에 바질바질 타끓으며 몸부림치고싶도록 오열을 몰아왔다.

밭가장자리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류달리 키가 작은 대가 구부러든 부실한 강냉이가 한그루 있었다. 언젠가 림준기가 슈아버리다가 그냥 둔 것이였다.

그것을 보신 수령님의 안색에 한줄기 시름이 스쳐지나시는듯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여전히 너그럽게 웃고계셨다. 웃으시면서 그 강냉이잎새도 정겨이 매만져주시였다.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그 침묵이 림준기의 가슴을 더욱 한줄기로 졸아들게 했다. 저런 못난 꼴을 보여드리다니...

억이 막혔다. 죄스러웠다.

《수령님, 뵈울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넋나간 사람처럼 몇번이고 이 말만을 되뇌였다.

허나 수령님께서서는 오히려 크게 웃으시며 그를 고무하시였다.

《일없소. 어떻게 첫술에 배부르겠소.

그보다도 난 여기에 동무가 와있다는 그 사실이 더 기쁘오. 그게 내겐 힘이 되거든.

난 동무를 믿소.

실패란것은 주저앉은 사람에겐 실패로 끝나지만 신심을 잃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겐 성공의 디딤돌로 되는 법이요. 그렇지 않소? 연구사동무.》

《수령님!》

림준기는 마침내 참고참았던 격정의 눈물을 좌르르 쏟고야말았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흐느끼는 그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소극적으

로만 하지 말고 자신께서 농업위원회에 말해주겠으니 지역별로 한 댕군데 땅을 푹 떼서 한번 통이 크게 해보라고 따뜻이 가르쳐주시었다. 그리고 장차 이 답답한 벼랑굽이도 푹 까던지고 령너머로 넓은 길을 열어서 자동차와 트랙터들이 비료와 농작물을 싣고 썩썩 달리도록 하자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었다.

《여기엔 동무가 있으니 난 마음을 놓고 또 다른곳으로 가보겠소. 우리 나라엔 아직도 이런 산골들이 많거든.

연구사동무, 우리 함께 동무는 나를 돕고 나는 동무를 도우면서 이 좋은 인민이 사는 내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해 더 밝은 앞날을 위해 힘껏 일해가자구.》

림준기의 가슴은 금시 터질것만 같았다. 불길과도 같은 열광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그 열광에 도취되어 정신이 아찔한 가운데 림준기는 전신에 산악처럼 뻗쳐가는 거대한 힘과 심장에서 길길이 솟구치는 뜨거운 피의 분수를 의식했다.

떠나시기에 앞서 수령님께서는 그 키작은 강냉이앞에 다시 걸음을 멈추시었다. 그리고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시다가 림준기를 돌아보시며 환히 웃으시었다. 천만마디를 대신하는 웃음이었었다.

그 미소는 림준기의 생의 좌표, 온 녀과 육신을 짱그리 다 바쳐 기어이 이룩해야 할 한생의 그 목표를 정해주는 등대빛이었었다.

수령님께서 떠나가신후 림준기는 수령님의 손길이 어려있는 그 강냉이포기앞에 무릎을 꿇었다.

(강냉이야, 내가 너를 버릴번했구나. 우리 함께 일어서자. 일어서서 기어이 큰 이삭을 맺어 우리 수령님 더 밝게 웃으시게 기쁨을 드리자.)

저녁에 학교에서 이 소식을 전해듣고 학급동무들과 함께 두주먹을 부르짖고 달려온 연회는 그것이 사실이라는것을 확인하자 웃음반 울음반으로 발을 동동 굴렀다.

연회는 고개마루로 달려올라갔다.

저멀리 령너머로 굽이굽이 땡기처럼 흘러간 길, 아득한 그 한끝에 어버이수령님께서 타신 차가 금시 보이는데싶었다. 연회의 두볼로는 뜨거운눈물이 하염없이 샘솟아 흘렀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이제 또 떠나시면 이 저녁 진지는 어데 가서 드실가. 떠나면 이 산골에서 쉬실곳은 또 어데 편한곳이 있을까?)

목메이는 그리움과 고마움속에 연회는 그만에야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주저앉았다. 그 눈물속에 연회는 여기 삼골이 결코 세상과 동떨어진 외진 곳이 아니며 무수히 갈래많은 이 나라의 길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뻗어가는가를 어렴풋이나마 깨달았다. 언젠가 홍길이가 하던 말이 생각났

다. 그건 괜한 웅고집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것이 이 나라의 길에 대한 정녕 옳은 주장이 아닐가.

옆에서 연회를 민망스레 쳐다보던 홍길이가 어느새 변성되기 시작하는 굵은 목소리로 《자, 이제 그만 그쳐라. 애들아, 우리 아버지원수님을 모셨던 그 영광의 발머리에다 기념으로 목란꽃나무를 떠옮겨심자.》 하고 호소했다.

아이들은 와! 하고 호응했다. 이리하여 이날밤 시험포전발머리에는 목란꽃 한그루가 정성껏 옮겨졌다.

금시 꽃망울을 터뜨리려는것이였다.

달빛아래 백옥의 덩이인양 하얗게 빛나는 꽃망울을 바라보며 아이들은 두손으로 한웅큼씩 흙을 떠서 정히 뿌리를 덮었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과 믿음을 안고 저저마다 목란꽃송이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려는 삼골마을 아이들의 소박한 지향이였고 맹세였다.

아이들과 함께 크고 두터운 어른의 손으로 꽃나무둘레의 흙을 쾅쾅 다지는 림준기의 눈에는 더운 물기가 자꾸만 샘솟아 흘렀다. 이날은 정녕 그가 나이 선을 넘어서 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였다.

다음날부터 림준기의 온몸에서는 젊은 날의 그 자신만만하던 패기와 열정이 다시금 되살아올랐다. 아니 그보다 몇배나 더 희열과 락관에 넘쳤다.

배나 넓어진 시험포전에서는 과학원 당조직의 결정에 따라 림준기의 연구사업을 돕기 위해 달려온 여러명의 연구사들과 조수들이 분주히 오갔다.

홍길이네들도 방과후마다 일손을 도우려 달려왔다. 림준기는 그들을 모두 주관하느라 어느새 어데 가서 새까맣게 물들이고 온 긴 머리칼을 펄펄 흘날리며 이쪽저쪽으로 드바빠 뛰어다녔다.

때로는 며칠씩 기차를 타고 다른 지방에 심어놓은 시험작물을 보러가기도 했다. 갔다가 돌아와서는 연구소의 동료들앞에서 희색이 만면하여 두손을 썩썩 마주 비비면서 《멋있어. 거기도 참 멋있어. 아 참, 이렇게 하면 되는걸...》 하고 큰소리로 떠들군했다.

그러하여 마침내 성공의 그날은 왔다. 3년후 림준기는 끝내 중간지대기후풍토에 맞는 견딜성이 강하고 수확량이 높은 새 강냉이품종을 연구해내는데 성공하고야말았다.

림준기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학박사 학위를 수여할데 대한 정령이 발표되였다.

이듬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농업부문 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다가 새 품종강냉이를 전국적범위에서 연구완성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그 기술적지도를 위하여 실을 하나 따로 내오고 림준기를 그 실장으로 사업하도록 조치를 취

해주시었다. 림준기는 평양으로 소환되었다.

고등중학교졸업반이던 연희도 전학증명서를 떼가지고 겨울도록 온몸을 적서주는 크나큰 행복과 기쁨에 휩싸여 이사집을 가득 실은 자동차운전칸에 앉아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마침내 그림고 그림던 수도의 품, 사랑하는 평양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길은 해빛이 차넘치는 넓은 길이었다...

《그런데...》 연희는 호- 하고 긴 한숨을 내그었다. 가슴이 꺼지는듯한 한숨이었다. 아, 그 한숨엔 얼마나 큰 애달픔과 끝내 이룩하지 못한 소원에 대한 야속함이 깃들여 있는것인가.

헤여질 때 그리도 부러워하며 자기네를 대신해서 아버지대원수님께 꼭 인사를 드려달라고 당부하던 아이들, 수령님 가시는 길에 향기를 풍기게 해달라고 울봄에는 뜻깊은 그 나무에서 번식시킨 목란꽃나무모까지 평양에 보내준 삼팔마을아이들과의 그 약속은 영영 실현할 길이 없는것인가.

나는 저도 모르게 눈앞이 흐려와 얼굴을 돌렸다. 이럴 때 정녕 무슨 말을 할수 있단말인가?!

3

그후부터 나와 연희는 더욱 자주 만났다. 그가 가꾸는 목란꽃나무와 내가 그리는 그림에 하나로 흐르고있는 그것,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은 우리를 혈육처럼 친근하게 하여주었다. 우리는 서로 오랜지기처럼 무렵없는 사이가 되었다.

근 50여년의 년령적차를 둔, 인생의 종착점에 도달하는 늙은이와 바야흐로 인생의 새 출발을 서두르는 사춘기 처녀사이의 기이한 우정이었으나 우리는 나이때문에 별로 구속감을 느끼지 않았다.

연희는 마치 나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랐고 나는 나대로 귀염성스럽게 놀면서도 속이 오지게 깊은 연희를 내 친손녀처럼 사랑해주었다.

그러는가운데 몇달이 흘러 연희는 어느덧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였다. 그는 어느 공예단의 보석공예사로 배치되었다.

이것은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하여주었다. 이를테면 연희의 말마따나 《동업자》로 된셈이었다. 직장에서 연희는 6개월짜리 미술기초강습에 들어갔다. 일종의 기능공양성소와 같은것이였다. 나는 기꺼이 연희의 방과후의 개별교수가 되었다. 연희는 그림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 빨리 개선편을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석화로 잘 형상하겠어요.》

《오냐, 그렇게 하자.》

이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다.

날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작품의 운명을 놓고 우려와 불안, 근심과 걱정이 눈덩이 불어나듯 자꾸만 더 커갔다. 그사이 가방안에는 초안만 가득 붙어났다. 그속에는 몰아치는 비발속에 거연히 일떠서는 개선편도 있었고 단풍든 가을날의 명상에 잠긴듯한 개선편, 눈내리는 겨울날 백두광야를 추억하는듯싶은 개선편도 있었다.

그 어느 초안도 버리기 아까웠지만 또 어느 초안도 독자적인 작품으로 완성하기엔 무언가 부족한 감이 들었다.

길, 길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나는 화폭의 중심에 개선편밑으로 멀리 뻗어간 길을 보면서 두고두고 고심했다. 여기에 많은 미술언어가 깔려서 작품의 큰몫을 맡아주어야 할텐데 내자신부터가 그 길에 대해 큰소리로 웨칠 확고한 미학적 주장과 견해가 부족했던것이다. 한번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연희에게 말을 걸었다. 행여 무엇인가 창작에 보탬이 될만한것을 찾아낼수 있을가 해서였다.

《연희야, 넌 이 그림의 개선편밑으로 뻗어나간 길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지?》

《그야 아버지대원수님께서 걸어오신 멀고도 험난한 혁명의 길을 생각하게 되지요嘛.》

《그 다음엔?》

《그담엔... 음... 잘 모르겠어요.》

하긴 그에게서 이 미묘한 문제의 답을 바라는 것은 좀 지나친 욕심일것이었다. 어쨌든 그는 첫 발자국을 내디딘 기적해야 이제 소묘를 갖 배우기 시작한 미술의 초학도에 불과한것이다.

그럭저럭하여 새해도 한달나마 지났을무렵 나는 가까스로 고충많은 나의 그림을 완성해낼수 있었다.

그것은 불빛밝은 수도의 밤 고요히 내리는 추억의 눈발속에 숙연히 서있는 개선편의 야경이였다.

힘들게 그린 그림이었으나 아직도 내 마음에 가득할 정도로 자신있는 그림은 아니였다.

화폭에서 붓을 떼던 날 나는 미술동료들보다 먼저 연희를 생각했다.

연희가 이 그림을 보고 무어라 할가.

연희야말로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 관객이기도 하고 또 미술에 일정한 리해가 있는 자칭 《동업자》이기도 하고 그런가하면 작품에 깃든 내적인 생활로 서로 얹혀져있기도 한 충분히 이 그림의 첫 감상자가 될 대상이었던것이다.

채색작업을 하느라 오래동안 화실에 붙박혀있다니니 그를 만나본지도 퍼그나 되었다. 나는 연희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그의 집에서 들려온 대답은 너무나 뜻

밖의것이였다.

《연회는 요새 며칠째 이동수숙을 하느라고 바빠 나돌아다닙니다.》

《이동수숙이라니요? 그럼 연회가...》

《네, 그런 일이 있어서... 나도 새로운 연구과제때문에 출장나갔다 어제 왔는데 여기 연회가 화가선생님께 남기고가는 편지가 있군요. 그렇잖아도 이걸 전달하려고 한번 찾아가려던 참입니다.》

《?!》

나는 도무지 영문을 알수 없는 어정쩡한 가운데 수화기를 놓았다.

그날저녁 림준기가 퇴근길에 우리 집에 들러 편지를 내놓았다.

꽤 두툼한 봉투였다.

《미술가할아버지 앞, 림연희올림.》

겉봉에 또박또박 박아쓴 글씨를 보는 순간 나는 은연중 마음이 긴장해지는것을 느꼈다. 웬일인지 림준기도 사연을 말할대신 빙그레 웃으면서 우선 읽어보라고 권하는것이였다. 나는 봉투를 뜯었다.

《미술가할아버지 보아주세요.》 이렇게 녀성적인 친절로 시작을 뻔 편지는 서두에 나의 안부와 작품의 추진정형에 대해 간단히 묻은 다음 계속해 썼다.

《할아버지, 여기 평양으로 이사오던 날 드넓은 거리의 한끝에서 화려한 수도의 모습이 황홀하게 솟아오르며 환희의 미소를 보내줄 때 저의 눈앞엔 문득 잊지 못할 그 저녁 어버이수령님께서 타신 차가 달려가던 굽이많은 산촌의 그 고개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의 넓은 길로 들어서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지금 또 어느 험한 길을 걷고 계실가.)

이렇게 생각하니 지금껏 알면서도 모르고 지냈던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로고가 다시한번 바다처럼 무겁게 가슴에 안겨들면서 그이께서 걸으시는 현지지도의 참의미가 깨달아졌습니다.

우리는 그길로 개선문을 찾았습니다.

그날의 개선문은 단순한 석조건축물만이 아니였습니다. 항일혁명의 20여성상만을 상징하는 기념비만도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수천수만리 먼먼 길을 걸으시며 찾아내시여 품어주시고 키워주시고 꽃피워주신 수많은 인생들이 티없는 진정으로 쌓아올린 한없는 감사와 고마움의 탑이였고 인간사랑의 그 위대한 빛발을 칭송하는 영생불멸의 송가였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저는 가슴속 가장 귀중한 진정을 개선문아래 고이 묻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그후부터 개선문옆에 꽃나무도 심고 날마다 꽃을 가

꾸는것을 큰 보람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저는 그것만이 제가 해야 할 일의 전부가 아니라는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 자손들 눈물을 거두고 세월이 무궁토록 부디 행복하게 살라고 마지막 그 길마저 환히 웃으시며 여기 개선문을 떠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영상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목메이는 그리움속에 무엇인가 할바를 다 못하는것만 같아 죄스런 심정이였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자신도 미처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어버이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추억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게 간직하는것일가.

저는 이 문제를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전 저는 텔레비죤으로 멀고먼 전연초소의 한 녀성해안포중대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뵈게 되었습니다.

20여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너지시였다는 그 초소를 찾으시여 수령님께서 앉으셨던 바로 그자리에 앉으시여 군인들의 소박한 예술소조공연도 그날처럼 다시 보아주시고 수령님께서 걸으신 해안포진지길도 걸으시는 장군님의 안색에는 감회깊은 추억이 깃드신듯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에는 또다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자육이 어린 한 해군구분대를 찾으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겨울의 차디찬 바다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면서 끊임없이 걷고걸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숭고한 영상을 우러르면서 저는 많은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인민을 찾으시는 수령님의 거룩한 현지지도의 길은 끝난것이 아니였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끊임없이 빛나게 이어지고있었으며 그 길에서 새로운 인간들의 대오는 자라나고 기적과 혁신, 위훈은 계속 눈부시게 꽃피어나고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결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걸어야 할 길을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길이 끝나는 삼골막바지에서 여기 평양으로 온 저의 기쁨과 행복의 길은 여기서 끝난것이 아니라 투쟁과 위훈의 길로 계속 보람있게 이어져야 할것이였습니다. 흠모와 칭송으로 노래만 부를것이 아니라 투쟁과 노력으로 그 뜻을 꽃피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수령님에 대한 진정한 흠모이고 가장 값높은 칭송이며 충심으로 되는 효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의 정든 수도 평양을 떠나 삼골 농장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기 홍길동무네랑 청년분조를 조직하고 벼랑을 까내고 길을 넓히면서 새 생활을 개척하고있다는곳에 가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땅에 아버지가 연구해낸 새품종강냉이로 만풍년을 이룩하고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께서 찾아오시는 날 기쁨과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랑을 안고 여기 뜻깊은 개선문을 찾는 날 미술가할아버지를 찾아 뵈겠다는것을 약속합니다...》

글줄은 계속되었으나 나는 편지를 더 읽을수 없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자꾸만 눈앞이 흐려져왔다.

(이 기특한 처녀애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

가슴에선 사랑스런 연회를 담썩 안아라도 주고 싶은 애뜻한 정과 미더움, 대견함이 하나로 되어 뒤섞였다.

나는 림준기의 손을 덥석 잡았다.

《장합니다. 정말 훌륭한 딸을 두었습니다.》

《뭘요. 이 시대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지요.》

사색깊은 목소리로 말하는 림준기의 얼굴도 붉게 상기되어있었다.

《가만, 그러니까 연회가 벌써 떠났는가요?》

《아니, 래일 아침에 떠납니다. 개선문에서...》

다행이었다. 그 기특한 처녀를 다시 만나볼수 있고 떠날 때 손이라도 잡아볼수 있다는 생각이 거의 행복에 가까운 기쁨으로 가슴속에 솟구쳤다.

다음날 아침, 나는 마누라가 밤새워 준비한 음식과 객지생활에 필요한 내의류며 생활필수품들을 보따리에 한아름 싸안고 이른아침에 집을 나섰다.

이날의 첫 공기는 차고도 맑았다.

나는 마치 젊은 날 그랬던것처럼 찬 공기를 한껏 들이쉬며 뚜벅뚜벅 기운차게 걸었다. 길차비를 한 연회를 둘러싸고 아버지와 어머니, 직장과 구역의 청년들이 한떼나 몰려서 우르르 함께 오고있었다. 아마 간단한 환송의식이라도 조직된 모양이었다.

그러건말건 나는 무작정 달려가 연회의 손을 덥석 마주잡았다.

《장하다, 연회야. 허참, 난 그런줄은 모르고...》

무언가 힘이 될 뜻깊은 말을 해주려고 밤새 별렀으나 만나자 나오는 첫마디는 맹랑한것이였다.

《그래 평양을 떠나기 서운치 않느냐?》

말하고보니 이것 역시 전혀 당치 않은 로망스런 물음이란 생각이 들었으나 이미 옆지른 물이였다.

연회는 생긋 웃었다.

《첨엔 좀 서운한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먼데 가서 일해도 평양과 하나로 이

어진 길우에 있다고 생각하니 일없어요. 어떻게 말할까.

참, 그 노래에도 있잖나요. 그대가 크나큰 심장이라면 이몸은 그 품에 뛰는 피방울... 하는거요. 호호.》

연회는 구김새없이 웃었다.

우리도 모두 따라웃었다.

아, 노을빛을 함뿍 머금은 연회의 얼굴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것인가.

우리는 꽃송이같은 연회를 가운데 세우고 잎새들처럼 빙 둘러서서 활기에 넘쳐 걸었다.

바야흐로 태양이 장엄하게 솟아오르고있었다.

불타는 노을은 대지를 뜨겁게 달쿠며 휩싸안았다.

개선문앞에서 나와 연회는 약속이나 한듯 걸음을 멈추었다. 연회가 준비해가지고 온, 꽃다발들중에서 한다발을 개선문아래 정히 놓았다. 꽃송이는 불꽃처럼 눈부시게 타올랐다. 그것은 그대로 연회의 녀인듯, 심장인듯싶었다.

우리는 개선문을 우러러 섰다.

노을에 젖은 개선문은 우렷하게 솟아오르며 한없이 신비롭게 빛났다. 그 밑을 지나 만수대로 잇닿은 길은 태양을 마주 향해 즐기차게 뻗어갔다.

개선문의 동그런 아치문으로 바라보이는 첫 아치의 만수대, 만수대는 얼마나 숭엄하고 눈부신 황홀경의 세계인가.

일렁이는 붉은 노을의 바다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거룩히 서시여 해쫓는 새날을 손들어 가리키고계셨다. 간밤에도 머나먼 현지도의 길을 걸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방금 여기 개선문을 나서시여 또다시 새날의 새길을 가리키시는듯...

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을 세차게 들때리는 강렬한 충격에 몸을 흠칫 떨었다.

(바로 저것이다. 개선문은 길이 끝나는곳이 아니라 새길이 시작되는곳에 서있는것이다.)

여직껏 무언가 알듯알듯하면서도 모르고있던 그것, 잡힐듯잡힐듯하면서도 잡히지 않던 그것이 불현듯 아침의 해살처럼 환하게 내 가슴에 안겨들었다.

개선문을 나서는 첫걸음에 우리 눈에 어려오는 모습은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미래를 향하여 손들어 가리키시는 숭엄한 영상인 것이다.

어제와 잇닿아 열려있는 개선문은 래일을 향해서도 활짝 열려있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어찌하여 개선문에 진달래꽃송이만이 아닌 진격의 나팔수를 새겨넣도록 하셨는지 그 깊은 뜻이 사무치게

가슴에 새겨졌다. 나에게는 그 개선문밑으로 만
풍년의 이삭을 한가득 안은 연희가 태양의 빛에
휩싸여 웃으며 걸어오는것이 보이는듯싶었다. 그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개선문을 뜻깊게 장식하는
한떨기 아름다운 꽃송이였다. 그리고 그것은 미
술가로서 내가 그려야 할, 개선문아래 꽃피난 새
시대 인간의 진정한 화폭이였다.

나의 온몸의 혈관에는 젊은 날의 더운 피가 세
차게 줄달음쳤다.

자신이 70객의 고령이 아니라 새날의 청춘으로
다시 환생하는 시각이였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꾸어주셨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꽃피우시는, 이 땅의 벽찬
생활속에서 투쟁으로 이어지는 인생들은 끝을 모
르는것이다.

나는 이제 자기가 해야 할바를 깨달았다. 우선
신들메를 조이고 연희가 일하는 삼골농장으로

찾아가 새세대 청춘들의 불타는 투쟁모습을 화폭
에 담아야 했다. 그러자면 서둘러야 했다.

연희와 나, 림준기는 서로 손을 맞잡고 새로운
맥박과 호흡을 가슴벅차게 느끼며 개선문을 지
나 첫발을 힘있게 내짚었다. 개선문의 높은곳에
서 빛나는 숭엄한 글발이 기운차게 걸어가는 우
리들의 가슴속에 종소리처럼 은은히 울려오고있
었다.

만주별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림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그것은 영원한 메아리였다.

로병이 넘겨줄것은...

방만필

군복 입고 초소로 떠나는
손자를 바래우며
내 생각하노라

젊은 병사들에게
로병이 넘겨줄것은 무엇인가
위훈 깃든 훈장인가
색날은 배낭인가

아니면
화약내 습배인
총가목인가
포연에 끌들은
기발인가

정녕 무엇인가
로병이 넘겨줄 유산은
포연서린 전호가에서 수료한
맹세문인가
육박전으로 달려가며 웨치던
만세의 함성인가

락동강 모래불이
그 얼마나 뜨거웠고
전우들 잃었을 때 가슴아픔이
그 얼마나 모질었던지
그것을 알게 해야 하는가...

총대에 새겨진것
군복에 깃든것
투사들 넘겨준 배낭에 담긴것
그것은 어제도 오늘도
수뇌부 결사옹위정신

그 신념이 있어
한몸이 수류탄으로
폭탄으로 작렬하며
이 땅을 피로 물들이었고

그 정신 지켜 오늘도
찬이슬 내리는 전호가에
청춘을 바치고 한생을 바치며
우리 함께 서있는것 아니더냐

오 젊은 세대들이여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조국도 있고
승리도 있다는 신념
군복입은 이 한생이 넘겨주는
모든것이거니

그 신념
그 정신
그 총가목을 틀어쥐고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해 한목숨 바칠
그 길에 우리는 영원한 병사여라!

기다리는 계절

한웅빈

《할아버지, 쑥쑥새가 올 땐 정말 힘이 쑥-쑥- 빠지나?》

《누가 그러더냐?》

《어른들이, 그래서 새도 쑥-쑥-쑥 하고 운대.》

《아니... 아니다. 쑥쑥새가 올 때는 곡식들이 쑥-쑥- 자란단다. 그래서 쑥-쑥-쑥-하고 우는거다.》

《그럼 정말 좋은 새지, 할아버지?》

《그럼.》

이고장 사람들은 외쭉독이를 《쑥쑥새》라고 부른다. 늦은 봄과 초여름의 밤들이면 오이썰는듯한 기묘한 소리로 울곤하여 외쭉독이라는 매우 형상적인 이름을 받은 새에게 그들은 쑥쑥소리를 그대로 이름으로 붙여버린것이다.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이곳에 온 성우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우습기도 했고 어처구니없기도 했다. 개를 보고 멍멍이, 고양이를 보고 야옹이라고 하는 유치원식 이름처럼 들려서였다.

그러나 지난해 모내기가 거의 끝나가던 늦은 봄날 밤에 박령감과 그의 손자애가 주고받는 말을 들은후부터는 《쑥쑥새》라는 이름이 한량없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쑥쑥새가 우는 때는 사실 농사일이 가장 바쁘고 힘든 때이다. 날은 무더워지고...힘이 쑥-쑥-빠진다. 그러나 쑥쑥새는 쑥-쑥 빠진다고 해서가 아니라 곡식들이 쑥-쑥- 자란다고 해서 그렇게 운다. 얼마나 좋은가!

정말 외쭉독이가 우는 때는 곡식들이 쑥-쑥-자라는 때이다. 그놈은 하늘중천에 몸을 걸친 종다리가 구슬같은 소리를 아낌없이 온 들판에 휘뿌려놓고 제비들이 방축길 전선줄에 악상기호처럼 매달려 연주회를 벌일 때도 그 《합창》에는 애당초 끼워들지부터 않는다. 강녕이영양단지가 다 옮겨지고 논들이 푸른 네모로 거의 다 덮여갈 때야 쑥-쑥-쑥 하는 특이한 소리로 초저녁과 새벽의 정적을 흔들어놓는다...

그 말을 들은후부터 성우에게는 달빛이 깔린 벌에 울려퍼지는 그 소리가 곡식들이 쑥-쑥-자라는 소리로 느껴지기도 했었다.

엇저녁 남은 모춤들을 수로에 담그어놓으며 성우는 문득 박령감과 그의 손자가 하던 이야기를 생각했고 부지중 쑥쑥새소리가 들리지 않나하여 귀를 기울여보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아직은 쑥쑥새가 올 계절이 아니다. 종다리가 봄의 해살속을 헤엄치고 제비들이 프락프르쩌레날 뒤를 화살처럼 추격하고있는 모내기철이다. 들판은 거래한 거울로 변한듯 흰구름 떠가

는 하늘을 담고 번쩍이는 물밑에 누워있다.

얼마전까지만 바라만보아도 흐뭇하던 거름더미, 흙더미들은 모두 그 《거울》밑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지금의 들판을 보고는 지난해보다 거름을 정보당 열톤씩 더 냈다는것도, 또한 매 포전마다에서 《올해가 어떠해요? 토지개혁 싼뎡이 되는 력사적인 해요! 우리가 이 포전들에서 휘날려야 할 붉은기는 높은 거름더미며 풍년날알이요!》하는 관리위원장, 작업반장, 분조장들의 싼목소리가 떠날줄 몰랐다는것도, 《이러단 흙이 보이지 않게 되겠는걸!》 하였을 정도로 거름더미들이 가득차있었다는것도 알수가 없다. 그저 여느해와 다름없는 논이며 밭일뿐이다. 이 벌에 얼마나 많은 땀과 정력이 부어졌는가는 쑥쑥새가 울게 될 그밤들에 그리고 은하수가 머리우를 흘러가는 가을에 알려질것이다...

물로 덮여 번쩍거리던 벌은 벌써 반나마 푸른 주단으로 덮였다. 푸른 빛은 통탕거리는 프락프르소리, 통통대는 모내는 기계소리를 앞세우고 범람하는 물결처럼 들판을 점령해나가고있다. 프락프르와 모내는 기계소리는 시간마다 벌의 한쪽 기슭으로 밀리워가고있다. 모내기가 끝난 논배미들에는 논고의 조용한 물소리와 어린 벼모들의 조심스런 살랑거림으로 충만된 의미심장한 정적이 깃든다.

그리고 논두렁들에는 정적의 파수병들인듯 삽자루를 멘 물관리원의 명상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때부터 그곳은 물관리원들의 《령지》이다. 모내기가 끝난 논두렁에서는 그들이 최고의 권력자인것이다...

《야, 빨리 가자! 빨리!》

째랑째랑 울리는 목소리에 성우는 허리를 폈다. 그는 논머리의 빈자리들에 모를 꽂아넣고있었다.

조꼬맹이들 셋이 학교쪽에서부터 총알처럼 달려오고있다. 맨앞에 선 녀석은 모자까지 뒤로 돌려썼는데 외알들이 밤알처럼 땅땅해보이는게 박령감의 엉석등이 손자가 틀림없다. 어찌 빨리 달려오는지 애들의 꿈무니에는 미처 가라앉지 못한 먼지가 비행운처럼 달려있다.

《빠-알리! 10분밖에 없어!》

뭘가 10분밖에 없다는것일까? 성우는 손에 모춤을 쥔채로 서서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논머리를 쫓아다니는것은 지루할만큼 단조로운 일이었다. 아이들의 출현은 단조로움을 깨뜨려주는듯했

다.

아이들은 논두렁을 겨누고 달려오고있었다. 마
음으로 질러가려고 논판을 쪽- 찢어는게 분명하다.

(저너석들 아바이한테 혼나려구?)

조건반사처럼 떠오른 생각이다.

논두렁에 들어서면 누구건 물관리원 박령감의
눈에서 벗어날수 없다. 아무리 코가 촘촘한 그물
도 박령감의 눈보다는 못할것이다.

아닐세라 아이들이 논두렁에 발을 들여놓기 바
쁘게 벉락치는듯한 소리가 앞을 탁 막아버린다.

《서라, 이너석들!》

(걸렸군!)

공연히 박령감에게 《논두렁관리원》이라는 별
명이 붙은게 아니다.

아래배미에서 구부정한 잔등과 농립모가 불쑥
솟아오른다. 논고를 손질하고있었던 모양이다. 두
아이는 깜짝 놀래여 비슬비슬 뒤걸음치는데 박령
감의 손자만은 그냥 버티고서있다. 기어이 질러
가야겠다는 배짱이다. 또한 할아버지앞에서 언제
나 《승리》 해온 손자로서의 자신심이 어린 자세
다.

《할아버지!》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아버지는 그 요구를 물어줄 의무가 있고... 이것
은 생활에서 일종의 불문불과 같은것이다. 그러
나 이런 불문불과 논두렁에 선 박령감에게는 애
당초 통하지 않는다.

《돌아가거라!》

《아, 바빠서 기래요! 소...소...》

《소? 소가 어디 있어?》

박령감은 황급히 주위를 돌던거린다. 성우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근처에는 소라군 그림자도
없다. 방축에서 몇놈이 풀을 뜯고있을뿐이다. 벼
모를 실은 트랙포르가 통타거리며 굴러간다. 어
린 벼모들은 자기들이 살게 될 논벌을 넘겨다보
려는듯 적체함에서 솟아올랐다 내려앉았다 하며
호기심에 몸을 태우고있다.

《누가 소래요?》

손자녀석은 약이 바짝 올라서 소리친다.

《<소년장수>를 한단 말이에요! 텔레비존에서!》

《소-년장수?》

박령감은 하늘을 쳐다보며 꺄꺄 웃는다. 성우
도 웃었다. 재미있었다. 논고의 물소리도 웃음을
참는 중얼거림처럼 돌린다.

아이들만은 웃지 않았다. 비참한 표정들이다.
손자녀석은 너무 안달이 나서 발을 동동 구른다.

《10분밖에 없어요! 오늘 <돌주창>이 죽는대
요! <호비>도 혼이 나구!》

그러나 박령감에게 《돌주창놈의 죽음》이나 《혼
나는 호비》 따위가 아랑곳일리 없다. 그에게는 이
별에서 논두렁과 논고보다 더 중요한것이란 없
다.

《여기로는 못간다.》

《할아버지!》

박령감은 드디어 발을 탕 구른다.

《씩 돌아가지 못해?》

그제야 손자놈은 찢끔하여 제포래들이 서있는
계선으로 물러선다. 아주 량패한 기색이다.

세놈은 서로 이마를 맞대고 잠시 뭐라고 쭈알
거려대더니 핵 돌아서서 마을로 달려가기 시작하
다. 할아버지가 절대로 논두렁길을 내주지 않으
리라는 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한 모양이다. 손자
놈은 몇걸음 달려가더니 머리만 돌리고는 《할아
버지한테 다신 안올래!》 하고 소리지른다. 자기보
다 할아버지가 자기를 더 보고싶어한다는것을 말
짱 알고있는 녀석의 꾀바른 보복이다.

《허-!》

하는 소리를 내고 박령감은 아이들이 밟아놓은
논두렁앞에 쭈크리고 앉는다. 흙을 떠놓고 삼으
로 두드리고 하여 매끈하게 해놓는다.

성우는 그의 구부정한 잔등을 물끄러미 지켜보
았다.

지금은 물론 논두렁손질을 잘해야 한다. 논농
사에서는 물관리가 기본이다. 물관리는 논두렁으
로 하는것이고... 웅당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성우는 지난해 가을 물을 완전히 찌운
마른 논에서 두렁을 손질하고있는 그를 한두번만
아니게 보았었다. 리해할수 없었다.

하기는 박령감의 성격부터가 성우에게는 얼마
간 수수께끼였다.

성우가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것은 8년전이었
다.

그때 그는 박령감이 분조에 있다는 사실조차
때때로 잊어버리곤했다.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통 자기를 나타내는 일이 없었다.

작업조직이나 총화때에도 한쪽구석에 앉아 담
배만 태우곤했다. 지금과는 아예 판판이였었다.

《아바인 하루종일 말도 안하누구만요.》

성우가 같이 일하다가 답답한 나머지 한마디
했을 때 그는 《말?》하고는 힐끗 쳐다보더니 《무
슨말?》 하듯이 대답대신 담배연기만 한덩어리 큼
직하게 내보냈을뿐이었다. 성우는 독한 담배연기
에 눈을 찡그렸다.

《내가 일을 바로 못하는것도 있을게 아니예요?
말이 준기사이지 아직 모를게 더 많단 말이에요.
요.》

성우가 듣기로는 박령감은 농사일에는 귀신한
가지라고 했다. 분조장을 할 때는 농장적으로 첫
자리를 맡아놓고있었다는것이다. 그러나 역시 대
답은 후- 내뿜는 담배연기보다도 짧았다.

《늙은게 말하면 잔소리라네.》

성우는 한번은 또 이렇게 물어보았었다.

《아바인 해방전에 뭘 했나요?》

묻고보니 어이없었다. 그때는 아이였겠는데...

《농사를 했지.》

성우는 픽 웃었다.
 《죄꼬맸겠는데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 했으니께.》
 《그럼 해방후에는요?》
 《공부도 하구... 농사를 지었지.》
 《전쟁때에는요?》
 《쌈도 하구... 농사를 지었지.》
 《그럼 정전후에는요?》
 《뭘 했겠노? 농사를 했지.》
 성우는 맥빠진 웃음을 웃고말았다.
 《아바인 그저 농사했다는 말밖엔 모르누만요.》
 박령감은 피우던 담배꽂조를 흡속에 꼭 박아넣고
 는 일어섰다.

《그래서 농사군이지.》
 그때 성우는 다시는 그와 이야기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제일 벅차고
 격동적인 시대를 살아오고도 《농사를 했지》밖에
 모르다니... 더 말했대야 허무감박에 얻을게 없
 을것 같았다...

박령감은 1933년생이었다. 1993년에 예순살을
 맞았다. 그가 그해 가을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
 간다는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왕년의 박령
 감을 회상하며 탄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지만
 누구나 응당한 일로 여겼다.

《이젠 그만 쉴 때도 됐지. 로동법도 있는데.》
 스스로 모여 농장의 이런저런 부스럭일을 치는
 사이에 《로인분조》로 불리우게 된 농장의 예순
 이 지난 늙은이들은 그를 《로인분조 분조장》으
 로 이미 결정해놓았다. 그들에게는 제일 《젊은
 사람》이 《분조장》으로 되는것이 관례였던것이
 다. 예순살나이에 이르면 누구에게나 다시한번
 《젊은 사람》으로 되고 《분조장》으로 승급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있는셈이었다.

그런데 《로인분조》에서 새 분조장을 맞이하려
 고 도토리술까지 푸짐히 장만해놓았던 그해 가을
 박령감은 돌연히 년로보장으로 넘기를 거절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냥 농장원으로 일하겠
 다는것, 게다가 다른 일도 아닌 물관리원을 하겠
 다고 했다.

물관리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밤낮없이 논
 에서 살아야 한다. 논농사란 모내기후에는 물관
 리원의 농사다. 하늘 어느 구석에 구름덩이 하나
 만 걸려있어도 새우잠을 자야 하고 먼 우뢰소리
 에도 신발끈을 매야 한다.

로친네는 물론 아들, 며느리에 분조와 작업반
 에서까지 그 생각을 거두라고 했다. 뭐가 모자라
 서 그러는가, 집에 먹을게 그림나 입을게 그림나,
 정 갑갑하면 낚시질을 하던가, 터밭의 풀을 뽑
 아주며 손자놈의 엉덩이나 두드리던가, 예순이
 지난 나이에 생광스레 물관리가 뭐가...

그러나 박령감은 요지부동이었다. 터밭의 풀은
 로친네가 쥐어뽑으라구. 낚시대는 로친네가 아

들보다 더 고와하는 도시의 사위녀석한테나 보내
 주구. 손자놈의 엉덩이야 물관리를 한다구 못두
 드러줄가... 그리고는 관리위원회에 가서 위원장
 과 리당비서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장시간 이야기
 하고 온 다음날 분조에는 본인의 제기를 받아두
 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분조장은 물론 입이 터진 팔자루처럼 되었다.
 박령감이 물관리를 하면 논농사는 먹어놓은거나
 다름없다는것이 의심할바 없었던것이다. 분조의
 젊은 축들도 좋아했다. 그들은 일의 시작과 끝이
 없고 일한 자리가 없는 물관리원일이 차례질가
 봐 서로 불안해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박령감은 물관리를 시작하자 또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마치 몇해동안 거의 말없
 이 지내온 벌충이라도 하려는듯 지독하게 말이
 많아진때문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창 입에
 잔소리를 불여가지고있었다.

《늙은이 말은 잔소리》라고 하던 때가 있었던것
 같지 않았다. 두렁콩심기, 논김매기, 비료치기,
 돌피잡이... 못본척하는 일이란 없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탄 사람으로 만들어놓았는지는 도저히
 알수 없었다. 어쩌든 이웃분조들에서 《그 분
 조엔 분조장이 돌이구만!》 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뉘니뉘니해도 그가 본때를 보인것은 논
 두렁관리에서였다. 그는 논두렁은 길이 아니라고
 선포했다. 혹시 누가 바쁜 시간을 지르려고 논
 두렁에 들어섰다가는 에도는것보다 더 오랜 시간
 을 《교양》받아야 했다. 논두렁이 지름길인줄 아
 는가, 나들이길인줄 아는가 등등...

아래마을 영순이는 읍에 갔다오던길에 뽕죽구
 두 그대로 논두렁에 들어섰다가 생버터이 떨어졌
 다.

《염소발통같은 발로 어델 들어서? 논두렁이 쏙
 끄리바닥길인줄 알아 영? 당장 나가지 못할가?》

그는 노래도 잘 부르고 그 일숨씨도 여무지고
 인물도 말끔하여 온 농장의 사랑을 받는 처녀를
 곡식밭에 뛰여든 염소처럼 쫓아내버렸다.

《이게 신발자린가? 염소발통자리지!》

얼굴이 빨개졌다 하에졌다하던 영순은 종시 소
 리내여 울고말았었다.

아이들은 전에처럼 논두렁을 타고 학교에 오가
 는것은 아예 엄두도 낼수 없었다. 벼포기들은 박
 령감의 치하에서 완전한 정적과 안정을 영위하게
 되었다고 할수 있었다.

그는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곧잘 화를
 냈다. 자넨 몽당발인가 빼청다린가. 두렁을 허물
 지 않군 못다니겠다. 자넨 또 뭐가. 논두렁으로
 꼭 신발을 신고 다녀야겠다. 논두렁에 못이라도
 있을가봐 그러나...

부연한다면 그는 신발을 신고 논두렁을 다니는
 적이 없었다. 아니, 논두렁을 걷는적도 거의 없었
 다. 다리를 걷어붙이고 벼포기들사이를 헤치며
 다녔다. 《논두렁은 벼를 위한거지 사람을 위한게

아니야.》 벼포기들사이를 걸으면서는 이렇게 말했다. 《비라는건 흙탕물만 일궈줘두 춤을 추며 자란다네.》

어떤 사람들은 《그 아바인 물관리원이야, 논두렁관리원이야?》 하고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분조장은 격언같은 한마디말로 그 입들을 모두 꼭 눌러버렸다.

《물관리란 원래 논두렁관리요!》

한달후에는 누구나 논두렁에 들어설 때면 부지중 박령감의 눈치를 살피게끔까지 되었다. 하기는 그때는 논두렁들이 박령감의 《감시》가 아니라 해도 선뜻 발을 들여놓기 저어될만큼 탄탄하고 매끈하게 가꾸어져있었다. 농장에 내려왔던 군당책임비서는 논두렁에 완전히 반해버렸다. 그는 논두렁관리에 대한 군적인 방식상학까지 조직했었다.

누구나 감탄했다. 영순은 자기를 울게 했던 논두렁을 보며 《우리 집 부두막같아요.》라고 했었다. 성우도 그 일솜씨에는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나 때로는 박령감의 논두렁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쳐 그 어떤 잡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성우는 한번은 박령감에게 그 의혹을 비친적이 있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물었던것인데 대답이 하도 의미심장한것이여서 한해 지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아바이, 논두렁이야 물만 안새게 하면 그만이 아닌가요? 거 뭐 그렇게까지.》

《뭐라구?》

홀깃 쳐다보는 눈길이 늙은이답지 않게 하도 찌르는듯 날카로와 성우는 부지중 눈길을 피했었다.

《자네같이 공부한 사람이 그걸 몰라서 묻나?》

《...》

응대할 말을 찾을수가 없었다. 까닭없이 얼굴만 붉어졌다.

박령감은 공 소리를 내며 논두렁에 앉더니 담배를 꺼냈다.

《한대 피우게나.》

《안피웁니다.》

《안피우는건 나도 아네.》

박령감이 손아래사람에게 한대 피우라고 하는 것은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옆에 와 앉으라는 뜻이라는것을 성우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성우는 논두렁이 논농사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어느 농장에 실습나갔을 때 한 늙은이가 말하던것처럼 《우리가 어버이수령님 은덕으로 제땅을 처음 가졌을 땐 어떻게 다루었는지 아나? 논두렁을 삽이 아니라 손으로 발랐다네. 그래두 그냥 뽕가 모자라는것만 같더구만.》 할수도 있었다.

그런데 박령감의 이야기는 그것들과는 전혀 비

슷치도 않은 이야기였다.

《내 이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네...》

어느 농장에선 강녕이농사가 괜찮게 되었던가 부야. 평작을 좀 넘을만했겠지. 그런데 그 포전옆을 우리 수령님께서 지나가셨다질 않나? 어느 공장으로나가 현지지도 나가시는 길이었다는구만. 어버이수령님께서 포전곁에서 차를 멈추시었다네. 강녕이가 잘 되었다시며 포전에 들어가보시더니 손수 강녕이를 한이삭 따가지고 나오시는데 그게 어떤 이삭이었겠나? 그때까지 포전에서 일한 농장원들도 처음 보는 그런 큰 이삭이었다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 강녕이농사를 잘 지었다고 하시며 또 한이삭을 따시는데 역시 그렇게 크더라는걸세. 자기들은 왜 그렇게 큰 이삭을 보지 못했을까했다네. 큰 강녕이이삭은 수령님앞에만 나타나는것인지 아니면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이 닿으면 그렇게 이삭이 커지는것인지. 놀랍기만 하더라는구만...

그런데 글썽 그해 가을엔 그 포전의 강녕이 이삭들이 모두 그렇게 큰것이더라질 않나. 하나같이 말일세.》

《...》

물고랑에서 강렬한 해빛의 반사광이 눈을 부시게 했다.

《그때부터 난 어느 농장에서 농사가 대풍작을 이뤘다면 아, 그곳을 우리 수령님께서 찾으시였던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게됐네...》

《...》

전설같은 이야기이다. 허나 그것은 사실그대로이다. 조금도 꾸밈이 없는 기록영화화면들에서 한두번만 아니게 보여온 커다란 강녕이이삭을 따드시고 환하게 지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미소... 하나의 이삭을 놓고도 그렇게 태양처럼 웃으실수 있는분은 오직 어버이수령님 한분이시였다! 그 웃음, 그 미소는 풍년을 불러오는 훈풍이었다. 태양이었다!...

박령감은 다시 논두렁앞에 쭈크리고 앉아있었다. 그는 논두렁에 대해서는 종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작은 포장도로처럼 탄탄하고 매끈하게 다져진 논두렁, 한포기 잡풀도 없는 두렁 량옆으로 꼬마 가로수처럼 오롱조롱 행렬을 짓고 어깨를 비비는 파아란 두렁콩포기들... 그것을 보느라니 왜서인지 성우에게는 박령감의 전설같은 그 이야기가 논두렁에 대한 이야기였던듯이 느껴지기 시작했었다.

《씨- 다 할아버지때문이야!》

논두렁옆에 박령감의 손자놈이 잔뜩 불이 부어서 서있었다. 박령감은 논고를 높여주고있었다.

석양녘이었다. 그사이 여러 논배미들이 푸른 벼모로 덮여 모내는 기계는 아까보다 한참 멀어진곳에서 툽툽거린다. 붉은 기발들이 모내는 기

계의 주로를 굻듯이 두렁들에 꽃혀있다. 그너머 논배미에서는 썩레날을 단 프락포르가 석양비낀 논물가운데 꼼짝않고 서있다. 커다란 얼레빗같은 썩레날우에서 운전수가 런걸고리를 들여다보고 있다. 형클어진 머리칼에서 석양이 반짝인다.

《뭐가 할아버지탓이란 말이나?》

《늦어서 <소년장수>를 못봤어요. 다 끝났지 뭐.》

《그래 <돌추장놈>은 죽었다던?》

《응.》

《그럼 됐구나.》

《뭐가 돼요? 난 못봤는데!》

《네가 봐주지 않았어두 죽을놈이야 죽지 않았나? 살아났다면 또 몰라두...》

박령감의 두눈은 미소로 가늘어져 마치 감고있는것처럼 보인다. 반대로 손자놈의 입은 한뼘은 더 벌어져나온다.

《씨- 할아버진 엉터리야.》

《이녀석아, 까치걸음하지 말어라. 논두렁 상한다.》

《난 가만히 서있는데 뭐. 할아버진 그저 논두렁 논두렁 하면서, 논두렁밖에 몰라.》

손자놈은 여전히 불이 부어 투덜땀으나 잠시후에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슬며시 할아버지 잔등에 다가선다.

《할아버지.》

《오냐.》

《나도 알아.》

《뭘 안다는거냐?》

《할아버지가 왜 논두렁으로 망탕 못다니게 하구 논두렁을 곱게곱게 해놓는지.》

박령감의 눈이 다시금 감은듯이 가늘어진다.

《용쿠나.》

《나도 그럼 같이 할래.》

《오냐, 그래라.》

할아버지와 손자사이에는 논두렁을 두고 무엇인가 통하는데가 있는 모양이다. 하긴 언제나 할아버지에게 그림자처럼 묻어다니는 손자다.

성우는 부지런히 빈자리에 모를 꽃아나갔다. 빈자리는 별로 많지 않았다. 모내는 기계가 논머리까지 바투 모를 촘촘히 박아놓은것이다. 빈자리가 별로 없다보니 성우는 잠시후에는 두사람결에 이르렀다. 그런데 같이 하겠하던 손자애는 웬일인지 할아버지뒤에 오도카니 서있기만 할뿐이었다. 구부정한 잔등을 지켜보는 두눈에는 짙은 의욕이 서렸다.

《할아버지.》

《왜?》

《난 모르겠어.》

《뭘 말이나?》

《저-》

어린것은 목에 무엇이 걸린듯 침을 삼키고는 조심스레 비밀처럼 가만히 묻는다.

《대원수님께선 이젠 못오시지 않나?》

《...》

출렁- 수로벽을 치는 물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가슴을 적신다.

《그런데 할아버진 왜 논두렁을 계속 그렇게 하나?》

《...》

탕탕탕 하는 프락포르소리가 붉은 기발들너머에서 터져오른다. 끌려가는 썩레날뒤에서 붉은 석양이 물과 함께 천만조각으로 부서진다.

《할아버지!》

소심하면서도 강렬한 요구가 담긴 부름이다.

박령감은 드디어 허리를 펴고 손자를 돌아본다. 그리고는 논두렁에 무겁게 눌러앉았다.

《여계 와 앉거라.》

손자가 앉자 박령감은 《자네도 한대 피우게나.》하고 성우에게 말하는데 눈길은 그가 아니라 별관의 보이지 않는 한끝에 가있다...

박령감은 그가 앉은후에도 인차 입을 열지 않았다.

담배 한대를 다 피우도록 말이 없었다. 프락포르소리만이 재촉하듯 더 예리해지며 울린다.

《성우, 이사람.》

박령감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한손으로는 너에게도 하는 말이라는것을 알리듯이 손자애의 머리를 쓰다듬고있다.

《자네도 내가 한평생 농사를 지어왔다는걸 알리지.》

별에 탄 박령감의 장판지를 어린 벼잎사귀들이 장난치듯 살랑살랑 쓸어보고있다.

《그래, 난 한평생 농사를 지었네. 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태줄을 달고 떨어진곳도 밭고랑이였다네. 고랑쇠였지. 안아들고보니 손에 흙을 쥐고있더라는구만... 농사밖에는 몰랐지. 이 몸통이 안으로 흐르는것도 피가 아니라 흙일는지 어찌 알겠나... 내야말로 농사꾼이라고 생각했지. 한평생을 땅과 함께 보냈으니 말일세. 토지개혁때 어대아배와 함께 울어도 보았구 전선원호미를 많이 내여 상도 받아보았구 협동조합에두 제일먼저 들어가 농사를 지어보았구... 그만하면 한평생에 한뼘게 없다고 생각했네. 심고 거둔 낱알만도 이별을 다 덮을지도 몰라. 한뼘을 농사지어온걸 자랑으로 여겼지. 나야말로 진짜배기 농사꾼이라고, 이제는 쉴 때도 되었다면서 말일세...》

익매듭지고 별에 탄 손이 밭치에서 어리광치는 어린 벼포기를 쓸어본다. 어린 벼포기는 기다렸던듯 그 손에 차분히 감겨든다.

《그런데 예순살이 되던 해, 그러니 93년이지. 그해 가을에 내 비록 평생을 농사지어왔어두 농사가 무엇인지 바이 몰랐다는걸 알게 했네.》

수로에서 조용한 침병- 소리가 들린다. 벼모가 심어진 논으로 건너오려고 개구리가 수로에 뛰여든 모양이다.

《그해 가을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연백벌을 찾아주시지 않았었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벌을 돌아보시며 오래도록 떠나지 못하셨다는구만. 수원들이 그만 돌아가실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으나 어버이수령님께서선 먼저들 들어가라고 풍년든 낱알을 보니 만시름이 풀린다고 하시며 오래오래 벌에 앉아계시었다질 않나. 그리고 다음해에도 풍년이 들면 꼭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구만...》

그 소식을 들은날 나는 이 논두렁을 나와보았네. 잠이 오지 않더구만.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논두렁을 밟으셨을지 어찌 알겠나. 거칠고 미끄러운 논두렁을 밟일세. 농사군의 일본새는 밭머리와 논두렁에서 알린다는데 이 논두렁이 수령님께 만족을 드리구 수령님의 걸음을 편하게 해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획- 하고 흙을 묻고 솟아오른 제비가 석양을 향해 날아간다. 그 깃털에서 저녁해살이 무지개빛으로 아롱거린다. 성우는 부지중 눈을 감았다. 눈물을 통해 보이는 해빛이 저런 무지개빛이었었다.

《내 한평생 농사를 지었으면서두 농사가 무엇인지 모르고있었구만. 농사라는게 그저 땅에 씨앗을 묻구 싹틔워키우구 낱알을 거두는것으루만 생각했지. 무심했어, 무심했지, 돌처럼, 산처럼... 밥상머리에 흘리는 밥알을 두고 손자녀석을 꾸짖을줄은 알았어두 낱알이라는게 뭘지 몰랐으니... 내 한생을 농사지어오면서두 그 한알한알의 낱알에서 우리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의 행복을 보고계시는줄을, 이 땅에서 자라는것이 낱알이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기쁨이시고 념원이신줄은 몰랐구만. 낱알이 어데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몰랐어. 그저 땅에서 자라는줄만 알았지...》

어린 벼포기들은 나란히 앉아있는 세사람의 귀가에서 속삭이듯 쉬임없이 살랑거린다.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반세기를 두고 이 벌에 실렸던 이삭들의 합창이, 《우리는 땅에서 자란게 아니랍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심려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기쁨속에서 자랐답니다.

어버이수령님은 우리의 하늘이고 태양이었답니다.!》하는 목메임의 노래가 들릴것만 같다.

《내 그래서 예순살나이에 농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다졌네. 진짜 농사군이 되여보자. 하루나 이틀을 더 살아두 진짜배기 농사군으루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했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연백벌에 풍년이 들면 꼭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질 않나? 그러면 수령님께서 이 두렁길을 걸으실 때가 꼭 있으리라고... 생각했네...》

바람이 어린 벼포기들을 흔들며 달음질치고 벼포기들에 내려앉은 석양은 물길처럼 흐느적이다.

《이에도 물었네만... 허지만 난 어버이수령님께서 꼭 오시리라igo 지금도 믿게만 되는구만. 이들에 낱알이 땅이 꺼지게 실린다면 왜 오시지 않겠나. 우리 수령님께서 언제한번 인민들과의 약속을 어기신적이 있나? 난 믿네. 눈물로는 수령님을 다시 오시게 못해두 풍년날알로는 꼭 다시 오시게 하리라고... 믿네.》

써래치는 트랙터의 시창이 석양에 불길처럼 타오른다. 저녁대기속을 날아오자는 제비들은 죄다 붉은 기발로 변해버렸는데 이제야 비로소 자기본연의 색조를 찾은듯 기운차게 펄럭이기 시작한다. 들판을 가로지른 《모두다 모내기전투어로!》 구호에도 락조가 어렸다. 며칠후면 구호는 《김매기전투》로 바뀔것이다...

넓은 들에 씨를 뿌려 푸르른 봄인가요

...

방축길에서 영순의 정정한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마을쪽에서는 그를 마중하여 강아지가 석양을 밟으며 굴듯이 마주 달려오고있다.

마음속에 씨를 묻는 꿈많은 봄이라오

...

벼포기들사이에서 개구리들이 영순의 노래소리에 입이 떨어진듯 개굴개굴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석양을 안고 황혼을 타고 어린 벼포기들을 포근히 감싸줄 봄밤이 안개처럼 소리없이 오고있다.

《할아버지, 쑥쑥새는 얼마나 더 있어야 우나?》

《이제 곧 울게다. 모내기도 다 끝나가니.》

《쑥쑥새가 빨리 울었으문!》

쑥쑥새소리, 어린곡식들이 쑥- 쑥- 자란다고 알려줄 그 소리...

할아버지와 손자는 마치 그 소리를 기다리는듯 황혼속에 말없이 서있다. 성우는 자기도 부지중 귀를 기울여보고있음을 깨닫는다. 서산마루를 활화산의 분화구처럼 태우며 타오르는 찬란한 석양속에서 더욱더 청청해지는 영순의 노래소리속에서 풍년가율이 멀지 않았다고 알리는 쑥쑥새의 다정한 소리가 흑여나 들려오지 않나 하고...

여름벌이 뜨거워서 이삭이 익는가요

구슬땀을 흘려가니 알알이 익는다고요

...

나의 중대여

송재하

청춘시절의 한 구간이
너에게 찍혀져있어
사랑하는 나의 중대여
날이 갈수록
너를 못잊는것인가

물오른 초소의 한그루 버드나무
중대교양실 앞마당에 놓인
하늘색 긴의자...
눈만 감아도 삼삼한 그 모든것
못잊을 나날들을 불러주나니

그것은 흘러간 병사시절에 대한
추억으로만 아니여라
함께 땀흘린 전우들의 얼굴이
때없이 떠오르는
그리움으로만 아니여라

오늘도 이 가슴속에 고여있는
영웅고지의 맑은 샘물
그 샘들로 가슴을 넓히며
수호의 높은 뜻
나는 자래우지 않았던가

이 땅 그 어디 가있어도
온몸에 습배여들던
산마루 최전연초소의 초연내
그 초연내로 병사의 넋을
언제나 새겨가지 않았던가

오 중대여 너는
나를 비쳐주는 거울처럼

가사

어디서나 따라서며
김정일장군님의 병사이라고
언제나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내 청춘시절의 고향!

하기에 조국이 부른다면
총창을 번뜩이며
돌격선에 앞장섰던 병사시절처럼
힘산도 진필도
웃으며 단숨에 헤쳐넘거니

영웅고지의 붉은 노을이 비낀
병사의 이 눈동자
눈비가 몰아치면 달라지랴
참호를 뛰어넘으며 익힌
병사의 이 걸음새
산악이 막아서면 달라지랴

노래를 불러도
중대여 네가 배워준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고
걸음을 걸어도
네가 익혀준 정보로 걷는
나는 오늘도 병사

아 식지 않을 청춘의 붉은피는
무엇을 위해 뛰여야 하는지
나에게 가르쳐준 중대여
한생 너를 안고 살리니
나는 영원한 너의 아들
김정일장군님의 총천 병사여라!

평양이여, 그대와는 작별이 없다

박 철

군복입고 그대 품 내 떠나올 때
축복의 꽃다발만 안고왔던가
정깊은 모란봉도 개신광장도
총잡은 이 가슴에 안고서 왔네
아 정다운 평양이여
그대와는 그대와는 작별이 없다

전호가의 밤에도 혼련길에도
가슴속엔 대동강물 흘러넘치네
꿈결에도 걸어보는 열병식광장

승리의 위훈 안고 살아간다네
아, 정다운 평양이여
그대와는 그대와는 작별이 없다

불비속을 헤쳐 그대 아들로
결사전해 몸바쳐 그대 아들로
언제나 마음속엔 최고사령부
그 불빛 지키여 나는 싸우리
아, 정다운 평양이여
그대와는 그대와는 작별이 없다

산복숭아꽃

김하전

△ 때; 현재
 △ 곳; 어느 녀성구분대
 △ 나오는 사람들
 현순; 포장
 분옥; 중대장
 하사; 조준수
 상등병; 장탄수
 명히; 전사
 대렬참모;
 인민군신문사 기자;
 △ 무대; 어느 산중
 막이 오르면 아직 어둠이 가서지지 않은
 3월의 이른 새벽
 △ 한옆에 사그러져가는 불무지
 △ 어둠속에서 분옥 황급히 나오다 사방을 살핀다.
 분옥; 3포장동무, 3포장동무!
 △ 잠에서 깨어난 산새들이 놀라서인지 지저귄다.
 분옥 되돌아나가다 땅에서 무엇인가 발견하
 고 다가간다.
 △ 이때 현순 부식토를 담은 삼태기를 들고나
 오다 비칠거린다.
 분옥; (인기척에 놀라며)그게 현순동무가 아니
 예요?
 현순; ... 아이 중대장동지,
 분옥; (달려가 부축하며) 어데 다치지 않았어요?
 현순; (부식토가 담긴 삼태기를 보이며)중대장
 동지, 여기 이렇게 좋은 부식토가 있을줄
 은 몰랐습니다.
 분옥; 그럼 3포장동문 이것때문에 여기까지 왔
 단말이에요?
 현순; (여전히 기뻐하며)이것보십시오. 얼마나
 보드랍구 색깔이 곱습니까? 이걸 산복숭
 아꽃통에 갈아주면 산복숭아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겠습니까?
 분옥; 동문 정말... 이리 달라요.(삼태기를 빼앗
 는다.) 동무를 얼마나 찾는지 알아요?
 현순; 이러지 마십시오.
 분옥; 도대체 동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하게 했
 는지 알기나 하구 이래요?
 현순; 그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삼태기에 담긴 부식토를 비닐봉투에 넣
 기 시작한다.)
 분옥; (엄하게) 3포장동무!

현순; 예?
 분옥; 당장 그걸 나한테 맡기구 중대로 돌아가
 세요. 지금 중대동무들이 모두 눈이 까맣
 게 기다리고있어요.
 현순; 중대장동지, 잠간이면 됩니다.
 분옥; (엄하게) 제대명령을 받았다고 이제 중대
 장의 명령을 홍정하자는건가요?
 현순; 그런건 아닙니다.
 분옥; 그런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가 말이
 예요. (손을 잡다가)아니 손이 얼지 않았
 어요?
 현순; 호호호... 아닙니다.
 분옥; 이러다 정말 큰일나겠구만. (현순이의 두
 손을 감싸친다.)
 현순; 중대장동지! 일없습니다.
 분옥;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제격 불이라도 피
 우자요. (불무지에 나무를 얻어다놓는다.)
 현순; 야 중대장동지, 일없다지 않습니까.
 △ 현순은 불을 살리는 분옥이를 보고 감동된다.
 분옥; 그러지 말구 이리 와서 손을 녹이랴요.
 (분옥 현순이를 굴이다 불무지곁에 앉히
 고 부식토를 비닐봉지에 함께 넣는다.)
 분옥; 3포장동무, 정말 안됐어요. 포에 새로 온
 명히동무를 키우는 그 바쁜 짬에두 온
 겨울 중대온실에서 산복숭아꽃을 가꾸느
 라 애쓴 동무를 중대를 떠나는 오늘까지
 고생시켜서 말이에요.
 현순; 제가 하고싶어 하는 일인데 고생이란게
 있습니까? 전 그저 산복숭아꽃을 더 빨
 리 피우지 못한게 가슴에 걸립니다.
 분옥; 은근히 날 그렇게 비판하지 마세요.
 현순; 아이참 중대장동지두... 중대장동지, 한가
 지 부탁하랍니까?
 분옥; 뭐예요? 어서 말하랴요.
 현순; 산복숭아꽃을 평양에 떠나보내는 일까지
 제가 꼭 하게 해주십시오.
 분옥; 불이나 쪼이랴요.
 현순; 꼭 그렇게 해주지요?
 △ 분옥 현순의 손을 뜨겁게 잡는다.
 분옥; 현순이!
 현순; 중대장동지, 승인하지요? 그렇게 하기전
 엔 내가 중대를 떠날수 없다는거야 중대
 장동지두 잘 알지 않습니까?

분옥; 알지, 알구말구. 현순이.

현순; 중대장동지!

△ 분옥이 현순이를 뜨겁게 포옹할때 날이 밝아지면서 저 멀리서 《해빛같은 미소 그림습니다》 노래 전주가 은은히 들려온다.

현순; 저 노래를 들으니 어버이수령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분옥; 세월이 천만년 흘러도 어버이수령님의 해빛같은 그 미소를 우리 어찌 잊을수 있겠어요.

△ 그들은 들려오는 노래 1절을 조용히 따라 부르기 시작한다.

우리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행복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
해빛같은 미소 그림습니다
따뜻한 그 품 그림습니다
천만년 세월 흐른대도
수령님을 못잊습니다

△ 노래속에 무대가 흘러가면 녀성중대 휴식장. 아침이다.

하사 의자에 앉아 배낭을 꾸리며 한옆에 서 있는 상등병을 추궁한다.

하사; 글썄 이진 장탄수동무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어디 됐어요? 오늘 중대를 떠나가야 할 포장동지가 새벽에 그 먼 고현봉밑까지 갔다왔다는데 구대원들은 모르고있었으니...

상등병; 정말 안됐습니다.

하사; 그래 장탄수동문 포장동지가 무엇때문에 겨울내내 온실에서 산복송아꽃을 키워왔다고 생각해요?

상등병; 포장동지의 그 깊은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하사; 동문 참.

상등병; 글썄 요전날에두 무엇때문에 그렇게 애쓰며 산복송아꽃을 키우는가고 물으니 미리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것이 가슴에 걸린다면서 꽃가꾸기책만 보고있었습니다.

하사; 답답하구만. 그게 다 중대에 기념으로 남기자고 그런단말이에요요.

상등병; 중대에 기념으로 남기자구요?

하사; 왜 내 말이 허황해? 그래 구대원동지들이 중대를 떠나면서 그저 떠난 동지들이 있어요?

상등병;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포진지로 오르는 길도 더 반듯하게 하구 진지에 폐장도 새로 떠올기

구...

하사; 표식비주변에 꽃나무도 떠나심구 떠났어요.

상등병; 그렇습니다.

하사; 모두가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중대에 남기구 떠났는데 현치교시포 포장인 우리 포장동지가 그냥 떠나갈수 있어요?

상등병; 그러게 말입니다.

하사; 그런 포장동지를 도와주지 못한걸 생각하면... 포장동진 우리가 눈치없다고 속으로 얼마나 섭섭해하겠어요.

상등병; 이제라도 우리가 산복송아꽃을 말아가꾸시다.

하사; 그래야겠어요.

△ 책을 든 명히 나온다.

명히; 하사동지 전사 리명히 만날수 있습니까?

하사; 무슨 일이에요?

명히; (책을 보이며)이 책을 어떻게 하랍니까?

하사; 책을 어떻게 하다니?

명히; 포장동지한테...

하사; (기뻐하며) 그 책을 포장동지한테 보내자는건가요? (상등병에게)장탄수동무, 우리가 이 어린 전사보다 못하다니깐.

상등병; 정말 부끄럽습니다.

명히; 아니 저...(당황해한다.)

하사; 이리 달라요. 동무가 주는 책이라면 포장동지가 깊숙이 간수하구 그 책을 볼때마다 동무생각을 할거예요.

명히; 저... 하사동지, 이 책은 포장동지한테 주자는게 아니라 포장동지한테서 받은 책임니다.

하사; (놀라며) 뭐라구요?

상등병; 그게 정말이에요요?

명히; 포장동진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을 잊지 말라면서 여기에 노래까지 써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상등병; 노래까지?

하사; 어디 보자요.

△ 둘이 책을 펴든다.

하사, 상등병; 해빛같은 미소 그림습니다.

하사; (뜨거움에 젖어) 포장동진 정말...

상등병; 하사동지, 이런 포장동지를 어떻게 그냥 떠나보내겠습니까?

하사; 그냥 보내다니요. 절대로 그럴수 없어요.

명히; 하사동지, 전 포장동지한테 번수동작을 멋있게 보여주겠습니다.

상등병; 번수동작?

명히; 포장동지가 저의 번수동작을 완성시켜주느라구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 팔에 독심을 키워주구 가슴속엔 명중포성의

충성심을 심어주구...

하사; 맞아. 동무가 주저앉으면 한송이 산복숭아꽃이 피어나지 못한것으로 된다면서 눈보라치는 포진지에서 시범동작인들 얼마나 했나요.

상등병; 포장동진 명히동무 변수동작을 보면 정말 기뻐할거예요.

명히; 본때있게 하겠습니다.

하사; 그럼 난 포성원들을 대표해서 꽃다발을 준비하겠어요.

상등병; 꽃다발이요?

하사;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포에서 명중 포성만 올린 포장동지가 떠나가는데 꽃다발이 없어서야 되겠어요.

상등병; 그런데 꽃다발을 할 꽃이 있나요?

명히; 포장동지가 제일 좋아하는 산복숭아꽃.

상등병; 아직 피지 않았는데...

명히; 참... 그렇지.

하사; 어쨌든 꽃다발문제는 나한테 맡기구 상등병 동문 도중식사, 명히동문 변수동작준비.

두 병사; 알았습니다.

△ 모두 나가려는데 현순 비닐로 짠 산복숭아꽃통을 안고 나온다.

모두; 포장동지!

현순; 동무들 어때요? (꽃을 보인다.)

모두; 야 산복숭아꽃.

하사; 정말 멋있는데요.

상등병; 그런데 왜 아직 피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까?

현순; 래일 아침이면 활짝 필거예요.

모두; 정말입니까?

현순; 내가 이래봐두 이젠 원예사자격을 갖추었다는걸 몰라요?

모두; 호호호... (즐겁게 웃는다.)

명히; (조용히 하사에게) 하사동지, 됐습니다.

하사; 되다니?

명히; 꽃다발.

하사; 오 그렇지.(능청스레)포장동지, 이 꽃을 키우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현순; 수고야 뭐.

상등병; 그렇지만 포장동진 너무합니다.

하사; (더욱 시치미를 떼며) 내가 바로 그 소리에요. 우리가 무엇때문에 포장동지가 이 꽃을 가꾸왔는지 모를줄 압니까?

현순; (놀라며) 동무들도 알고있단말이에요?

하사; 알고있지 않구요. 그래 그 일이 포장동지 혼자 할 일입니까?

상등병; 오늘 새벽에는 왜 혼자 부식으로 얻으려

갔겠습니까 예?

하사; 말해보십시오, 이건 하사 오철숙의 개인적질문이 아니라 포 전체 성원들의 질문입니다.

현순; 호호호... 우리 명히동문 장탄한게 없는 모양이지, 한방 쓰지 않는걸 보니.

명히; 저도 한방 쓰겠습니다.

현순; 호호호... 좀 있다 쓰지 않겠어요? 난 명히동무 장탄한게 제일 무섭구만.

명히; 포장동지 중대를 떠나기전에 변수동작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현순; 변수동작?

명히; 자신있습니다.

하사; 가만, 명히동무, 순차대로 하세요. 포장동지, 우리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우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현순; 뭐?

하사; 동무들은 분담된대로 행동하세요.

두 병사; 알았습니다.

△ 장탄수, 명히 나간다.

상등병; (되돌아서며) 하사동지, 차시간!

하사; 알고있어요.

명히; (되돌아서며) 포장동지, 빨리 진지에 와야 합니다.

현순; 알고있다는데.

△ 《호호호...》 두 병사 웃으며 나간다.

현순; 부분대장동무, 요구라는게 도대체 뭐예요? 너무 엄숙하게 선포하니 병병하구만요.

하사; 호호호... 포장동지, 별거 아닙니다. 저 산복숭아꽃 몇송이만 주십시오.

현순; (놀라며) 이 산복숭아꽃을?

하사; 이건 우리 포 동무들의 한결같은 요구라는걸 말씀드립니다.

현순; (생각에 잠겨) 다른 부탁은 다 들어줄수 있어두 저 산복숭아꽃은 안돼요.

하사; 글쎄 포장동지의 끝없는 정성이 깃든 저 꽃을 달라고 하는건 럼치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순; 저 꽃만은 정말 안돼요.

하사; 우리한테 저 꽃이 딱 필요하단말입니다.

현순; (안타까이) 동문 내가 왜 저 꽃을 가꾸었는가를 알고있다고 했지?

하사; 그걸 알기때문에 그러는게 아닙니까?

현순; 그걸 안다는 동무가 어쩔 그런 생각을 하는가말이에요, 예?

△ 상등병 종이꾸레미를 들고 나온다.

하사; (울먹이며) 포장동지, 너무합니다. 제 포진지결에 산복숭아꽃이 피어있으면 내가 이러겠습니까? 진달래가 피었다도 이러지

않습니다.

현순; 뭐라구요? 동무 이자 뭐라구 했어요.

상등병; 포장동지, 하사동진 포장동지의 꽃다발 때문에 그러니까.

현순; 내 꽃다발?

하사; (돌아서며)상등병동무, 망울진 진달래라도 꺾자요.

상등병; 알겠어요. (나가려 한다.)

현순; (막으며) 동무들, 서세요 셋!

△ 나가려던 그들 엄숙한 명령앞에 놀라며 돌아선다.

현순; (강경히) 꽃다발을 만든다고 꽃을 꺾는 일은 용서하지 않겠어요.

하사, 상등병; 예? 그건...

현순; 이건 포장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어기는 동무가 있으면 누구든 처벌을 받을줄 아세요.

하사; 포장동지, 그러지 마십시오.

현순; 이건 룡이 아니라 나의 진정이에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산복숭아꽃은 물론 진달래 한가지도 꺾어서는 안돼요. 그리고 내가 떠나는 문제때문에 복잡하게 그러지 마세요.

△ 명히 뛰어들어온다.

명히; 포장동지 빨리 번수동작?!

현순; 오 그렇지, 가자요.

△ 현순 산복숭아꽃을 다시 정성스레 살피고 나간다.

상등병; 하사동지, 이제 꽃다발은 다 만들었구만요.

하사; 포장동지가 그런 명령을 내릴줄이야 알았어요?

상등병; 그런데 왜 포장동진 꽃다발만은 그만 두라고 했을까요? 그것두 어마어마하게 말입니다.

하사; 동문... 포장동지가 그러다구 우리가 꽃다발을 만들지 않으면 되겠어요.

상등병; 예? 하사동지, 난 포장동지가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는걸 오를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 포장동지 명령대로 합시다.

하사; 누가 이 산복숭아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자고 그래요?

상등병; 그럼 진달래루요?

하사; 아니.(도리머리질을 하며)우리가 포사격에서 《우》를 맞은 꽃송이들을 모아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잔말이에요.

상등병; 예?

하사; 비록 이 산복숭아꽃처럼 향기는 없다쳐두 포장동지의 노력이 숨배인 꽃이 돼서

기뻐할거예요.

상등병; (기뻐하며) 하사동지, 정말 신통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빨리 잡시다.

하사; 가자요.

△ 급히 나간다.

△ 사이

△ 현순 명히의 어깨를 다정히 껴안고 나온다.

현순; 우리 명히동무가 이제 제법인데요.

명히; 포장동지, 아직 멀었지요?

현순; 정말 장해. 이제 마음놓여요.

명히; (의자우의 책을 들며) 포장동지, 전 앞으로 힘들 때마다 포장동지가 써준 이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훈련하구 훈련하구 또 훈련하겠습니다.

현순; 명히, 그러세요. 꼭 그렇게 해줘요.

△ 현순 명히 노래 2절을 읽는다.

우리에게 혁명정신 심어주시고
조선을 빛내이신 어버이수령님
해빛같은 미소 그립습니다
따뜻한 그 품 그립습니다
천만년 세월 흐른대도
수령님을 못잊습니다

현순, 명히; (목이 메여) 어버이수령님.

△ 음악이 흐른다.

△ 사이, 분옥 물초롱을 들고나온다.

분옥; 3포장동무, 빨리 떠날 준비를 해야겠어요.

현순; 예? 떠나다니요?

분옥; 방금 려단에서 전화가 왔는데 대렬참모동지가 동무를 인솔하러 우리 중대를 향해 떠났대요. 이제 낮차로 가자고 말이에요.

현순; 중대장동지, 래일 낮차로 집에 가면 안될가요? 평양으로 가는 차야 아침차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히; (한옆에서) 평양?

현순; 중대장동지, 내 이렇것 같아 새벽에 말한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분옥; 동무가 오늘을 위해 애쓴걸 생각하면 난 반대가 없어요. 그렇지만...

현순; 중대장동지, 제가 애쓴것때문에 그러는게 아닙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한생을 후회할게 아닙니까?

분옥; 현순동무... 이제 대렬참모동지가 오면 제기해보자요.

현순; 고맙습니다. 중대장동지, 그럼 전 역에 나가 평양으로 가는 손님이 없는가 하는걸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분옥; 현순동무, 그건 내가 알아보겠어요. 려단에 인민군신문사기자가 왔다고 했는데 언제 평양에 가겠는가 하는걸 알아보구 오겠어요.

현순; 중대장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분옥; 명히동무, 동문 빨리 알려요. 포장동무가 떠난다구.

명히; 알았습니다.

△ 분옥, 명히 갈라져나간다.

△ 현순 산복숭아꽃에 씌운 비닐을 다시 살피며 생각에 잠긴다.

현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미리 하지 못했을까? 며칠만이라두 이런 생각을 먼저 하였다라면 이젠 이 산복숭아꽃이 평양으로 갔겠는데...

이제라도 어떻게 하나 이 꽃을 한시바삐 떠나보내야 해. 그걸 보기전에는 난 고향으로 갈수가 없어.

△ 현순 결심하고 서두를 때 대렬참모가 다급히 나온다.

대렬참모; 동무, 3포장동무가 어데 있소?

현순; 예! (일어서서 경례하며) 대렬참모동지, 안녕하십니까?

대렬참모; 아 현순동무, 면바루 만났구만. 자 빨리 떠나자구. 시간이 없소.

현순; 예?

대렬참모; 왜 그렇게 놀라는거요. 연락을 못받았소?

현순; 받긴 받았습시다. 저, 참모동지, 오늘 꼭 떠나야 합니까?

대렬참모; 그건 무슨 어정쩡한 대답이요?

현순; 참모동지, 그럴만한 일이 있어 그러합니다. 여기 앉아서 땀이나 들이십시오. (참모를 잡아 이끈다.)

대렬참모; 이럴 사이가 없다는데... 오늘 낮차에 떠나야 래일 아침에 동무 파견지에서 일을 보구 난 또 다른 동무들을 데리고 떠날수 있단 말이요. 그렇게 돌아쳐두 시간을 맞춰낼것 같지 못하오.

현순; 참모동지, 이제 당장 떠날수 없어 그러합니다.

대렬참모; 동무, 뭘 미결한게 있어 그러는게 아니요. 영? 동무네 중대장동무 어데 있소? 그만큼 말했는데.

현순; (머뭇거리며) 우리... 중대장동지한테는 잘못이 없습시다.

대렬참모; 됐소됐소.

△ 대렬참모 나가려고 서두르는데 분옥이 들어온다.

분옥; 현순동무, 평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현순; (기뻐하며) 그게 정말입니까?

대렬참모; (한옆으로 피하며) 평양? 그럼 이 동

무가...

분옥; 아까 말한 그 기자동지가 올라간대요. 그 래 동무이야기를 하니깐 여기로 오겠다고 했어요,

현순; 중대장동지, 그럼 제 소원이 풀리게 되었 습니다.

대렬참모; 음... 저 동무가 그래서... (한옆에서 생각에 잠긴다.)

분옥; 현순동무, 빨리.

현순; 알았습니다.

△ 그들이 분주히 서두를 때 대렬참모 나선다.

대렬참모; 중대장동무, 나 좀 만납시다.

분옥; (그제야 그를 발견하고) 대렬참모동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렬참모; (분옥이를 한옆으로 부르며) 그러니깐 현순동무는 평양으로 가는 문제때문에 당장 못떠나겠다는거요?

분옥; 그렇습시다. 참모동지, 지금 현순동무는 고향으로 가는 길보다 평양으로 가는 길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렬참모; 중대장동문 옳지 않습니다. 사전토의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현순; 참모동지, 사실은...

대렬참모; (여전히 분옥에게) 지휘관이 맞장구 치면 되는가말입니다.

△ 대렬참모 의자에 앉아 전투가방을 열어제낀다. 밖에서 차멧는 소리.

△ 하사와 상등병 꽃다발을 들고 나온다.

하사; 중대장동지, 우리 포장동지가 평양으로 간다는게 사실입니까?

분옥, 현순; 예?

상등병; 평양에서 온 기자동지가 포장동지를 찾습시다.

분옥; 기자동지가 어데 있어요?

현순; (더욱 기뻐하며) 동무들 됐어요, 됐어요.

대렬참모; 이 동무들이 참...

△ 명히 기자와 함께 나온다.

명히; 기자동지 여깁니다.

기자; 어느 동무가 3포장동무입니까?

현순; (나서며) 중사 김현순.

기자; 동무가?

현순; 그렇습니다.

기자; 정말 훌륭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빨리 갑시다. 마침 평양으로 가는 차편이 있습니다.

대렬참모; 상좌동지, 대렬참모 최창식 만날수 있습니까?

기자; 동문 누구라구요?

대렬참모; 전 이 동무를 인솔할 대렬참모입니다.

기자; 그렇습니까? 참모동무, 얼마나 기특한 동무입니까?

대렬참모; (그에는 아랑곳없이) 상좌동지, 이 동무를 평양에 데리고가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기자; 예? (어안이 병병해진다.)

대렬참모; 이 동무의 인술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분옥; (당황해서 앞으로 나서며) 대렬참모동지, 이 현순동무는 평양으로 가자는게 아닙니다.

대렬참모; 뭐요?

분옥; 현순동무가 평양에 계시는 기자동지를 찾은건 이 산복숭아꽃때문입니다.

모두; 산복숭아꽃때문이라구요?

대렬참모; 중대장동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분옥; 현순동무는 이 산복숭아꽃을 아버지수령님께 드리자구 지난 겨울동안 온 마음을 다 바쳐 가꿔왔습니다.

대렬참모; 아버지수령님께 드리자구요?

분옥; 그렇습니다. (돌아보며 부른다.) 현순동무!

현순; 상좌동지, 평양에 가시면 이 산복숭아꽃을 만수대언덕에 모셔져있는 아버지수령님동상에 드리주십시오.

모두; 예? (더욱 놀란다.)

△ 음악이 조용히 흐른다.

현순; 몇해전 아버지수령님께서 그 년로하신 몸으로 저 험한 령길을 넘으시며 깊은 산중에 자리잡은 우리 초소에까지 찾아오실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두; ...

현순; 오매에도 그림구 그렇게 만나뵙고싶던 아버지수령님을 몸가까이에 모시게 된 우리의 기쁨을 그 어디에 비기겠습니까. 우리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아버지를 만난 딸자식처럼 그이의 옷자락에 매달리어 떨어질줄 몰랐습니다. 저희들의 훈련모습을 보아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모두가 훈련을 잘한다고 다정히 어깨를 두드려주시다 활짝 피어나 향기를 풍기는 산복숭아꽃들을 바라보시며 동무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산복숭아꽃이 된 고지에서 조국을 지킨다고 하시며 기뻐하시는데 아니겠습니까?

모두; ... (더욱 감동된다.)

현순; (더욱 뜨겁게) 상좌동지, 난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산복숭아꽃을 바라보시며 순간이나마 피로를 잊으시고 기뻐하시던

아버이수령님의 해빛같은 그 미소를 잊을 수 없단말입니다. 이제 망울을 터친 연분홍꽃잎들이 짙은 향기를 풍기면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미소를 꼭 다시 뵈울것 같아서...

상좌동지, 이 산복숭아꽃을 키우노라니 아버지수령님께서 나라일이 바쁘시여 우리 초소까지. 찾아오시지 못하시는것만 같은 생각이 들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담아 꼭 드리주십시오 예? 상좌동지!

모두; 포장동지! (감동되어 흐느낀다.)

△ 음악이 높아진다.

기자; (목메여) 현순동무, 동문 아버지수령님께서 한순간 기뻐하시던 그 모습을 심장에 새기고 온 겨울동안 이 산복숭아꽃을 가꿔왔단말이요? 동무의 가슴속에는 이 산복숭아꽃이 언제나 피어있었구만.

분옥; 그렇습니다 상좌동지.

대렬참모; (감동되어) 현순동무, 동무가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는줄은 모르구...

기자; (목이 메여) 기특하오, 정말 기특하오. 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해가는 병사들을 찾아왔다 천만자식들의 소중한 마음을 이 현순동무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모동무, 우리 언제나 이 현순동무처럼 세월이 천만년 흐르고 흐른대도 아버지수령님을 더욱 길이길이 받들어 모시고 그이의 전사답게 싸워나갑시다.

대렬참모; 상좌동지, 그러고보면 이 산복숭아꽃은 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자식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효성의 정화라고도 볼수 있지요.

현순; 상좌동지, 너무 이리저리 마십시오. 이 나라에 사는 사람치고 아버지수령님의 해빛같은 그 미소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사랑의 해빛속에서 우리 인민모두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우리 위대한령장을 모신 제일 행복한 병사로 되지 않았습니까?

동무들, 부디 저 포진지와 산기슭에 피어나 산복숭아꽃들이며 진달래들을 잘 가꿔주세요. 아버지수령님과 똑같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반드시 우리의 초소를 찾아오실거예요. 그때면 온 산천이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향기를 풍기게 말이예요. 아버지수령님을 모셨던 그날처럼말이예요.

하사; (감격하여) 포장동지, 그래서 포장동지

꽃다발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였구만요.

병사들; 포장동지!

△ 병사들 현순에게 매여달릴 때 음악이 더욱
높아진다.

△ 사이, 현순 천천히 산복숭아꽃에 다가간다.

현순; 상좌동지 수고스럽지만 아지들과 꽃망울
들을 주의해주십시오.

기자; 알겠소.

현순; 그리구 이건 물통입니다. 차안에서 제때
제때 물을 주십시오.

기자; (더욱 감격하여) 알겠소. 꼭 그렇게 하겠소.

현순; 상좌동지, 래일 아침이면 꼭 이 방울들이
활짝 피어날겁니다.

기자; (목이 메어) 현순동무!

대렬참모; 상좌동지, 어서 떠나십시오.

기자; 갑시다. 어서 갑시다. 병사들의 효성의
마음이 담긴 이 산복숭아꽃을 어서 어버
이수령님께 드립시다.

△ 기자, 소좌, 현순, 분옥 산복숭아꽃통을 정

성스레 들고 나간다.

△ 그들을 뜨겁게 바래우는 너병사들.

병사들; 기자동지, 조심해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 밖에서 《격정마시오》 하는 대답소리 이어
승용차 떠나는 소리가 난다.

△ 명히 책을 천천히 펼쳐든다.

《해빛같은 미소 그림습니다》 노래 3절이
방창으로 흐른다.

우리에게 영원한 태양주시고
주체의 대 이어주신 어버이수령님
해빛같은 미소 그림습니다
따뜻한 그 품 그림습니다
천만년세월 흐른대도
수령님을 못잊습니다

△ 노래속에 모두 일행을 바래울 때.
막

그는 어디에 있는가

리성애

아버지는 늘 못잊어 추억하셨지요
설악산 기슭에 쓰러진 부사수
적의 포위속에서 부대를 구원한
열아홉살의 나 어린 전사를...

아버지! 나는 전승기념관에서
로병들의 전투수기에서도
그를 아직 못찾았어요
쓰러졌던 설악산에 지금도 누워
오로지 아버지 이야기속에서만 살고있는건가요

아니면 이제는 너무도 듣고들어서
그 얼굴도 그 목소리까지도
뚜렷이 안겨오는 그 사랑은
한식구처럼 친근하게 스며든
우리의 몸에, 우리의 피속에 있는가요

아니면 눈속을 덩굴며
입으로 중기사격을 하는
나에게는 조카이고 아버지에게는 손자인
투실투실한 장난군
그애의 작은 꿈속에 있는가요

저기 푸른 머리 길게 드리운
멋쟁이 버드나무의 설레임속에 있나요

머지 않아 어머니가 될
어여쁜 안해들의
설레이는 공상속에 있나요

돌잡이 어린애들 처음 외우는
《엄마》라는 그 말속에 있나요
이 나라 젊은이들의 신성한 맹세 울리는
제 용맹한 군위사단
펼쳐있는 군기속에 있나요

모름지기 오늘의 나도 그러보았을
그 밝은 눈빛은 저 푸른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는것은 아닌가요
그가 남긴 숨결은 산들바람이 되어
가로수와 파란 잎새들을 날려주고
이 땅의 모든것을 정답게 쓰다듬는것은 아닌가요

또 무거운 줄음이 눈시울을 덮는 한밤에도
내 펜을 권 손에 지그시 힘을 넣을 때
아 그때에도 그는 그 힘속에서
나를 고무해주는것은 아닌지

이제는 묻지 않아요
아버지, 나는 알아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로병의 마음

리기창

울긋불긋 단풍이 들기 시작한 부민산골짜기에 들어선 정남이는 이마로 흐르는 땀을 훔칠념도 않고 기쁨에 넘쳐 집으로 줄달음쳤다. 전문학교 졸업반인 그는 꿈도 많았지만 오늘 수리동력대학에 갈것을 지망했다. 사실 뛰어난 학업성적으로 해서 선생님과 동무들은 그의 꿈이 하늘같이 크리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수리동력대학이라는 그의 지망을 보고는 모두 머리를 긁적거렸다. 하지만 정남의 마음은 기뻐다. 아무데서라도 공부를 직심스레 해서 나라의 과학발전에 이바지하면 된다는것이고 한편으로 형님들과 누이가 모두 군대에 나가고 자기까지 나가면 무척 적적해할 부모님결을 뜨고싶지 않았기때문이었다. 더우기 붉은청년근위대야영소 소장사업을 하는 아버지 김려홍은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입은 상처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못했다.

하기에 그는 나이트 부모를 집에 남긴채 자기마저 외지로 갈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기쁜 소식을 한시빨리 전하고싶은 마음이 앞서 정남이는 걸음을 재촉했다. 더구나 조선로동당창건 50돐 경축행사에 참가했던 아버지가 오늘 집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였다.

그러지 않아도 그는 며칠전 텔레비존을 통하여 당창건 50돐 행사장면을 보다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우러러 만세높이 부르며 행진해나가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자 저도 모르게 손뼉까지 치며 환성을 올렸었다. 동심한 얼굴에 붓초리같은 술진 눈썹과 반백의 귀밑머리며 공화국영웅메달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들이 가슴팍에서 빛을 뿌리는 모습은 분명히 아버지였다. 것처럼 크나큰 영광을 지닌 아버지까지 오늘 돌아온다니 이 소식을 알면 얼마나 기뻐하랴 하고 생각하며 정남이는 집대문을 열어제끼며 소리쳤다.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어요?》

했으나 어머니의 대답대신 트락에서는 덩지 큰 계사니들과 돼지들이 화답하듯 목을 빼든다. 집안을 휘돌러보았으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역시 돌아오지 않은듯싶었다. 어머니가 혹시 역에 마중나가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으로 책가방을 던지고 문밖으로 다시 나왔다.

이때 뒤산에서 집집승먹이풀을 잔뜩 지고 내려오는 어머니의 땀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순간 그의 코허리가 저릿했다. 언제 보나 아버지와 함께 집집승들을 애써 길러서 주변의 군부대에 보

내주는가 하면 붉은청년근위대야영소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어머니였다. 정남이는 어머니한테로 썩 달려가서 풀단을 받아들며 말했다.

《제가 어련히 할텐데 어머니 힘들게 왜 이러세요. 아버지 안오셨나요?》

《안오셨구나. 학교에서 오는 길이나?》

《예, 오늘 수리동력대학에 지망했어요.》

하고 그는 년로한 부모님들만 집에 남기고싶지 않아서 그랬노라고 자랑했다.

《원 녀석두, 네가 벌써 부모들 넘려까지 하는구나...》

어머니는 무척 대견한듯 막내이의 어깨를 어루쓸었다.

당창건 50을 경축행사에 참가했던 그의 아버지 김려홍은 그날 저녁무렵에야 도착했다. 호젓하던 그의 집은 명절처럼 흥성이었다. 아버지를 축하해주려고 동리사람들이 모여온것이다. 아버지는 행사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몸가까이에서 뵈옵던 일이며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기념사진까지 찍은데 대하여 눈시울을 적시며 이야기했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뜨거운 격정에 잠겨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밤이 깊어서야 자리를 폈다. 어머니마저 부엌에서 뒤겨두매를 하느라고 들어오지 않아 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된 기회에 정남이는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터놓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아버지의 낯빛은 컴컴해졌다.

《그래 고작 생각한게 그게 다냐? 사내녀석이란게...》

아버지는 이 한마디를 내뱉고는 담배를 피워문채 한대를 다 태우도록 아무 말도 안했다. 근엄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띄여보는 정남의 마음도 납덩이를 매단것처럼 무거워졌다.

《나는 그래도 네가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누구보다먼저 인민군대에 탄원하리라고 믿었다. 그런데 뭐...》

김려홍은 뒤말을 잊지 못한채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또다시 담배를 붙여물었다.

앞치마에 손을 문대며 방안에 들어서던 어머니가 아연하여 중얼거렸다.

《당신은 저애마저?...》

《내 이번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결을 떠나신후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모시고 진행한 경축행사에 참가하고보니 생각이 더욱 깊어지더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고 미

제침략자를 이 땅에서 끝까지 소멸하라는 영예로운 임무와 더없는 믿음을 받아안았던 내가 아니요. 그걸 당신은 물론 정남이도 잘 알고있을테지...》

김려홍은 잊지 못할 전화의 나날을 불현듯 돌아보며 방안벽에 정중히 모신 한장의 기념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그것은 준엄한 전화의 날 최고 사령부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던 그의 모습을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이었다....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자 김려홍은 해빛밝은 배움의 창가를 떠나 인민군대에 탄원하여 남진의 길에 올랐다.

중기사수가 된 그는 맞다드는 놈들의 가슴팍에 복수의 불벼락을 무자비하게 들씌우며 멸적의 길을 누벼나갔다.

(지난날과 같이 저주로운 세상에서 두번다시 살지 않도록 해방의 봄을 안겨주신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기 위해서는 한놈의 원쑤라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쓸어놓혀야 한다!)

놈들을 향하여 섬멸의 불줄기를 쏘아부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곤했다. 그 길이 바로 해방전 살길이 막막하여 어린 나이에 손끝에 피가지도록 화전을 일구다가 산림간수놈에게 매를 맞고 배울래야 배울길 없어 눈물짓던 자기네한테 땅을 주시고 배움의 창가에 앉혀주신 아버지수령님께 충성 다 바치는 길임을 굳이높이 자각하며 불사신처럼 용맹을 떨쳤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의 중기좌지로 미제침략자놈들이 승냥이떼처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놈들을 향해 불벼락을 퍼붓던 그는 뜻밖에도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가 초불처럼 가물거리는 의식을 간신히 회복했을 때 미국놈들이 눈앞으로 덤벼들고있었다. 순간 그는 입술을 으스러지게 깨물며 부르짖었다.

(이놈들아, 아버지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총을 권조선인민군전사가 살아있는데 네놈들이 피묻은 군화발을 감히 어디라구... 안된다!)

그는 초인간적힘으로 중기를 틀어잡고 휘둘러놈들을 삼대베듯 쏘아눕혔다. 그가 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눈을 떴을 때는 야전군의소였다.

그후 상처를 가지고 부대로 찾아가자 자기의 중기관총은 이미 부사수가 차지하고있었다. 중대장에게 아무리 간청했으나 상처입은 몸으로 육중한

무기를 다룰수 없노라면서 보충수로 돌려놓는 것이었다. 단발짜리 보총을 잡고서야 남보다 어떻게 더 많은 원쑤놈들을 쓸어눌힐수 있으랴싶어 탕개가 풀렸다. 그는 보다 어렵고 무거운 전투임

무를 맡겨달라고 매일처럼 떼를 쓰다싶이했다. 그래서인지 그후 그는 적후정찰임무를 받게 되었다. 남다른 육체와 비범한 기질을 소유한 사람들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던 정찰병임무를 맡게 되자 그의 가슴은 끝없이 활랑거리었다. 그는 정찰임무수행에서 본때를 보이리라는 강심을 먹고 대담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여 여러차례의 적후정찰을 비롯하여 큼직한 《허》들을 생포해오기도 했다.

그가 어느날 부소대장과 함께 남강원도 원주계선에서 적후임무를 수행하던 때였다. 사위에 땅거미가 내려앉고있었다. 그들이 산굽이길을 돌아서는데 뜻밖에도 1개중대가 넘는 놈들이 우글우글 마주오고있었다. 불의에 맞다들어서 몸을 피할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일당백의 위력을 떨치지 않으면 안될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장군님의 전사담게 이 한몸 육탄이 되어 놈들과 결사전을 벌려야 한다!)

이렇게 마음굳힌 그는 놈들을 향해 연발사격을 퍼붓는 동시에 산발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엄포를 놓듯 함화를 들이대었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살려거든 손을 들고 투항하라!》

불시에 길목을 막아서며 위협조로 웨치는 인민군전사의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자 놈들은 초풍을 만난듯 몸을 와들와들 떨며 줄레줄레 두손을 들어올리는 것이었다.

《손에서 무기를 버리지 않는 놈들은 사정없이 쏘아버릴데다!》

그가 위협사격을 하며 다시한번 소리치자 기회를 엿보며 머뭇거리던 놈들마저 무기를 버리기 시작했다. 하여 그들은 1개중대나 되는 적들을 생포하여 부대로 유유히 돌아왔다. 그들의 전투소행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분에 넘치는 축하문을 보내주시고 공화국영웅칭호까지 안겨주시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김려홍은 현실로 믿기에는 너무나 벅찬 영광을 받아안자 감격의 눈물을 견잡지 못한채 축하문의 구절구절을 몇번이나 곱씹어 읽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지난날 화전민의 아들로 류랑걸식하던 저를 이처럼 당당한 전사로 키워주신 것만도 과분한데 이처럼 크나큰 영광을 베풀어주시니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려홍은 자기의 앞가슴에 금별을 빛내여주신 아버지장군님의 높은 신임에 원쑤놈들을 더 많이 잡는것으로 보답하리라 마음다졌다.

그러던 어느날 김려홍이 적후에서 미군장교놈을 포대자루에 넣어가지고 부대로 돌아오자 꿈결

에도 뵈옵고싶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기를 만나보시겠다고 부르신다는 격동적인 소식이 기다리고있는것이였다.

(준엄한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이밤도 최고사령부의 작전대앞에서 지새우고계실 장군님께서 이름없는 전사를 몸가까이 불러주시다니.)

그는 몇명의 영웅들과 함께 최고사령부로 떠나면서 뜨거운 눈물로 줄곧 두볼을 적시였다.

담청색바늘에서 알알이 반짝이는 못별들도 아버지장군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전사들에게 마치 축복의 빛을 뿌려주는듯싶었다.

그날은 1951년 6월 28일이였다.

그들이 설레이는 가슴을 애써 누잠히며 최고사령부의 앞마당에 들어섰을때는 오후 4시경이였다.

마중나온 한 군인의 안내로 집뜰안에 들어서려는데 꿈결에도 그림던 아버지장군님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몸소 그들앞으로 마주 걸어오시였다. 전사들이 높뛰는 가슴을 건잡지 못하며 정중히 인사를 올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영웅들이 전선길을 헤쳐오느라고 수고했다시며 한명한명 뜨겁게 포옹해주시였다.

《영웅동무들이 이제 왔구만! 먼 길을 오느라고 수고들 했소!》

그이께서는 전사들이 보고도 하기전에 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어깨를 두드려주시였다.

《장군님!》

그는 장군님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으며 어깨를 들먹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시고 친아들처럼 량팔에 끼안으시더니 집앞 왼쪽켠에 있는 밤나무밑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의자를 당겨놓으시여 앉으라고 권하시고는 한사람한사람을 대견스레 바라보시며 매 사람의 이름과 고향, 입대날자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적과 싸우던 이야기를 해보라시며 매 사람의 전투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주시였다.

김려홍이 적1개중대와 조우하게 되었을 때의 일을 말씀드리자 《참 잘 싸웠소! 아주 대담하게 행동했소.》라고 치하하신 다음 심중한 표정으로 대답한것은 좋으나 하마트면 큰일날번 했다고, 우리 전사 한사람은 적 백놈과도 결코 바꿀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다른 영웅들의 전투담을 다 들으시고 공격과 적후투쟁 등 각이한 전투를 통하여 훌륭한 경험을 쌓았다고 만족해 하시면서 그것은 앞으로의 전투에서 귀중한 밑천으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신데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매 사람들에게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라는 뜻깊은

글발과 이름이 새겨진 기관단총을 친히 안겨주시면서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 총에는 이 나라 수많은 혁명선배들과 인민들의 고귀한 피땀이 스며있소. 그리고 원수를 격멸하고 조국을 수호하며 특히 미제침략자들의 기반에서 아직도 신음하고있는 남반부인민들을 해방할데 대한 당의 요구와 인민들의 념원이 깃들여있소. 이 총으로 미제침략자들을 끝까지 소멸해야 하오.》

가슴을 울려주시는 장군님의 절절한 말씀을 뜨겁게 새겨들던 김려홍은 두손으로 기관단총을 억세게 받아쥐며 힘찬 목소리로 대답을 올리였다.

《최고사령관동지!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이 총대로 기어이 보답하겠습니다!》

×

지금 김려홍은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뵈옵던 영광의 그날의 모습을 찍은 한장의 사진을 감회 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못박힌듯 움직일줄 몰랐다.

그는 전화의 그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숭고한 뜻을 오늘에 와서 자기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 받들어가리라고 굳게 믿고있었다.

하지만 막내아들은 그 기대와 달리 기껏해서 늙은 부모들의 일손을 도와줄 생각밖에 못하고있지 않는가.

김려홍은 뜻밖에도 막내아들의 태도를 생각해 볼수록 가슴이 허전하고 쓰리였다.

(전화의 그 나날에는 물론이지만 전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로세대들은 무엇부터 생각했는가...)

김려홍은 뒤집을 지고 창가로 스적스적 걸어가며 또다시 추억의 갈피를 더듬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전선으로 다시 달려나간 김려홍은 그이께서 친히 안겨주신 기관단총을 억세게 틀어잡고 격전장마다에서 미제원썬놈들을 무자비하게 쏘아눅혔다. 그는 놈들의 가슴팍에 격멸의 총탄을 퍼부을 때마다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을 심장으로 힘있게 복창하듯 입속으로 웨치군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을 끝까지 소멸하라!》

하기에 그후 전승의 열병식에 참가한 김려홍은 주석단앞을 지날 때에도 다름아닌 그 기관단총을 메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갔던것이 다.

그러나 의외에도 김려홍은 자기의 손에서 총을 놓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부닥치게 되였다. 전후에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구분대를 책임진 어엿한 지휘관으로 자라난 김려홍은 전화의 날에 입었던 상처의 후유증으로 하여 대수술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수 있는 상태였다.

그는 그때까지 그 누구한테도 날을 따라 심해지는 상처의 동통에 대해서 내색하지 않았다.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에게 친히 안겨주신 혁명의 무기를 순간이나마 손에서 놓게 될가봐 우려했기때문이었다. 참기 어려운 육체적고통을 애써 짓누르며 부대의 전투훈련을 지휘하다가 그는 의식을 잃은채 병원으로 실려가서 대수술을 받았다. 수술후 생명의 위협은 면했지만 군사복무를 계속할수 없다는 청천벽력같은 진단이 내려졌다.

순간 그의 눈앞은 장막이 덮인듯 캄캄해졌다. 뒤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관단총을 안겨주시며 하시던 간곡한 말씀이 다시금 가슴을 울려주는듯싶었다.

《이 총으로 미제침략자들을 끝까지 소멸해야 하오.》

자기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믿음의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가슴이 찢기는것만 같았다. 그는 병원침대를 차고 일어나 창문가로 비척비척 걸어갔다.

(미제침략자놈들이 오늘도 저 남쪽땅에 눌러앉아 우리 사회주의조국을 또다시 침략하려고 날마다 화약내를 풍기며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준엄한 이 시각에 내가 손에서 총을 놓아야 한단말인가. 더구나 공화국영웅으로 내세워준 그 은혜에 보답못하고…)

그는 몸부림치듯 창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김려홍이가 배치된곳은 동해바다가에 자리잡은 아늑하고 경치좋은 휴양소의 소장자리였다. 물론 자기의 건강을 녀려하여 인생말년까지 편안히 지내라고 원심을 썼으리라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는 죽어도 가지 못하겠노라고 앉아버티기를 하다싶이하였다. 도무지 물러설것 같지 않은 그의 태도에 부대에서는 재삼 토의하다못해 그를 붉은청년군위대야영소 소장으로 보냈던것이다.

그러자 김려홍은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다소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일심정력을 다 바쳐 일하였다. 그런 그였기에 오늘까지 총잡은 병사의 마음으로 일해왔고 막내아들의 처사를 두고 생각이 깊어지는것이다.

(내가 정남이한테 신발을 똑바로 신기지 못했구나…)

그는 긴 한숨을 토하고는 웅글은 목소리로 무뚝뚝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네가 우리들을 생각해서 통학할수 있는 상급학교에 가련다는걸 안다. 그리고 물론 네가 과학기술로 당과 조국에 이바지할수도 있을게다.

그러나 내 보기엔 네가 형들이 총을 잡았다고 또 집안의 막내라 해서 부모결을 떠나기 싫어하는것 같구나.》

그의 준절한 말에 정남이는 얼굴을 붉히며 도전하듯 대꾸했다.

《아버지, 아니 그건… 너무해요.》

정남이의 질린 얼굴을 엄하게 응시하던 김려홍은 순간 혈압이 오르는듯 눈앞이 어질어질해움을 느끼었다.

《너무하다구? 뭐가 너무나냐. 사내녀석이라면 응당 총잡고 조국보위에 나설 각오가 돼있어야 할게 아니냐. 형들처럼 말이다. 지난해 일이 생각나지 않느냐. 그때 일을 돌이켜보거라.》

김려홍은 이렇게 소리치고 작업복을 입고는 문밖으로 터벅터벅 걸어나갔다.

《아니 여보, 차타고 오시느라고 피곤하실텐데 좀 쉬지 않구 어릴 또 가시우?》

어머니가 황망히 뒤따르며 만류했으나 아버지는 들은척도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갔다.

《아니 여보!》

어머니가 부르는 목소리가 대문밖으로 멀어져간다.

정남이는 방금 아버지가 자기한테 던지고 사라진 말귀를 되새기며 말뚝처럼 그자리에 서있었다.

지난해 겨울 자기가 아버지에게 혼쭐이 나던 일이 생각났던것이다.

정남이네 학교에서는 지난해 겨울 방학기간을 리용하여 눈길강행군을 조직했었다. 그러나 정남이는 감기에 걸려 열이 난다고 하여 행군에 참가하기를 스스로 단념하고 이불을 쓴채 집에 누워있었다. 뜨끈한 아래목에서 술긱이 잠에 들었던 정남이는 누군가 이불을 와락 찢히는바람에 눈을 번쩍뜨니 그의 머리맡에는 색날은 군복차림에 위장망을 한 배낭을 둘러멘 아버지가 서있었다.

《이녀석아, 어서 일어나지 못하겠니? 학교에서는 눈길강행군을 떠난다는데 넌 도대체 뭐냐?》

아버지의 버락치듯하는 소리에 정남이는 심기가 뒤틀려 웅얼거렸다.

《감기에 걸려서 허락받고 들어왔어요.》

《뭐라구? 정말 미국놈들이 침략해온다구 해도 감기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고 아래목에 누워있을테냐? 어서 배낭을 메고 나와 함께 가자.》

김려홍은 정남이의 손목을 와락 잡아끌며 웨쳤다.

《여보, 감기에 걸렸다는 애를 어찌면…》

남편의 큰 소리에 부엌에서 황급히 뛰어올라온 정남이 어머니가 꾸념을 했다.

《당신은 무슨 소릴 하는거요? 정 건지 못할 몸이라면 이 애비가 등에다 업구서라도 가겠으니 녀려마오!》

《아버진 정말?!》

정남이는 범같은 아버지의 성미를 잘 알고있었기에 가타부타 변명을 못한채 자리를 털고 일어나 따라나섰다.

어머니 역시 더 만류하지 못했다.

《아버진 계시세요. 저 혼자 갈테니.》

정남이가 배낭을 둘러메고 문밖을 나서는데 아버지가 뒤따라섰다.

《두말말고 어서 가자.》

그들이 문밖을 나서자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찬바람이 기승을 부렸다. 그들이 학교마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령이 떠난 뒤였다.

행군목적지는 학교로부터 30여리나 되는 험산 준령이었다. 제정된 시간안에 그곳에 도착하자면 출달음쳐가도 모자랄 시간이었다.

《저 산밭을 타고 지름길로 가야겠다.》

손목시계를 훑음 보고난 아버지가 앞장서 달리자 정남이는 하는수 없이 따라섰다. 자기때문에 불편한 몸으로 아버지까지 눈보라길을 헤치게 한다는 생각이 들자 정남이의 가슴은 알찌근해졌다.

아버지는 젊음이 되살아난듯 전화의 그 시절처럼 찬바람을 맞받아 무릎까지 치는 눈길을 씨렁 씨렁 헤치며 령길을 뚫아오르는것이였다.

정남에게는 찬바람을 막아주며 앞에서 걷는 아버지가 마치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는듯이 느껴지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한테 패배의 쓴맛을 본 놈들이 아직도 총구를 내리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마음의 탕개를 풀수 있느냐?)

아버지를 따라 험썩험썩 걷는 정남이는 전화의 나날에 불타는 강을 건느고 진펄길을 걷던 그 정신, 그 기세로 오늘도 변함없이 자기를 이끌고 역세계 진군길을 다그치는 아버지의 숭고한 모습에서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김려홍 역시 오늘 자기가 앞서 걷는 바로 그 길이 아직 한번도 전쟁의 준엄한 불구름을 헤쳐보지 못한 정남이와 같은 새 세대들을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조국의 미더운 수호자로 손잡아 걸음걸음을 이끌어주는 길임을 자각하고 기세충천하여 발걸음을 다우쳤던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먼저 떠났던 대오와 함께 목적지에 정시로 도착할수가 있었다...

(만일 그날 아버지가 나를 이끌고 가지 않았더라면 오늘까지 락오자의 수치감을 면치 못했을테지. 그래서 방금전에도 아버지 나한테 그때 일을 생각해보라고 했을게야... 그런데 아버지 어데로 나가셨을가? 어머니는 또... ?!)

링 빈 방에 서있던 정남이는 밖으로 나가보았다. 아버지가 작업복을 입고 나갔으니 틀림없이 야영소로 갔을듯싶었다.

야영소쪽으로 올라가는 둔덕길에 고요한 달빛이 흐르고있었다.

산골짜기로 주절주절 흐르는 개울물도 정남을 향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듯싶어졌다. 개울가의 둔덕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던 정남이는 인기척이 들리는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아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의 눈은 전조등처럼 둥그래졌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야영소앞마당에 세워져있는 구호들을 전지불로 비춰보며 깨끗이 닦는것이였다.

그 불빛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의 구호가 눈을 찌르며 안겨왔다.

그 순간, 그는 뜨거워지는 가슴의 세찬 파동에 떠밀리우듯 앞으로 달려갔다.

《아버지!》 하고 갈린 목소리로 찾았으나 아버지는 여전히 구호판을 깨끗이 닦고있는것이였다. 정남이가 걸레를 뺏어들어서야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였다.

김려홍은 아들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달빛어린 잔디밭에 앉더니 저르기 부드러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그래 좀 생각해봤느냐? 사실 난 네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믿었다. 너두 알다싶이 내가 뭘 크게 해놓은 일이 있다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평범한 로병에 지나지 않는 나를 몇해전엔 전국로병대회의 주석단우에 앉혀주시구 이번엔 또 당창건 50돐기념행사에 참가시켜주시였겠느냐. 어디 그뿐이냐, 전화의 그날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던 그 기념사진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도록판에 내어주시고 수령님께서 내 이름을 새겨서 안겨주시였던 뜻깊은 사랑의 기관단총을 친히 혁명박물관에 영원히 보존하도록 진렬해주셨다.》

《아니 혁명박물관에다요?!》

정남이도 그의 어머니도 너무나 감격적인 소식에 놀라며 다우쳐 물었다.

《암, 너두 이번에 올라갔다가 혁명박물관을 참관하고서야 직접 볼수 있겠다.》

김려홍은 잠시 말을 끊고 정남이의 어깨를 어루만지더니 물가에 젖어든 어조로 계속했다.

《너두 신문과 텔레비존에서 보았겠지만 오늘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 수많은 전투영웅들과 전쟁로병들이 자기가 흘린 피의 대가를 받기는커녕 한조각의 빵조차 먹을길 없어 군복과 훈장들마저 시장에 내다가 팔고있지 않더라.》

우리도 만일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빛내여가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없었더라면 그들의 신세를 면치 못했을게다... 나는 이번에 어버이수령님도 안계시고 오직 한분뿐인 장군님만을 모시고 진행한 당창건 50돐기념행사에 참가하고보니 우리의 운명이신 **김정일**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모셔야겠다는 생각이 깊어지더구나. 그러니 지난날 혁명의 1세, 2세들이 어버이수령님을 총대로 옹위한 것처럼 혁명의 3세, 4세들인 너희들이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 장군님을 총대로 결사옹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것이 로병인 이 아버지가 너에게 바라는 마음이라는걸 명심하라.》

김려홍이 이렇게 엄숙히 말하자 정남이는 마치 상관앞에 선 전사처럼 차렷자세를 취하며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도 후더워오는 눈굽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로부터 얼마후 성스러운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는 아들을 바래주며 따라선 김려홍의 주름진 얼굴에는 대견한 미소가 피여올랐다. 정남이도 자기를 배웅해주는 아버지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뜨거워지는 걱정을 누를길 없었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어도 준엄한 전화의 그날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려는 불같은 마음을 지닌 아버지와 같은 로병들이 서있기에 대를 이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보위할 새 세대들이 그 길을 따라서고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영원한 금성철벽이리라!

오늘도 불라는 락동강을 넘으며

김성근

나라에서 이제는 쉬라고
년로보장 혜택을 주었어도
일손을 못놓는 그가 전쟁로병
머리에 흰서리 내렸어도
젊어사는 그가 락동강로병이여라

스스로 찾아하는 일은
더 재미있다고
늘그막일수록 뼈마디를 달쿠는것이
장수보약이라고
그 손길 어디나 미치고
그 발길 어디나 가닿아라

때로는 수매원인듯
때로는 농장원인듯
땅에 묻힌 쇠붙이를 다 모으고
진거름 손달구지 밀고 포전으로 향하노라

앞가슴이 모자라는 그 많은 훈장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
나라에 보탬주는 많은 일 하고도
그 수고를 헤아리자면
오히려 먼구스러워하는 사람

아이들의 놀이터
돌뿌리를 뽑아버리는 그 손길
두렁길 걷다가도 빈포기 보면
바지가랭일 적시는 그 모습

락동강을 넘나들던
그 시절에 잡았던 총은
자식들에게 넘겨주었어도
결코 넘겨줄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안고 살아
나이 들어도 늙을수 없는 락동강로병

그날의 그 명령우에
오늘도 다시 불려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명령을 새로이 안아
자신을 혁명에 다 바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우리 당의 전사

아, 보통날에 살아도
그의 삶은 싸우던 그날에 있어
쉬임없이 바치는 충성의 자욱으로
오늘도 그의 마음은
불라는 락동강을 넘고있어라

당 부

최광조

백번을 더 들었겠지만
아들아
백번을 다시 더 들려주고싶구나
머리 희여진 나를 대신해
8미터 타닝반을 넘겨받은 아들아

너는 알지
맨손으로 우리가 이길 만들었을 때
공장을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
너무도 기쁘시고 대견하시여
환하게 웃으시며 하신 그 말씀
-이 공장은 혁명전통이 선 공장입니다

그 누가 꿈에선들 생각했겠니
연길폭탄 만들던 투사들의 그 자리에
쇠를 가는 우리들을 세워주시었으니
그날에 이 가슴이 터치던 그 감격을
그대로 너에게 안겨주고싶구나
그 믿음속에 타오르던 대고조의 불길을
그대로 네 심장에 지퍼주고싶구나

정말이지
그날부터 이 아버지의 작은 가슴에도
백두산이 안겨있었다
밀림속 병기창에 서있는 마음으로
대형압축기도
1만톤 프레스도 첩첩 만들어냈다

너도 쇠내를 맡으며 이제껏 자랐으니

기계속내도 어지간히 알겠지만
새로와야 한다
이 기대를 말아안은 마음은
쇠와 쇠가 부딪치는속에서도
밀림속의 풀무소리를 들을줄 알아야 한다
드세찬 그 메질소리를 새길줄 알아야 한다

그때라야 참으로 그때라야
내 심장에도 백두의 혈맥이 뛰고
네가 짊는 강쇠처럼 이 기대앞에서
혁명전통 지키는 기둥이 될수 있으리

잊지 말거라 잊어서는 안된다
어버이수령님 믿음에 찬 그 말씀
바이트의 불꽃으로 새겨나가고
치차들의 회전속에 담아가거라
길 갈 때도 잠 잘 때도 그 뜻을 안고 산다면
지구가 깨여지는 그런 때가 있어도
네 마음은 백두산의 돌을 딛고 솟을거다

아들아
영광의 이 기대앞에
영원히 서고싶은 내 마음
이제는 네가 다 안고
혁명전통이 선 공장이라는
수령님의 그 믿음앞에 부끄럼없이 살 때
너는 나의 아들
당의 아들로 조국앞에 땀땀할거다

나는 진정으로 머리를 숙인다

정은옥

그전엔 그저 머리를 숙여왔다
아침마다 출근길에서 만나는
우리 옆집 아바이에게
그저 례의라할가, 의무라할가
나는 각근히 머리를 숙였다

열일곱 엷은 어깨에 총을 메고
락동강의 불모래를 밟았다는 아바이
늘 어깨를 구뵓하고 걸을 뻔
젊은 시절에 남긴 생의 자욱이
크게 보이지 않던 그 모습

허나 지금 내 눈앞에
그 삶의 자욱자욱이
별빛처럼 빛나며 꺾 차오나니
내 심장을 뜨겁게 더웁혀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말씀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라!

내 언제 한번 생각이나 했던가
배움의 교정에만 울리던
선배란 그 말
우리 걷는 혁명의 길에도 있음을
생활의 이웃으로 친숙한 옆집 아바이가
나의 혁명선배로 이렇듯 가슴 두드릴줄을

그 어디서도 찾을수 없던 생활의 진리였다
아바이를 혁명선배로 잘 받드는것
그것이 내가 지녀야 할
참다운 의리, 참다운 도덕임을
또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행복임을
삶의 넓으로 깨우쳐준 장군님의 숭고한 그 뜻

가슴 벅차온다
위대한 장군님이 아니고서야
이 세상 어느 누가 우리 가슴에 새기여주랴
이런 의리, 이런 도덕을
내 나라의 크나큰 채부로 가진
행복이여, 더없는 긍지여

비길데 없다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라!
이 숭고함속에, 이 사랑속에
선대와 후대가 혁명동지로 하나된 인민
그 동지애를 혁명의 기둥으로 안고 사는
내 조국의 아름다움이여, 고귀함이여

지금은 아바이의 희끗한 은발마저
뿔뿔한 생의 추억을 간직해
눈굽이 젖어 바라보는 이 마음
말없이 그가 걷는 자욱우에
애써 나의 작은 자욱도 따라세우고싶다

수령님을 받아들여온 그 충성으로
오늘은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받들며
조국앞에, 후대앞에
참된 삶의 거울로 값높이 선 그 모습
내 어떻게 존대해야 하는가를
가슴뜨겁게 느껴안으며...

나는 진정으로 머리를 숙인다
이 땅의 행복속에 별빛같이 새겨진
로병의 그 빛나는 자욱자욱에
내 또한 그렇게 살아갈
혁명선배!
그 숭고하고 고귀한 모습앞에!